

월간 증 현

'80 9월호



교회설립 27주년을 맞이하여

1953년 9월 6일(첫주일) 서울 중구 인현동에서 「동일교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충현교회는 27년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자라왔다. 창립에배 당시 18명의 성도로 시작된 충현교회가 교회설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는 하나님께서 1만여명의 성도와 55명의 교역자와 1,200여명의 제자를 주셨고, 나아가서 10명의 해외 선교사와 지금까지 50여 곳에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생활과 심방, 전도, 교육, 교회행정등 제반분야에서 한국교회에 빛이 되게 하셨다.

오늘의 충현교회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눈물과 정성의 기도가 밀거름이 되었거니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시려고 키워 주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이다. 그러므로 충현의 성도들이 2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충현을 추호라도 자랑하는 영적 자만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영혼 떠난 육체가 시체이듯이 하나님께서 떠난 「충현교회」는 영적 생명이 끊어진 「충현교회당」에 불과하게 된다.

이제 교회설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충현은 오늘까지 넘치는 은혜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창세전부터 충현을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충현교회를 키우심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함이고, 새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려 하심이고, 충현교회에 5대목표를 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충현의 온 식구는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희으로부터 자신을 성결케 하며,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27년간 충현교회를 예루살렘교회처럼 키워 주셨다. 그러나 이제부터 충현교회를 통하여 안디옥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줄 믿는다. 평신도로 시작된 안디옥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충만한 교회로 성장하면서 일꾼을 키우고,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지방 등 당시의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선교센터 역할을 감당했듯이, 이제 충현의 온 성도들은 추수할 것이 많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만한 천국 일꾼들을 키우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천국 일꾼들로 자라며, 북한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를 위시한 온 민족을 복음화하는 복음의 대가 되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말세의 안디옥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키 위해서는 안디옥교회가 성령 충만했듯이 충현교회는 영적 생명력이 폭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안디옥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듯이 충현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 굳게 붙잡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충현의 모든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연구하면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한가지 이상씩 봉사하여 말씀속에 녹아진 인격과 봉사의 생활로 각자가 속해 있는 영역-가정, 학교, 직장등을 정복하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어야 한다.

충현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오늘까지 27년간 성장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충현을 영적 활력이 넘치는 성령의 영광로가 되게 하시며, 민족과 세계안에 복음의 등대로 세우실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8권 제 8호
통권 80호

— 9월호 차례 —

권 두 언 교회설립 27주년을 맞이하여	주 간 · 2
이달의말씀 십자가의 정병이 된 성도는	김장인 · 4
신앙 간증 중공에서의 신앙생활	이 응 · 6

월간 충현

* 교회설립 27주년기념 특집 *

-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위하여 번역 / 오태용 · 13
- 해외선교전략과 선교사양성방안 김영희 · 30
- 충현교회 성가대의 미래상 차신득 · 36

선교보고 서독 - 세곳에 한인교회설립	육호기 · 38
독자의글 소리	조현명 · 42
독자의글 농어촌 파송전도를 다녀와서	김수진 · 44
독자의글 제 2회 하기선교훈련을 마치고	이교숙 · 48
평가보고 제 9차 농어촌 파송전도 평가보고서	조준상 · 52
찬송가감상 우리주여 목자되어서	김하진 · 51
기독교윤리 전쟁과 평화	김하진 · 54
선교월보 선교지소식 · 기도제목	해외복음선교회 · 56
구역소식 7월중 새교우	편집실 · 58
권찰수첩 심방에 대한 재 인식	김원남 · 59
교회소식	편집실 · 60
도서정보 7월중 들어온 도서	도서실 · 62
책 소개 목회의 본질	박동실 · 62

* 권말부록 *

틀리기 쉬운 용어 예 편집실 · 63

교회행사	편집실 · 74
편집후기	편집실 · 74
표지설명 / 강남구 논현동에 새로 건축중인 새성전 건축현장. 지하 1층 주차장 골조공사를 마치고 2층 골조공사와 교육관, 본당의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병이 된 성도는

〈에베소서 / 6 : 10~20〉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천국시민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병으로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와 싸워야 하며,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됩니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1) 세상은 여관, 우리는 길가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은 옛날부터 있는 여관입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난 시간부터 죽음 정거장을 향하여 1초도 머뭇거림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 길가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의 길가는 나그네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상 받으러 가는 희망찬 나그네와 지옥으로 끌려 가는, 죄를 범하고 형벌을 받으러 가는 불행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2) 세상은 일터, 우리는 책임있는 일꾼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혜롭게 계획하고 착실하게 준비하여 큰 실력을 갖추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일하면 귀한 일꾼, 즉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적도 없이, 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실력도 키우지 못하고 세월을 아꼈 줄 모르며 기회를 놓치면서 생각나는대로 행편이 되는대로 우물쭈물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3) 세상은 전쟁터, 우리는 무엇인가 싸워야 하는 군인입니다

인류 6천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호령하던 파사라고 하던 나라가 히랍과의 전쟁에서 짐으로 세계의 중심은 히랍으로 넘어 갔을

니다. 그후 히랍에서 로마로, 그리고 대서양을 돌아 로마시대가 서바나시대로, 서바나시대가 영국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차대전을 통하여 영국시대는 막을 내리고 미국시대로 옮겨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일어난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꺾이면서 미국의 세력도 절반으로 부서지고 이 전쟁후에는 미국과 소련 두나라가 세계를 호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 우리는 누구와 싸움을 합니까

자기 가족끼리 싸우는 가정은 가시밭에서 사는 것처럼, 비 새는 집에서 사는 것처럼 괴로울 것입니다.

자기 백성끼리 싸우는 나라는 머지 않아 명맥이 끊어져서 망할 것입니다. 신자끼리 아무 필요없는 싸움을 하면 그 교회에는 부흥과 발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도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내 식구와, 내 백성과, 내 교인과 싸워야 됩니까? 꿈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내 편이 누구인지 알아 뭉쳐야 되고, 원수가 어떤 것인지 알아 대적해야 하고, / 원수의 실력을 생각하여 싸움할 준비를 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법대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1) 내 마음속에 있는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원수는 산 너머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 가슴속에는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남보다 무엇이랄도 조금 나으면 교만한 마음이 뭉글뭉글 자라와서 자기 자신을 잊어 버리는 정신이상자가 되어 버립니다. 남보다 무엇이 조금 나으면 나는 훌륭

하다 하고 발뺌족이 쑥 올라갈 때에 자기 자신을 잊어 버리는 미치광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다.

둘째로 나태와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 부리는 것, 즉 나태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머리가 좀 좋다고 '나는 실컷 놀아도 문제없어 이틀만 새우면 되는 걸' 하지 마시다. 머리가 조금 좋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게으름을 부리거나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덥다고, 또 조금 재미있다고 하는 일에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이 게으름은 2가지 무서운 일을 가져 옵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어 게으름을 부리는 시간에 나는 그만큼 제자리걸음을 하고 원수는 그만큼 준비를 하니 싸움에 내가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세째로 외식과 싸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껍데기를 씌웁니다.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은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굴욕당하는 멸망을 불러 들이게 됩니다.

네째로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빨리 주고 가지지 못할 것이면 욕심부리지 말고 빨리 손 씻어 정리하고 하나님 것은 철저히 계산하여 열의 하나를 바칩시다.

다섯째로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낙심하기 쉽습니다. 현재의 나의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속에 있다 해도 내일 아침 밝은 햇빛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품어 인내하면서 각각 내 생명 바치는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스럽게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2) 나의 밖에 있는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첫째로 주위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매우 험합니다. 우리의 주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위 사람이 고의적으로 꾀박을 해 와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비방을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싸우지 말고 하나님 중심하여 내 할 일만 바보처럼 충성하여 주위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둘째로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악마가 "이놈 말 안들으면 죽여 버려"하며 사자처럼 입 벌리고 달려들 때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웃으며 악마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3)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싸우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가 위태롭고, 힘들고, 괴롭고, 또 물질도 많이 들어 가는 싸움에 싸워 이길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칭찬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 이겨야 됩니다.

둘째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먼저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자기들만이 망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믿는 교인들의 믿음이 꺾여짐으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많이 키우려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세째로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자손들은 만세 반석위에 튼튼히 기반을 잡은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에 내 것 아깝다고 욕심부리며 다른 사람은 맘 졸이는 동안에 나는 편히 쉬려고 하다가 뭉치지 못하므로 힘을 모으지 못하게 되어 이 전쟁에서 지는 날이면 우리에게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지면 육적 한국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싸움의 승리에 있어서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로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을 이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며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게으름 부리던 생활을 차고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고 또한 내 후손을 위하여, 싸우는 자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싸움에 지면 나는 망하고 하나님께 욕이 되며, 내 후손도 망한다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워야 합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바쳐서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의 축복과 승리의 영광과 영육의 부자 되는 복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없는 이삭같은 내 재산을 바쳐서 내 생명 다하여 성전 건축하고 세계선교와 민족 복음화, 북한선교를 힘있게 하여 1984년까지는 한국의 신자가 2,000만이 넘도록 전도하여 이 나라 자손 만대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육이 부자가 되는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
(선교부 중국어반 강사)

52년만에 중공에서 귀국

환난과 핍박속에서 지킨 신앙

52년간의 중공생활을 끝내고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고국으로 발걸음을 디딘 것은 작년 3월이었다.

중국 공산정권에 대항하여 14년 동안 끈질기게 조국귀환운동을 벌인 뱃가였다. 그러나 52년 간의 중공생활을 청산하며 조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뒤따랐다. 천진역에서 가장 사랑하는 둘째 딸과 외손녀를 인질 형식으로 두고 떠나야 할 그 저주스런 일들이 조국으로 향한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천진역에서는 참으로 환송이 아닌 폭승을 받으며 조국의 귀향길로 오르게 된 나는 북경에서 광주를 거쳐서 홍콩에 이르렀다. 이 홍콩에서 만나 뵈게 된 홍콩만선교사님은 내가 중현교회와 연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홍콩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야아, 이런 세제적인 도시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민족이 있구나” 나는 그저 놀랄 뿐이었다. 그후 홍콩사님을 통해 도움 받은 것은 많았다. 중현교회를 소개해 주신 것과 아직도 중국땅에 있는 둘째 딸과 가장 사랑하는 외손녀에게 계속 연락을 보내주며 선물을 보내 주시는 등 사랑

의 손길들에 대해 심중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 뿐이다. 당시 홍콩에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으나 영사관의 지시로 그날 꼭 떠나게 되어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게 된 것은 정말 섭섭했다.

나는 1920년에 세례교인이 되었다. 삼일운동의 결과로 닥쳐 왔던 상황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었다.

사실 내가 52년 간 중국에 살면서 일어났던 일, 특히 기독교신자이므로 박해를 받게 된 일을 기록한다면 많은 분량이 필요하지만 중공에서 기독교인을 표방하면서 생활해 온 사람으로서 보고 듣고 체험했던 중공의 기독교 상태를 이 지면을 빌어 기술하려 한다.

81세의 나이인 나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이 글을 쓰면서 마스크를 통한 중공 실정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표방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작은 일이지만 중국대륙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원하고 있는 사백만 한국인 교포와 집역의 중국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심중 기뻐하면서 글을 쓴다.

1927년 28세의 나이로 중국대륙의 장춘에 가서 살게 되었을 그 당시에 그곳에는 한인교회가 한 곳 있었다. 교인수도 많았을 뿐 아니라 교회 세력도 컸으며 교회 분위기도 화기애애하였다.

또한 그 교회는 유치원도 경영하고 있어서 그때 5살 먹은 나의 아들은 유치부에 다녔으며 아내와 나는 함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중국과 일본이 적대관계에 있었기에 중국인들은 우리 한국인의 고초를 이해하여 주고 우호적이어서 중국인 주민들과는 참으로 신앙과 우정을 나누며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1949년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그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토지의 국유화와 종교에 대한 탄압이었다. 즉 모택동이 자기의 정권수립에 가장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혁명과 종교 탄압을 이용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나 무산계급의 수가 가장 많게 마련이고 또한 이들은 대체로 지식 정도가 낮아 사고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지주 출신인 모택동은 아들 무지한 무산계급들을 선동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신의 정권야욕을 달성코자 하

였던 것이다. 더우기 중국에서는 고래로 제왕 재상이 농민, 상인에 대한 압박과 착취를 약탈하고도 노골적으로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들은 통치자에 대한 불만과 반항, 그리고 끝수에 맺힐 만큼의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역사와 민족의식을 이용하여 건국 즉시 지주, 부농의 토지를 몰수하였고 또한 마르크스의 무신론을 방패로 종교 탄압을 시작하였다.

중국에서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회교, 라마교, 기타 변두리지방의 소수민족이 신봉하는 각종 종파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 대체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많은 신도를 점유하고 있는 회교는 전체 회족만이, 라마교는 주로 서장족이,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천주교 포함)는 수가 가장 많은 한민족(중국본토인)과 만주족이 신앙하고 있었다. 따라서 천주교와 기독교 신자에 대한 타격은 매우 컸던 것이다.

그런데 이 종교 탄압에 있어서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하여는 극심한 탄압을 하였던 반면에, 내적인 조직이 강하였던 회족끼리의 회교와 서장족의 라마교에 대해서는 거의 박해하지 않는 완화정책을 쓰고 있었으며 오히려 보호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미신을 포함한 기타 소수민족 고유의 유사종교는 탄압에서 제외되었다.

이같은 불평등한 종교탄압의 근거를 추적하여 보면 그것이 마르크스주의 이론 원칙에 대한 필수성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모택동의 교묘한 정권유지 정책이라는 참 목적이 숨어 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회교도의 회교신앙은 단지 회교라는 종교를 신앙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회교를 중심으로 민족의 단결심을 굳혀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한민족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회민은 일체이다”라는 강철같은 기치 아래에서 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는 민족 대단합체였기에 설불리 건드리면 정권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회교나 라마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권수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심을 베풀어 보호하기까지 하였다. (이 회교, 라마교는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기타 소수민족의 잡다한 종교단체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비교적 지식층에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고, 또한 비옥한 토지가 있는 대륙본토 심장지대인 양자강, 황하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과 만주대평원에 자리잡고 있는 만주족이 주로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극심하게 탄압하였다. 그 이유는 만주족이 한족을 침략하여 세운 나라인 청나라 때에 만주족 누르하치는 600여 년간 한민족을 박해하여 왔다. 이러한 대청정권에게서 받아 온 압박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심이 한민족 전체의 가슴 속 깊이 박혀

있는 상황하에서 모택동은 이 두 민족의 대립을 이용하여 두 민족 간의 이간정책으로써 기독교를 박해하였다. 한민족 내의 기독교인을 탄압하여 만주족 내의 기독교인을 회유하였고, 또한 만주족 내의 기독교인을 탄압함으로써 한민족 내의 기독교인을 끌어들이어 자신의 정권에 유리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 난장판에 중국인 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국인 신자들은 주일마다 마당에서, 밭고랑에서 만나는데로 숨어서 간단히 미사를 드리지요. 아무리 큰 탄압이라도 절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참 좋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은 뽕뽕이 헤어진 채로 이젠 거의 신앙을 포기한 셈이지요.”

또한 그 뿐 아니라 기독교는 고래로 미국인, 영국인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침략의 도구로 이용되었기에 미제국주의에 대한 증오감이 곧 기독교에 대한 증오감으로 바뀌어 더욱 탄압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 밖의 잡다한 종교들은 전반적인 무신론적인 정책하에서 자연히 스스로 그 자취를 하나둘씩 감추어 나갔던 것이다. 가장큰 미신 중의 하나였던 “낭낭묘” 처녀 교주의 생일에는 수백리 밖에서 그 교인들은 이상한 형식을 차리는 절음절이로 모두 도시에 모여드는 현상이 일년에 한번씩 눈에 띄었으나 점차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것이 그 예이다.

이같은 탄압은 반혁명 정치조례(반혁명분자 숙청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작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신자를 체포 또는 감금하였다.

이른바 인민재판이라는 명목의 공심대회는 무섭고 무서운 방식이었다. 이때에 기독교 신자는 전전긍긍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성경책과 찬미책을 불사르거나 감추고 또 외딴 곳으로, 국외로 도망치는 등 일대 소란이 지속되었다. 이 공심대회의 한 광경을 적어 보겠다.

공심대회는 큰 운동장에서 거행된다. 대도시에서는 수십만의 시민이 소집되어 있는 운동장 가운데에 자리잡은 높은 단상에는 법관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재판 대상자는 수갑과 쇠고랑이 채인 채로 경찰관에 의하여 주석대 바로 앞에 꿇어 앉힌다. 경찰관의 최행 낭독이 있는 동안 수십만 군중은 몇 번씩 “모주석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반혁명분자 타도!”를 땅이 꺼질만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법관이 기립하여 판결을 낭독하려 할 때 군중이 마지않으로 “창비이, 창비이”(총살)이라고 외치는 청천

벽력 같은 장면이 계속된다. 법관이 “전체 군중의 의견에 따라 아무아무개는 총살에 처한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끊어 얹힌 죄인을 무지막저하게 일으켜 세워서는 대기하고 있는 트럭에 네 발이 묶기운 패지와 같이 실어가지고는 형장으로 끌고 간다. 상소권도 없다. 사상이 나쁜 사람은 반드시 이 공심대회를 견학해야 한다. 나도 매번 불러 가서 참관했던 것이다.

이 종교탄압에 있어서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하여는 극심한 탄압을 하였던 반면에 내적인 조직이 강하였던 회족끼리의 회교와 서장족의 라마교에 대해서는 거의 박해하지 않는 완화정책을 쓰고 있었으며 오히려 보호까지 하였다.

이외에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탄압을 가하였다. 기독교 회당과 천주교 성당은 공장으로 혹은 창고로 전락되었다. 1950년 초에는 사상관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 천주교 신자는 모두가 신고하도록 했다. 이때 전국에 산재해 있던 수 많은 신자들은 숙청이 될까 두려워 하여 신자인 것을 속이고 등록을 회피하였으며 혹은 앞으로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 때 이들 기독교 신자의 실정이 어떠했던가는 가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나는 “과거에도 신자였고 현재에도 신자이고 장래에도 영원히 신자일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로 등록을 하여 전국의 신자와 사회인사를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 이후로 출판 받은 육적, 심적 고통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으나 난 이 때를 회상할 때마다 늘 장쾌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때에 몹시도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전국에 목사, 전도사들 대부분이 자기가 신자이었음을 숨겼고 이들 중 어느 한 목사는 미술에 대한 옛날의 소질을 살려 모택동 초상화를 그리는 직업으로 전락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날 청년단에 볼 일 보러 갔다가 그 문밖에서 한 중국인 청년을 만났다. 그는 “선생님,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이시지요?”하고 물었다. 이 돌연한 물음에 나는 침묵해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 신자인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예,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중국인 신자들은 선생님의 존재를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요? 반가운 친구를 만났군요.” 이 때에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가

내민 뜨거운 손을 맞잡았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심정이었다. “이 난장판에 중국인 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국인 신자들은 주일마다 마당에서, 밭고랑에서 만나는데로 숨어서 간단히 미사를 드리지요. 아무리 큰 탄압이라도 절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참 좋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은 뽕뽕이 헤어진 채로 이전 거의 신앙을 포기한 셈이지요.”

1950년 이래로 나는 사상이 나쁘고 남조선 출신이라는 관계로 정부에서 주는 직업을 갖지 못해 고생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내와 함께 도라지 판지를 만들어 어깨에 메기도 하고 들고 다니며 공업도시를 상대로 소매를 했다. 정직하게 장사했기에 조금씩 돈이 모아져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 그런데 1958년 12월 28일에 자본주의 장사방법이라며 법에 어긋난다 하여 10만 달러나 되는 상품을 모두 몰수 당했다.

이외에도 지금 내 머리 속에는 수 많은 사건들이 계속 되살아 나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이제 세상을 크게 흔들었던 문화혁명의 광경으로 넘어가야 하겠다.

1966년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 폭발되어 전대륙에 상상 이상의 천둥이 닥쳤다. 모택동과 유소기의 정권 싸움에서 유소기를 축출하려는 목적으로 이 혁명이 사회의 각 부문에 미치게 된 영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독교, 천주교의 잔재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나는 중국인들이 가혹한 투쟁(군중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인민 재판을 받는 것을 뜻함)을 받는 것을 매일같이 보았다. 여기서는 생각나는 것 중 몇가지만을 적으려 한다.

어떤 목사가 모택동 어록 중에서 성경말씀과 비슷한 말이 있는 부분들만을 떼내어서 출판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AP통신사 북경지사 기자로 있던 영어에 능통한 “왕한루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 더 자세한 내용들을 부가하여 원고에 써 넣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진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런데 어느날 홍위병들이 몰려와서 왕한루이를 투쟁한 후 앞마당에 끌어내서 그의 성경과 찬미책, 그리고 많은 서적(대부분이 기독교 관계 서적) 30여권을 친히 불사르게 했다.

북풍이 부는 날이어서 연기와 재를 피하려고 바람을 등지고 앉아서 꼬챙이로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되고 머리는 온통 재투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홍위병은 그에게 바람을 향하여 앉으라고 명령했다. 책이 탈수록 불길이 얼굴에닥쳐서 호흡이 곤란하게 되어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괴로움을 참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나

와 매우 친한 사이였고 또 그의 부인은 나의 둘째 딸이 천진음악대학에 다닐 때부터 피아노를 지도하던 선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고난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었고 나 역시 언제나 그와 같은 고통이 밀어 닥칠 지 몰라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주위에 모여든 수 많은 구경꾼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왕선생보다 나를 더 쳐다보고 있었다. 너도 조만간 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니 두고 보라는 자세가 틀림이 없었다. 그의 고통은 1 시간 이상이나 계속 되었고 책들이 모두 태워진 후에 홍위병들은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그날 밤에 나는 왕 선생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였다. 중국 전역에 있는 기독교 신자 전체에 대한 동정심과 울분이 섞인 채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조국의 자유로운 모습이(나는 계속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조국의 발전상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한국 교포들은 종종 내게 와서 조국 이야기를 묻고 어떤 때에는 밤새도록 조국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도 했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떠올랐다. 청춘시절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말씀을 가르쳤던 기억들이 생각나서 전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왕선생과 같은 고난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가지 생각과 기도를 하며 뒤척이고 있었는데 새벽 3 시쯤 되었을까 대문을 마구 두드리며 “문 열어!” 하는 고함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나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며 허둥지둥 옷을 입고 문을 열었다. 홍위병 완장이 유난히 똑똑하게 눈에 띄었다. 그들 한 무리는 외실을 거쳐서 내실로 들어왔다. 나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두려웠다. 홍위병 5, 6인, 가도직원들, 거민위원회의 직원들, 그리고 파출소 군 대표인 현역 군관 한사람 등이었다. 대표격인 홍위병이 “이응, 김영주 두사람 나와!” 라고 하더니 나와 나의 아내의 뒤통수를 탁 때리며 그 앞에 눌러 앉히고 고개를 숙이게 했다. “너는 무슨 죄를 졌는지 아는가?” 나는 “문화혁명에 참가하지 않고 남조선에 가려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것에 잘못이 있으?”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잘못이 아니라 반혁명이야. 우리의 위대한 영수, 위대한 도사, 위대한 통수 모주석이 친히 제창하시고 친히 영도하시는 역사적인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에 참가하지 않고 자유가 없고 살기 어려운 남조선에는 왜 가겠다고 하는 거야. 응……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이냐 말이야” “알아요. 참 좋은 나라이지요. 그러나 남조선은 나의 조국이고 나의 세 자식이 우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악을 쓰며

“뭐? 어째서 남조선이 너의 조국이나? 너의 조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이 곳이 아니고 어디냐 말이야.” 나는 꺾꺾 참고 있었다. 만약 이 마당에 꿀을 내고 반항하면 당장에 맞아 죽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출국문제를 제촉하고자 매일 공안국에 갔었는데, 그 때마다 맞아 죽은 시체가 그 대문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나의 조국의 발전상을 보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여기서 개죽음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내가 조국문제로 반항하지 않자 다른 문제를 꼬집어 내는 것이었다. “너는 중국 공산당을 욕하고 위대한 영수, 위대한 도사, 위대한 통수 모주석까지도 욕을 한 용서 받지 못할 죄인이며 교육을 받은 것도 다 알고 왔단 말이야. 뻔뻔스럽게도 남은 모두 예수교 신자가 아니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데 전방지계 예수교 신자라고 신고하는 것은 악질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가 그래도 아무말 않고 있으니까 가택 수색을 하고 있는 여자 홍위병을 돌아 보고서 “그 사진과 사진첩, 편지 봉투, 서화 모두를 몰수해요.”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나의 아내가 사진은 왜 몰수하느냐고 하니 “결혼사진 등 큰 상에 진기한 음식을 차려 놓고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고 있는 등 풍요한 자산계급 풍속을 간직해 두면 사회에 해독을 끼친단 말야.” 라

1950년 초에는 사상관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 천주교 신자는 모두가 신고하도록 했다. 이때 전국에 산재해 있던 수많은 신자들은 숙청이 될까 두려워 하여 신자인 것을 속이고 등록을 회피하였으며 혹은 앞으로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때 이들 기독교 신자의 실정이 어떠했던가는 가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에 나는 “과거에도 신자였고 현재에도 신자이고 장래에도 영원히 신자일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로 등록을 하여 전국의 신자와 사회 인사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고 하였다. 구석 구석을 뒤지느라고 뽕석을 하던 여자 홍위병은 힘이 들었는지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내 집에는 이불도 없고 다 떨어진 솜 누더기에 뽕마장사도 사가지 않을 다 떨어진 옷가지들 밖에는 없었다. 곧 출국이 허가될 줄 알고 모두 팔아버렸기 때문이

다. 한 여자가 침대 밑에 있는 잡동사니를 끄집어 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밑에는 다섯째 아들이 중국인 중학교에 다닐 때 노동하러 가서 개천 속에서 일본 군인이 쓰던 창을 집어가지고 온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발견되면 문제가 크다. 그때 나는 계교를 썼다. “여보 홍위병 동무, 그 침대 밑에는 할퀴기 잘하는 암상스런 고양이¹가 있으니 주의해요. 내가 꺼낼까요?” 하니까 그 여자 홍위병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떼고 꺼낸 물건까지 도로 밀어 넣었다. 이같이 해서 화를 면했다. 어느새 날이 밝았다. 홍위병 대표는 “이 몇가지는 몰수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력을 큰 종이에 써서 내일 바깥 벽에 크게 써 붙여!”라고 하였다. 이제 가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성경책과 찬미책 5, 6 권을 가지고 나오라고 호통을 쳤다. 사랑하는 책이 조금만 찢기거나 더럽혀져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독서가는 물론 일반인의 상식이다. 더우기 성경과 찬미책을 불사르는 것은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일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는 책을 펴서 타기 좋게 한 후 성냥을 그어 냈다. 잘 타지를 않았다. 마치 이 책들이 나와의 작별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홍위병은 쇠꼬챙이를 가져다가 내 앞에 던졌다. 꼬챙이로 이리저리 뒤집으니 까 잘 탔다. 동경 유학시 존경하는 일본인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포켓용 성경은 끝까지 잘 타지를 않았다.

나는 왼쪽 무릎을 꿇고 바른 무릎을 세운 자세로 바른손에 든 꼬챙이를 불속에 꽂은 채 경건하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의 성경과 찬미책은 불에 타서 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과 찬미책이 오래지 않아서 몇 십, 몇 만배로 늘어나 이 땅위에 다시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성경이 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울분과 고통이 있었으나 기도했을 때에 곧 사라졌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왼쪽 무릎을 꿇고 바른 무릎을 세운 자세로 바른 손에 든 꼬챙이를 불속에 꽂은 채 경건하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의 성경과 찬미책은 불에 타서 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과 찬미책이 오래지 않은 장래에 몇 십 몇 만배로 늘어나 이 땅위에 다시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성경말씀을 저는 꼭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떠보니 책은 아직도 타고 있었다. 아마도 내 곁을 떠나기가 무척 싫었던 것 같았다. 책껍데기에 불이 붙은 후 후둑후둑 튀는 소리가 났다. 하나님께서 위안하시는 말씀 같이 들렸다.

때문에 이력서를 크게 써서 붙였다.

많은 행인이 섰다가 다 본 후 돌아서며 하는 말이 거의 같았다. “홍! 고향 생각한 죄로군” “홍! 일본 유학한 죄로군” 이 이력서는 그날 저녁으로 그 형태조차 남지 않았다. 보고 나서 나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한 쪽씩 찢으며 지나갔기 때문이다.

또 몇 날이 지났다. 예수를 믿다가 빨간 물통에 빠졌었던 정씨, 박씨 두 사람이 나를 방문했다. “아아, 선생님 성경책 태우셨지요?” 이 말 한마디 하고 나서 그들은 울음이 터질까 비 머리를 돌이키고 다른 말 한마디 하고 나서 다시 한마디 “참 용케 참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성질에.....”하였다.

나는 내가 좋아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매일 속으로, 어느 때는 소리를 내어서 외었다. 1절 밖에 외우지 못하는 찬미는 이것 저것 생각나는대로 소리 높이 불렀다.

천진 시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았다. 어떤 중국인이 내 앞을 지나면서 나를 보고 중얼거렸다. “즈첸싱슈(自禁聖書) 렌저비쥬(忍則必救)”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전진했다. “아! 이 분도 교우로구나!” 고마운 마음이 샘 솟듯 했다.

아멘, 아멘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성서를 태우던 때의 정황을 회고하던 나는 다시 밝고 기쁜 마음이 가득해졌다.

이외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홍위병에게 물매를 맞고 들어오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참으로 쓸 것도, 알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문화혁명에 의해 고귀한 생명이 죽임을 당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때의 일을 그만 끝맺기로 하겠다.

수많은 군중(삼불차 끄는 사람들) 앞에서 일주일 동안 밤낮없이 투쟁(법불절차를 밟지 않고 심문하는 공산당의 공판을 이렇게 부른다)을 받고 있던 삼불차 조합의 서기가 거진맥진하여 물을 달라고 애원을 한다. “동무, 못 견디겠어요. 나 제발 물 좀 주어요. 응?” “물? 물을 달라고? 주고 말고 좀 기다려 끝내네.” 그들은 큰 독을 한개 가져왔다. 드럼통에

서 무엇인지들 그 독에 가득 부었다. “자, 물 달라고 했지? 이 속에 들어가서 실컷 마셔봐.” 하고 서기의 옷을 벗기고 독 속으로 밀어 넣었다. 물인 줄 알고 손으로 실컷 퍼 먹으려는 순간 “아, 이게 뭐야” 하고 소스라쳐 독에서 튀어 나오려는 것을 본 군중들은 나오지 못하게 그의 두 팔을 꼭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서기는 독 속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꼭 숙이고 다시는 말이 없었다.

그대로 죽었던 것이다. 것처럼 애타게 찾던 물 한 모금 못먹고 목숨이 끊어졌던 것이다. 이 독 속에 따라 부은 것은 물이 아니고 유산이었다.

또 지주였던 40대의 한 남자는 오뉴월 염천에 두 손이 묶이운 채 홍위병에게 끌려 시가지를 돌아다니다가 죽고만 예도 있고, 50세 가량의 어떤 여자는 가느다란 철사를 목에 걸고 그 철사 좌우에 무거운 벽돌을 매달므로써 자연히 목이 잘리워서 죽게 된 비참한 광경도 있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1977년 중공 당주석 모택동 사후에 중공당국의 종교정책은 점차로 변화되었다. 부수상으로 등용된 덩소평의 정책은 서방과의 교류 즉, 미국과 일본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여러가지 방면으로 특히 공업기술면에 발전을 하고자 하여 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함으로써 미국인이 미워서 탄압하던 기독교가 이로 인해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 세워졌던 옛 교회당은 비록 헐었지만 공장이나 창고로 쓰여지며 잔존해 있던 교회당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같이 상해 북경에서 시작된 후 이제는 전국으로 전파되어 웬만한 도시에서는 거의 교회의 문이 열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나 예배의식은 찬송가를 부르고 주기도문과 교독문을 읽은 뒤 성경구절을 낭독하고 축도하는 등 정식으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의 설교가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가장 곤란한 것은 목사님들이 거의 없으며 성경 찬송가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30년 간이나 갇혀 있거나 침묵을 지켜온 노인 목사님들이 예배를 겨우 지행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많은 어려운 시련을 겪고 마침내 조국에 온 지도 어느새 일년이 넘었다.

이제 가장 기다려지는 주일에는 마음껏 찬송가를 부르고 간절한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게 된 이 중헌교회는 내가 처음 왔을 때 신자의 수가 많아 4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길 없었다. 또한 신앙생활의 열심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많은 교인들이 자기 친지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극진하게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했다. 향간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중헌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몇 배나 더 중공에 있는 우리 사백만 교포에 대하여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기도해 주며 또한 성경책까지 보내주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노년주일학교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또 한번 성경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심적 위안을 받은 후 맛있는 점식과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담화를 나눌 때는 참으로 감사했다. 점식시간을 이용해서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노인이라고 위안하는 순서를 갖는 시간에 중공에서는 볼 수 없는 꼬까옷을 예쁘게 입고 나와 친진난만하게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는데 보는 사람 모두 기뻐하고 웃고 즐겼으나 나는 마음이 아팠다. 중공에 있는 보고 싶은 외손녀 선화가 생각나 자꾸 눈물이 흘렀다. 이같은 주일에는 실상 더욱 즐거워하며 기뻐해야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요전번에 나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어떤 친구가 먼 교회에 다니지 말고 가까운 교회로 오라고 한 적도 있으나 나는 중헌교회를 떠날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은 중공에서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실정이나 자유로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곳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쳐야 할 기독교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일로 내분이 일어나며 교회와 교회끼리 다투며 목적을 알 수 없는 이산 등으로 갈기갈기 찢김을 볼 때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은 중공에서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실정이나 자유로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곳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쳐야 할 기독교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일로 내분이 일어나며, 교회와 교회끼리 다투며, 목적을 알 수 없는 이산 등으로 갈기갈기 찢김을 볼 때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와같이 지난 52년 간의 중공에서의 종교탄압과 조국에 돌아온 후 나의 생활을 적어 보았으나 세계 각국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마르크스 정권의 사상이념과 지도체제가 전환되고 있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모택동 사후, 사안방 사건 후에 중공의 정치, 사상, 경제, 사회 각계에 변화를 일으켜 불공대천의 원수인 일본과 마르크스주의의 최대의 적이라고 부르짖던 미

국과 국교를 맺은 후 다수의 과학기술 도입, 스포츠 교류 및 문화개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풍부한 노동력과 세계 제일자는 염가의 노동임금으로 대대적인 경제발전의 전망은 우리의 장래에 놀라울 만큼 큰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하다. 2000년대에 가장 큰 힘을 소유한 나라로 등장하게 될 가깝고도 먼 중공과의 관계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공산권 국가에 대한 선교사업이 충현교회나 기타 각 여러 단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나 서로 협력하는 횡적 연락이 없는 점이 아쉽다. 그러므로 흩어진 사업을 배스콤의 협조 및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편으로 중공에서의 기독교 탄압시 내가 불사르던 성경과 찬송가는 5, 6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성경과 찬송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지금도 성경책과 찬송가는 방종과 서신 왕래와 같이 자유로이 중공으로 가고 있다. 이제까지 나의 조국이 이토록 발전할 동안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 내가 비록 늙어서 조국에 돌아오긴 했지만 죽는 날까지 이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충현교회에서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에 앞으로의 중공선교의 꿈

을 가진 청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모두 중국어를 배웠으면”하고 늘 소망하던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이고 가슴이 뚫히게 되는 일이었다. 이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워 당당하게 중국과 교류하여 우리의 저력과 발전을 보여주고 중공에 있는 교포에게도 몇몇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안겨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내게 그보다 더한 바램은 없다.

또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있는 사백만 교포는 물론 중국인에게 까지 전파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때면 중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참으로 기쁘다. 학생수는 20명도 안되지만 나이드신 집사님과 청년들 특히 연약한 여성들도 중공선교를 하겠다는 그 각박한 뜻이 놀라웠고 그들의 열심있는 눈빛들이 고마워서 내가 그리도 보고싶어 하는 딸 선애, 손녀 선화, 고생하는 아들들, 방울 빼앗기고 친정에 간 며느리.... 모든 고통스런 기억들이 다 잊혀지고 오로지한 자라도 더 많이 가르치고 싶다. 더우기 더 많은 청년들이 중공선교의 꿈을 갖기를, 중공에 있는 우리 교포를 위해 기도 드린다.

또 중국어반이 끝이 났다. 배우는 학생들이 “로스자이 지엔”(선생님 다시 뵙겠습니다)를 뒤로 하고 교회 문을 나선다.



〈최근에 문을 연 중공의 교회 - 찬송을 쪽지에 적어 사용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하여

존 칼빈 지음

오 태 용 옮김

이 글은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3편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미국 칼빈대학의 Henry J. Van Andel 교수가 불어와 라틴어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 편집한 것이다. 1550년에 처음 출판된 본 소책자는 문체가 단순한데다 엄격하면서도 현실적인 성격을 담고 있어서 구라파 각국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기독교를 균형있게 생활에 적용할 필요성을 느낀 이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다. 문체와 사상 및 언어 구사에 있어 이 글은 어거스틴의 “고백”(Confessions),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 번역의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에 겨룰 만 하다.

따라서 참된 종교적 심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 특히 종교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 700만 성도에게 철저히 요구되는 과제는 기독교를 임의 종교에서 발의 종교로 개혁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참된 신자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때 1984년 2천만 신자화 운동은 성공을 볼 것이라 믿으며 줄여이지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역자)

제 1 장 겸손한 순종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본 받는 삶이다.

- I. 성경은 생활의 표준이다.
- II. 성결은 기본되는 원리이다.
- III. 성결을 좇음은 그리스도께의 순종을 뜻한다.
- IV. 표면적 기독교는 충분하지 못하다.
- V. 연적 진보는 필요하다.

제 2 장 자아부정

- I.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 II.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아부정을 의미한다.
- III. 자아부정의 요소는 절제와 의와 경건이다.
- IV. 참된 겸손은 남을 존경하는 것이다.
- V. 우리는 다른 신자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 VI. 우리는 친구와 원수를 상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 VII. 공민적인 선행은 충분하지 못하다.

VIII.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다.

- IX.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열망해서는 안된다.
- X. 주님은 모든 면에 공정하시다.

제 3 장 인내로 십자가를 짊

- I.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아부정보다 더 어렵다.
- II.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 III. 십자가는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한다.
- IV. 십자가는 순종을 가르친다.
- V. 십자가는 훈련에 도움이 된다.
- VI. 십자가는 회개를 가져온다.
- VII. 킵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
- VIII. 킵박은 영적 기쁨을 가져와야 한다.
- IX. 십자가가 우리를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된다.
- X. 십자가는 복종에 도움이 된다.
- XI.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

제 4 장 내세의 소망

- I.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 II. 우리는 현세를 높이 평가하기 쉽다.
- III. 현세의 축복을 경멸해서는 안된다.
- IV. 하늘과 비교할 때 땅은 무엇인지.
- V.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야 한다.
- VI.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 마라나싸(Maranatha) : 주님이 오신다.

제 5 장 현세의 올바른 사용

- I. 극단을 피하자.
- II. 세상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 III. 진정한 감사는 남용을 억제하게 해 줄 것이다.
- IV. 절제하며 살자.
- V. 궁핍한 중에도 인내하고 만족하자.
- VI. 신의 소명에 충실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싸움을 겪어야 하오니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용기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지배 아래 두시사 당신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인류의 모든 증오와 적의를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복된 안식에 마침내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한 순종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본 받는 삶이다

I. 성경은 생활의 표준이다

1. 새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실에서 선함과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무슨 선물? 하나님의 공의의 노래이다. 무슨 조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순종간의 조화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아늑한 가운데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진 것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의 법은 그의 형상이 우리 속에 충분히 회복된 새 생활의 원동력을 자체 속에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가 게으르기 때문에 노력을 하되 저도원리로 자극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회개도 끝은 길에서 가끔 당황하는 때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의 개혁을 위한 근본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탐구해 보자.

2. 성경에는 권면이 많이 있으므로 그것을 모두 논하면 큰 책이 될 것이다.

교부들은 제반 덕목에 관해 대작들을 남겼다. 그러나 학구적인 논문이라도 한가지 덕목의 깊이를 남김없이 구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헌신을 위해서는 교부들의 훌륭한 저작을 읽기보다는 성경의 기본적 교훈을 한 가지만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칼빈은 여기에서 이런 말을 써 넣고 있다. “어휘를 풍부하게 쓰는 것이 내게는 맞지를 않는다. 나는 간결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자 한 번 해 볼 작정이다. 그렇게 안되면 다른 사람에게로 그 일을 넘길 것이다.”*

3.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관한 간결한 논문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정교한 논의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그 따위 철학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추단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보편적 원리 및 특수한 법칙을 말하는 데에 익숙하지만, 성경은 그 자체의 독특한 이치를 갖고 있다. 철학자들은 패기에 넘쳐서 더할 나위 없는 명쾌함과 빈틈없는 정교함을 목표로 삼는데 반해 성경은 아름다운 간명함과 모든 철학자들을 능가하는 확실성을 갖고 있다.

철학자들은 꾸미는 태도를 과시하는 수가 종종 있지만 성경께서는 다른 방법(직접적이고 꾸밈없이 말하는)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등한시 되어서는 안된다.

II. 성결은 기본되는 원리이다

1.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위한 성경의 계획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법 안에서의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본래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주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간단한 규칙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 칼빈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1, 2, 3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훌륭한 권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는 기본 원리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우리가 뿔뿔이 된 양처럼 흩어져서 미궁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 그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해 주셨다.

2.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는 성결이 그것에 이르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결은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를 수 있는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볼 수 있고 또 그를 따를 수 있다.

그가 불변과 부정에 아무런 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그의 초청에 주의할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탐닉하길 원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불변과 오염으로부터 구원 받았던가?

하나님의 성결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길 원한다면 거룩한 성에 루살렘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신성한 땅이다. 따라서 부정한 거민들로 더럽혀질 수 없는 곳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

삼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라고 노래한다. 기록한 자의 성소는 정결해야 한다. (레 19 : 2; 뱀전 1 : 16; 사 35 : 10; 시 15 : 1, 2; 24 : 3, 4)

III. 성결을 좇음은 그리스도께의 순종을 뜻한다

1. 성경은 성결의 원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그것에 이르는 길인 것도 가르쳐 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로 화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하신다.

철학자들이야말로 의롭고 질서 바른 유일한 도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계획이 있으면 보여 달라. 철학자들에 의하면 최고의 덕은 자연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귀감으로 보여 준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 고려해 보게 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을까? 정말로 그 밖에 또 무엇이 요구될 수 있을까?

2. 여호와와 우리가 우리를 자녀되게 해 주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본 받는다는 조건에 근거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만일 우리가 열심과 기도의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의에 전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신의없게도 우리의 창조주를 배반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꼴이 된다.

3. 성경의 권면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우리의 포괄적인 구원의 약속이 함께 들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다운 행실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가장 저열한 배은 망덕을 자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 가운데서 세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새로 또 한번 타락함으로 더러워져서는 안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로서 그의 몸과 연합하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떤 오점으로도 그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으니 우리는 욕욕을 뒤버려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 위로 그를 향하게 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봉헌케 하셨으니 그의 진을 더럽히지 말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둘 다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정결하고 더럽혀지지 않게

간수해 두어야 한다.

이상은 적절한 행위규범에 가장 좋은 기초들이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위엄을 결코 초월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은 죄 없으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롬 6 : 4 이하; 8 : 29)

IV. 표면적 기독교는 충분하지 못하다

1. 교회원의 자격만 갖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가고.

복음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을 얻은 자 말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갖지 못한다.

누구든지 거짓된 욕욕으로 부패해 진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다고 사도는 말한다.

입만 살아 있는 종이 아무리 유창하게 거리낌없이 복음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 아는 지식은 거짓되고 위험한 위선에 불과하다.

2.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생활의 교리**이다.

그것은 이성과 기억만으로 파악될 수 없으며, 온 정신을 사로잡아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갈 때 완전히 이해된다.

이름 뿐인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그치고 선생 되신 그리스도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자임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도록 하라.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진 종교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시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태도에 스며들지 못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될 것이다.

3. 철학자들은 **생활의 예술을 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공허한 수다쟁이들인 사람들을 정당하게 정죄하고 그들의 회(會)에서 불명예스럽게 추방시켜 버린다.

복음이 입술에만 있고 마음 속에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해야 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

철학자들의 권고는 참 신자의 확신, 애정 및 무한한 활동력과 비교하면 냉정하고 생명이 없다. (엡 4 : 20 이하)

V. 영적 진보는 필요하다

1.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많이 힘쓰고 노력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복음의 절대적 완성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 전에 복음적 완성을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절대적 완성의 표준을 설정해 둔다면 교회는 하나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상(理想)에서는 아직 멀고, 또 진보를 조금 밖에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거부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완성(전)은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의 표준이어야 하고, 우리가 도달하려고 애쓰는 목표이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과 타협하고, 해야 할 의무를 일부만 이행하려 하고, 당신 임의대로 다른 사람들을 빼놓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성실하게 그를 섬기는 것과, 간사함과 거짓이 없는 순수한 심령이다.

이중적인 마음은 영적 생활에 저촉된다. 왜냐하면 후자는 성결과 의를 찾고자 하나님께로 향한 거짓없는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적 육신의 감옥 속에 사는 사람치고 어느 누구도 조심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전진해 나갈 독자

적인 힘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대다수 [의 그리스도인들]는 그와 같은 커다란 약점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비틀거리다가 우뚝 멈춰 버리며, 심지어는 땅바닥을 기어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극히 미미한 진보를 하는 것이다.

3.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능력대로 나가면서 자기가 시작한 여행을 계속해 가야 한다.

아무리 작다고 해도 약간의 진보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불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주의 길로 부단히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며, 또 우리가 달성한 결과가 작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자.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낫다고 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4. 영적 진보의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성실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목적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자. 교만에 빠지지 말고 정욕에 굴복하지 말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찾고 추구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의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만 이르게 될 완전한 선에 마침내 도달할 때까지 고도의 성결에 이를 수 있도록 꾸준히 힘쓰자.

□ 제 2 장 □

자아부정

I.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1.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기 위해 매우 적합하고 잘 정리된 계획을 함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우 뛰어난 기본 원리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은 천상의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것은 신자의 의무이다. 이것이 유일한 참애배이다.

성결의 원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권면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려점이다. 그것은 우리가 오로지 그의 영광을 바라고서만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묵상하거나 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성한 것이 신성하지 못하게 사용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커다란 불법이 되는 법이다.

2. 만일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라면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 어떤 것인지 명백하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도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편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사리사욕을 잊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의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모든 요소들로 하여금 우리의 유일한 정당한 목표되신 그에게로 향하게 하라.

3. 오오, 자기 것이 아닌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배운 사람이 얼마나 커다란 진보를 이룩하였는지!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가장 유효한 해독은 자기 자신을, 또 자신의 지혜와 의지력을 자랑하는 것이다. 한편 안전에로의 유일한 탈출구는 단순히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취할 첫 조치는 우리 자신을 작별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주님 섬기는 일에 쏟는 것이어야 한다.

4. 주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복종을 포함할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내맡기려는 자발적인 마음도 포함한다.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부르는 바,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 생활의 변화가 생활의 참된 시작인데, 이교의 철학자들에게는 관계가 없다.

이교의 철학자들은 생활, 지혜 및 행실의 유일한 지도 원리로 이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독교 철학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성령께 내맡길 것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며 통치하신다는 의미이다. (롬 12: 1; 엡 4: 23; 갈 2: 20)

II.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아 부정의 의미한다

1.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구하자.

우리 자신을 거의 잊어버리고 모든 이기적인 면을 단호히 무서하게 되면 이점(利點)이 대단히 많다.

그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우리의 주의를 전념하려고 충실히 노력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고려사항들을 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물질욕, 권세욕 및 사람들의 총애를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또한 헛된 야망, 인간적 명예욕을 좀 더 은밀한 다른 해악들과 함께 추방하는 것이다.

실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매 순간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의 모든 행위를 조절하고, 자기의 은밀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드릴 것이다.

만일 사람이 모든 사업에서 하나님을 고려에 넣기를 배웠다면 모든 헛된 욕망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부려던 명하였던 자아부정은 마침내 우리 마음 속의 모든 욕망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자아부정은 교만, 거만, 허영심, 또는 탐욕, 방탕, 쾌락, 방종, 기타 자애(自愛)에서 나온 모든 죄에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자아부정의 원리가 없으면 사람은 조금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가장 천박한 악덕에 빠지거나 아니면 혹 그에게 어떤 미덕이 보인다 해도 사악한 영애욕으로 훼손을 당한다.

자아부정이라는 주님의 법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바람 난 듯이 사람들에게 덕을 실천한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에게 보여 달라.

3. 자아부정의 원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모두 단순히 칭찬 듣기를 좋아해서 덕을 쌓은 것이다.

철학자들 가운데 덕은 그 자체를 위해 바랄 만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온 사람들까지도 거드름을 피우며 우쭐거렸으므로 그들이 덕을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교만을 행사할 기회를 얻으려는 이유에서 온 것임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대중적인 칭찬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혹은 마음이 교만과 뻔뻔스러움으로 가득찬 사람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저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는) 창기와 세리가 이런 사람들보다 하늘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신다.

4. 옳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자아부정을 꺼리는 사람의 장애물에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다.

사람의 영혼 속에는 무수한 악덕이 감추어져 있다는 견해가 고대로부터 있어 왔는데 맞는 말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자아부정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치료책인 것이다.

자기의 이기심을 버린 사람,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자를 위해서만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

III. 자아부정의 요소는 절제와 의와 겸손이다

1.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잘 제어된 생활을 간략하게 요약해 준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가 우리를 대속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선언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를 자극

하고 격려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주요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첫째는 우리가 본래부터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경건치 않은 것이고, 둘째는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는 세상 정욕이다.

불경건은 미신 뿐 아니라 진심의 하나님 경외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한다. 그리고 세상 정욕은 육적인 애정을 의미한다.

바울은 위의 두 계명에 저촉되는 이전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이성과 의지에서 나온 모든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다.

2. 바울은 새 생활의 모든 행동을 새 종류로 줄여 말한다. 즉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그것이다.

근신함이란 의심할 것도 없이 현세의 축복을 깨끗하고 검약하게 사용하고 가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숙함과 절제도 의미한다.

의로움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의 모든 의무를 포함한다.

경건함은 세상의 오염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참된 성결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한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미덕이 굳게 관련을 맺게 될 때에 절대적 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3. 모든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거짓된 욕망을 누르고 거부하며,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헌신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천사와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모든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 바울은 축복된 불멸의 소망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다고 격려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한번은 구속자로 나타나셨듯이 그의 재림시에는 그가 얻은 구원의 이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게 하는 매력들을 흔뜨려 쫓아 버리신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딤후 2:11-14)

VI. 참된 겸손은 남을 존경하는 것이다

1. 자아부정이 부분적으로는 사람에게 관계가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께 관계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대하여 처신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을 성실하게 집중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부할 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고침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애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또

자기와 비교해서 남들을 모두 알게 될 정당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뛰어난 재능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성취한 것인양 생각한다. 그러고서는 교만이 터질듯 부풀어 올라 있기도 한다.

2. 우리 속에 충만해 있는 악덕을 우리는 남들이 모르도록 조심스럽게 감추어 두며, 그것은 작고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쭐거리고, 또 때로는 그것을 미덕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한다.

만일 우리들 자신이 찬탄해 마지 않는 우리의 재능과 똑같은 재능이 남들, 혹은 심지어 손윗사람들에게라도 나타날 경우 우리는 남들의 우월성을 인정할 필요가 생기지 않도록 갖은 악의를 다 동원해서 그들을 하시하고 그들의 가치를 떨어뜨려 본다.

만일 남들에게 어떤 악덕이 있을 경우 그것을 날카롭고 혹독하게 비판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가증스럽게도 과장해서 말한다.

우리가 남들을 능가하고자 하고 공동 운명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미움이 오만으로 발전한다. 심지어는 남들을 우리보다 못한 열등자로 심하게 그리고 거만하게 경멸하기까지 한다.

3.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만 못하고, 평민은 귀족만 못하고, 종은 주인만 못하고, 무식자는 학자만 못하다.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저마다 우쭐해져서 자기의 마음 속에 왕국을 품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도취에 빠져 남의 생각과 행실을 비난하는 데,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지면 독을 분출한다.

자기가 범사를 기분 좋고 호의적인 것으로 보는 한에서는 남들에게서 어떤 온후함을 발견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어지럽고 신경질이 날 경우에도 기분 좋게 하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4.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헛된 야망과 자애의 악덕이 우리 마음 속에서 뿌리째 뽑혀 나가야 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의 재능은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사의 선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재능을 자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라고 바울은 말한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만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경계하고 인정해야 하며 참으로 겸손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는 우쭐대지 않고 한물 껴인 느낌을 마땅히 갖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5.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것이든간에 그 은사와 그것의 소유자를 모두 존중하고 중히 여기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예를 그들에게서 탈취한다면 우리 속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물거리며 더욱 더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보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욕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존경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만일 누가 됐든간에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에 주의를 한다면, 우리는 적절하고도 기분 좋게, 뿐만 아니라 공손함과 상냥함을 가지고 처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마음 속 깊은 데서부터 남을 존경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참된 온유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롬 12 : 10; 빌 2 : 4; 고전 4 : 7)

V. 우리는 다른 신자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1.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를 거의 잊다시피 하지 않는 한, 충실히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심하지 않는 한, 바울이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가르치는 의무들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등등.

2. 만일 이것이, 즉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이 요구되는 전부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자기만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강하고 또 자아와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소홀히 하도록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하기까지 하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던지간에 그것은 교회의 공동 유익에 쓰여져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하나의 신탁물로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하고 경고해 준다.

모든 주의 은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너그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표준, 더 강력한 제안을 상상할 수 없다. 즉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그것을 다

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받은 신의 공탁물인 것이다.

3.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개인적 재능은 사람 몸의 각 지체의 능력에 비유될 수도 있다.

어떤 지체도 혼자 떨어져서는 힘을 갖지 못하며, 또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떤 지체도 자기 자신의 활동에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로 이루어진 몸 전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던지간에 그것을 동료 신자들을 위해 갖고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의 이익이 교회의 복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선의와 도움의 표준으로 삼으라. 즉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에는 언젠가는 회계의 셈을 치루어야 할 청지기로서 처신해야 한다. 그리고 유익의 분배는 사랑의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증진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사랑의 법은 꽤 큰 이익에도 관계 되지만 옛적부터 하나님께서는 생활상의 조그만 친절 속에서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누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엄숙한 증표로서 곡식의 첫 열매를 자기에게 바치라고 명하셨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성별된 생활의 일부가 되지 못하여 우리 손으로 직접 그 창조자에게 바치지 못할 경우 그러한 봉헌을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는 오용의 죄를 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5. 그러나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주님을 부요케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선이 주님께 미칠 수 없으므로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행사하여야 한다.

복음하에서 자선의 실행은 구약의 율법하에서 드리는 제물을 대신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서 자선금은 신성한 헌금에 비유된다. (고전 13 : 4 - 8; 시 16 : 2, 3)

VI. 우리는 친구와 원수를 상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1. 위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

는 일에 싫증이 날까 보아 사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자기 자신의 공로에 의거해서 판단해 볼 때 받을 만한 가치가 도무지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뛰어난 논법으로 우리에게 명분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사랑을 은혜로 입고 있는 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믿음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존중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혹 누가 당신의 친절한 봉사가 필요해서 당신 앞에 나타나면 그의 청을 거절할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가 나그네라고 가정해 보자, 주님께서는 그에게도 인을 쳐 놓으셨으며 그를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 놓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당신의 혈육을 멸시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다.

그가 천하고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황송하옵게도 그를 그 자신의 형상으로 단장되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 놓으신 것이다.

당신은 그를 위해 봉사할 하등의 의무도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자기의 대리인으로 세워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많은 잊지 못할 유익을 끼쳐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가 당신이 조금이라도 힘써 줄만한 상대가 못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그를 당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은 당신이 자신은 물론 당신의 모든 소유도 그에게 내어 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실사 그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모욕을 주어 격노케 하였기 때문에 친절을 받을만 하기는 커녕 그 정반대였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도 당신이 그를 애정으로 감싸주고 그에게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당신은 그가 매우 다른 대우를 받아 마땅하였다고 말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만 하고 그들을 자기에게 고발하라고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3. 이것은 어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즉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손해를 친

절로 보상하며, 저주를 축복으로 갚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사악함을 골똘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잘못을 덮어주고 잊어버리며,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과 존엄을 생각한다면 그를 사랑하고 감싸주라는 권면을 받아야 할 것이다. (히 12:16; 갈 6:10; 사 58:7; 마 5:44; 눅 17:3, 4)

VII. 공민적인 선행은 충분하지 못하다

1. 우리가 사랑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참다운 자아부정을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무들은 한 가지도 빠뜨리지는 않지만 그저 겉으로만 자기의 임무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원리에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행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능력껏 의무를 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에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매우 너그럽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라고 꾸짖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한 태도가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거만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없이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의견급이 나오는 예는 좀체로 없는 이 무서운 시대에 매우 깊숙한 재난의 심연에 빠져 있다.

이 시대의 타락상은 불신자들이 그것을 너그럽게와 주지 못할 정도로 너무 극악무도하다.

2. 그리스도인은 자선을 행할 때는 웃는 얼굴, 명랑한 기분, 정중한 말씨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위치에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마치 자기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는 양 그 사람에게 동정해야 하고,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처럼 기꺼이 진정한 자비와 인정을 베풀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동정심은 오만함과 비난을 몰아낼 것이고 가난한 자와 곤궁한 자를 경멸하고 군림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병에 걸려서 몸 전체가 그것의 회복을 위해 애써야 할 때 우리는 이 병든 지체를 멸시하거나 그것에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 도움을 몽땅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3. 몸의 각기 다른 지체들이 서로에게 주는 상호

도움은 자연 법칙에 의하면 은혜가 아니라 당연지사로 간주된다. 그것을 거부하면 잔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한 가지 봉사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밖의 다른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예전대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남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부자는 자기의 의무를 면제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중요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웃에게 빚진 자이며, 자기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의 요구임을 깨달아야 한다.

VII.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다

1. 자아부정의 주요 관점 및 그것의 대(對) 하나님 관계를 좀 더 상세히 논의해 보자. 지금까지 개진된 많은 견해들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 참다운 자아부정이 어떻게 우리를 침착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은 만일 우리가 안락과 평온의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애정을 우리의 정복자요 대군주 되시는 그 분께 바쳐야 한다는 점에 우리의 주의를 끈다.

부위 명예를 갈망하고, 권세를 요구하고, 부를 축적하고, 화려함과 공허한 과시를 촉진하는 듯한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모으는 것들은 우리가 그지없이 열망하는 것이요, 무한한 욕망인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가난과 미천함과 겸손을 두려워하고 싫어하여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피해 보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좇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며, 그들이 속임수를 얼마나 많이 쓰려고 하며, 그들의 야망과 허욕의 대상을 얻고나서 그런 다음 다시 가난과 겸손을 회피하기 위해 얼마나 진저리 나도록 노력을 기울였는지 쉽게 볼 수 있다.

2. 만일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에 걸려 들기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다른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번영을 바라지도, 소원하지도, 아니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사는 신의 축복에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의 근면이나 분투 노력을 통해, 혹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 명예와 부를 쉽게 얻을 수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확실하며, 우리의 통찰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진보를 해 가는 것

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두가지를 번영케 하는 한에서만 진보를 이룩한 것이 확실하다.

3. 또 한편으로 그의 축복은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행복하고 번영하게 해 줄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굉장한 명예와 막대한 부를 획득한 사람들에게서 매일 볼 수 있듯이 신의 축복이 없이도 어느 정도의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티끌만큼의 행복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얻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재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게도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할 것들을 바라지 말 것이다.

IX.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열망해서는 안된다

1. 그러므로 만일 바람직한 번영의 모든 원인을 신의 축복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 없으면 불행과 재난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역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지런함이나 똑똑함에 의존해서, 혹은 사람들의 호의에 의존해서, 혹은 행운의 관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를 얻으려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운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늘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져야만 한다.

이의 결과를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지된 행동으로, 허위적이고 범죄적인 속임수로, 이웃을 강탈하고 해를 끼침으로써 부와 명예를 급히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결백의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여 떠나게 하지 않을 이들 관심사의 추구에 국한시켜질 것이다.

사기, 강탈, 기타 다른 악행을 하면서 신의 축복의 도움을 기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2. 생각이 순수하고 행위가 의로운 사람에게만 신의 축복이 임하듯 또한 그것은 불법과 타락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제다가 우리는 부자가 되려는 강한 욕망과 명예를 구하려는 헛된 야망을 억제 당하는 기분이 들 것이다.

신의 도움을 의뢰하면서 동시에 그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갈망한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입으로 저주하신 것을 축복으로 번영케 해 주시는 일은 결코 없다.

3. 마지막으로 설사 우리의 소원과 희망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안달하

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처지를 혐오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 부와 가난, 명예와 굴욕을 임의로 배분해 주시는 하나님께 반역이 될 줄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해 온 방법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것들을 정열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런 유익도 기대하지 않는 저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번영을 자기 자신의 부지런함이나 근면 혹은 행운에 돌리지 않고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만일 그가 미미한 진보밖에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진보를 하고 있는데 반해 자기는 퇴보를 겪기까지 한다고 해도 자기의 성공이 보통이어서 기대에 어긋날 때 여느 세속 인간이 느끼는 것보다도 더 침착하고 절도있게 자기의 가난을 참고 견딜 것이다.

4.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최대의 부나 권력보다 더 달콤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위로를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일은 그의 구원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조절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을 좇아 그의 규례에 자신을 내어 맡긴 다윗의 마음이나 다름 없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것 뿐 아이와 같으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시 131: 1, 2)

X. 주님은 모든 면에 공정하시다

1. 이것은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할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모든 생활 환경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맡기고 모든 사소한 일들을 기꺼이 그의 기쁘신 뜻에 맡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기를 올바르게 부인한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마음 상태를 견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을 인해 비참을 느낀다거나 하나님을 그릇되게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2.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사건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작가지 질병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엄습한다. 역병이 우리를 삼키는가 하면 전쟁의 참화가 우리를 괴롭힌다.

또 다른 때에는 서리나 우박이 농작물을 망쳐버려

서 기근과 가난의 위협을 받는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곧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다른 친척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집이 화재로 소실되기도 한다.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생을 저주하고 태어난 날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은 태양과 별을 욕하고, 심지어는 마치 하나님이 잔인하고 불공평한 분이라든가 한듯 그를 비난하고 모독하기까지 할 것이다.

3. 그러나 신실한 신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아버지로서의 선하심을 묵상할 것이다.

실사 그의 친척이 죽고 그의 가정이 적적해진다 해도 주님을 찬미하기를 그쳐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의 가정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을 황폐하게 버려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는 실사 그의 곡식밭과 포도원이 서리나 우박으로 망쳐져서 기근이 그를 위협한다 해도 그는 낙담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확고한 신념을 견지할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으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실사 그가 병고로 시달린다 하더라도 비통에 빠져 낙심하고 성질을 부리며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단련을 받고 고침을 받는 동안 그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자라갈 것이다.

4. 한 마디로 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정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가 일단 자신과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평화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서의 운명의 여신 혹은 운에 그 책임을 돌림으로써 재난을 이겨 나간다고 하는 불신 철학자들의 어리석고 한심스런 위로를 받아들이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의 운명에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홀로한 것 홀로하지 않진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분별없고 잔인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의 원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번영과 불행의 인도자요 지배자시며, 그는 결코 부당하게 성급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선과 악을 가장 공평하게 분배하신다는 점이다. (시 79: 13)

인내로 십자가를 짐

I.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아부정보다 더 어렵다

1. 그외에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시는 고차원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성도들의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신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우며 무수한 슬픔들로 가득찬 생활을 작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것은 그들 천부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셨으며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신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에도 관대와 친절로써 대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 괴로움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는 십자가의 연속이었다고 말해도 맞는 말일 것이다.

2.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것은 필요하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우리의 으뜸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특히 우리를 대신하여 복종하셨으니 우리에게 인내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하는가?

사도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그 이유는 “그를 따르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심연에서 나와 하늘의 영광으로 올라갔듯이 우리가 여러가지 다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역경과 재난이라 불리우는 많은 불행을 참아 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

3.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의 권능”도 깨달아 알 것이며, 또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동안엔 또한 그의 영광스런 부활에도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재난으로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와 그리스도와 의 교제는 더욱 더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 교제로 말미암아 재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크게 증진시키는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 (마 16 : 24; 마 3 : 17; 17 : 5; 히 5 : 8; 롬 8 : 29; 행 14 : 22; 빌 3 : 10)

II.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1.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할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보여주고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십자가 밑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많다.

첫째, 모든 것을 우리 인간 육신의 탓으로 돌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자연스런 본성이긴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에 대해 과장된 관념을 갖기가 쉬우며,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치 그의 은혜 없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하기라도 하듯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거만하고 교만하게 하는 어리석고 헛되며 육욕적인 확신으로 우물뎀다.

이 자만심을 가장 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뿐 아니라 극단적인 약점까지도 우리에게 입증 시켜주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굴욕, 가난, 친척의 죽음, 질병, 기타 다른 재난들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밑에 파묻혀 버린다. 그래 가지고 겸손해지면 그와 같은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열어 서게 해 주는 유일한 힘인 그의 능력에 호소할 줄 알게 된다.

2. 가장 위대한 설도들까지도 그들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의 시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아는 보다 깊은 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의 용감성과 인내성에 대해 필요 이상의 확신을 해버린다.

이 교만한 생각은 다윗까지도 다음과 같이 말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

시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

그 이유는 행동함이 그의 오관을 무감각하게 하고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 마땅히 의지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는 넘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그가 고백하기 때문이다.

3. 만일 이런 일이 것처럼 위대한 선지자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 중에 두려워하고 조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행동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인내와 참을성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역경이 그들의 저항을 압도해 버릴 때 그들은 잘못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병든 그러한 증거로 경고를 받음으로써 신자들은 굴욕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그들은 육신을 믿는 어리석은 확신을 잃은 다음 하나님의 은혜에로 도피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에게 강한 요새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까이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시30: 6, 7)

III. 십자가는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한다

1. 이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시련중에 있을 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내를 지속해 갈 때 사실로서 경험한다.

그런고로 인내는 하나님께서 필요시마다 약속하신 도우심을 실제로 주실 것이라는 증거를 성도들에게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들의 소망을 굳게 해 준다. 그 이유는 만일 그들이 확실하고 불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장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제 십자가에서 어떠한 유익이 흘러 나오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덕에 대한 거짓된 견해를 버리고,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위선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타고난 유해한 교만은 무너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처럼 겸손해 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실수하거나 절망으로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행하실 때 장래에도 그의 진리를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시기 때문이다.

2. 이러한 것들이 유일한 이유이긴 하지만 십자가의 시련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 위해서 맹목적인 자애를 빼앗기는 것은 조금도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약함을 그와 같이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불신한다. 우리 자신을 그토록 불신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된다.

그토록 확실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그의 도우심에만 의존한다. 그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기 때문에 그의 약속은 진실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의 약속의 확실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롬5: 3, 4)

IV. 십자가는 순종을 가르친다

1.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으니 곧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그들은 그가 주신 것 말고 다른 어떤 순종을 그에게 보여 줄 수가 없다. 주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고 시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은혜는 감추어지고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확고한 의지를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숨김없이 나타내 보일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제신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인데,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기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자기의 헌신을 증명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치 금이 용광로의 불로 연단을 받듯 우리의 믿음이 환난의 연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2. 신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가장 훌륭한 선물인 인내는 연습을 통해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달리로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질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덕을 실천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므로써 그 덕이 흐려지고 쓸모없게 되지 않도록 하실 때 정당하게 행하신다고 하면 이는 성도를 단련시키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될 것이 틀림없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심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되풀이하거나 그들은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써 해서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욕을 따르

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것이 그들 소원대로 진행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뜻인 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네카(Seneca)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격언으로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역경을 참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었다고 전해 준다.

이는 인간이 아이의 유순함을 가지고 징벌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의 명에 복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순종함을 보이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하면 이 순종의 실천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이용할 권리를 그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창22: 2; 뱀전 1: 7)

V. 십자가는 훈련에 도움이 된다

1. 우리가 어떤 친절하고 관대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는 곧 우리의 육신은 주님의 명을 벗어버리길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종종 있다.

처음에는 게으름에 빠져 제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사나워져서 걸들일 수가 없게 되어, 전에는 고삐를 당기면 그대로 복종하던 주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마치 못해 하는 말이나 우리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계속 나타난다.

우리가 “살아 켜서” “비판해 질” 때에는 우리를 살찌게 해 주고 소중히 걸러주신 분을 걸어차 버린다.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한다면 그의 선하심을 숙고하고 사랑하였어야 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인해 오히려 버릇이 나빠질 정도로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받음으로써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2. 그러기 때문에 부를 얻을 때 거만해지지 않도록, 명예를 얻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형통하는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릴 때 오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우리 육신의 오만을 반대하고 제지하고 정복하신다.

그는 이를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하시는 데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도움되고 건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질병으로 똑같은 환난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모두가 똑같이 엄격한 치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십자가로 훈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늘의 「의사」는 그의 모든 환자들의 행복을 돌보신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좀더 순한 약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좀더 충격적인 처리를 함으로써 정결하게 하시지만 빠뜨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이 온 세상이 예외없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신32: 15)

VI. 십자가는 회개를 가져 온다

1. 그 위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계속 가는데 필요한 것은 가장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장래의 약점을 막아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과거의 죄과를 고쳐 주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는 언제나 즉시 과거의 생활을 재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 보면 우리가 그러한 징벌을 받아 마땅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하니 우선 무엇보다도 인내부터 하라는 권면을 우리가 받는다고 추단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 거기서 훨씬 더 좋은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자비와 인애를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을 그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려 함이다.

이것은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해 준다. “내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징계를 인정한다면 악행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절망적인 사람들을 본따는 반역을 행하기보다 오히려 유순한 자녀임을 입증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당신계로 부르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신 것이다.

이를 사도는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를 참

을 수 없다면 우리는 너무도 고집 센 자이다.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밝히 지적하고 있다. 즉 후자는 치유할 수 없는 고집의 노예가 된 지 오래여서 징계를 참을 수 없는 반면, 전자는 고귀한 태생의 자녀와도 같이 회개와 징계로 유익을 얻는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할 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취급한 바 있으니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한 것으로 그친다. (고전 11:32; 잠 3:11, 12; 히 12:8)

VII. 핍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

1.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비길 데 없는 위로의 원천이 된다.

왜냐하면 그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복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을 때는 물론 어떤 의로운 주장을 옹호하다가 반대를 받을 때에도 그것을 의를 위한 핍박이라 부른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거나 불의와 손해로부터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보호하다 보면 세상의 증오와 분노를 초래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생명, 재산, 혹은 명예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쓸 때 슬퍼해서는 안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으로 우리를 가장 복되다 하시는 데 우리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난 그 자체는 불행인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추방, 경멸, 수치, 투옥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재난 가운데서 죽음은 최후적이고 가장 나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거짓된 판단에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정에 만족하도록 하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실” 때마다 사도들처럼 기뻐할 일이다.

2.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만일 우리가 무죄하고 양심이 선한데 사악한 무리들의 악행으로 우리의 재물을 빼앗기고 가난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부를 증가시키게 될 것

이다.

만일 우리가 조국에서 추방을 당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 피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더욱 확고한 뿌리를 박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비난과 수치를 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의 쾌락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마 2:10; 행 5:41)

VIII. 핍박은 영적 기쁨을 가져와야 한다

1. 성경은 우리가 의로운 주장을 지키다가 당할 지도 모를 모든 학대와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거듭 위로를 주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이들과 고난을 체험과 영적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매우 배운망덕하다는 비난을 받을 지 모른다. 특히 이런 류의 환난 혹은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가장 특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런데 고상하고 자주적인 마음의 소유자들을 거만스럽게 취급하는 것이 일백 번 죽는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훈하기를 그제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핍박은 물론 비난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견디어 나가라고 촉구한다.

2. 더구나 우리가 고통과 슬픔의 모든 의미를 멸쳐버리는 동안엔 명량한 기쁨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성도들은 슬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비탄에 잠겨 괴로와해 본 적이 없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만일 가난의 고생이 없고 질병의 고통이 없고 모욕의 괴로움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환난을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무슨 용기이며 무슨 중용이겠는가?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그 자체의 고통으로 당연한 일인 양 우리의 심령을 굴복시키기 때문에 충성스런 자들은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야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슬픔을 이기고 극복해 냄으로써 자기들이 갖고 있는 참된 힘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격렬한 자극을 받을 때 인내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무절제가 격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슬픔과 비애로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의 영적 위로 안에 거할 때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분명해 질 것이다. (렘전 4 : 14; 딤후 4 : 10; 고후 6 : 8)

IX. 십자가가 우리를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된다

1. 신자들이 인내와 절제를 확립하려 할 때 부딪히는 자연발생적인 슬픔의 감정들과의 싸움을 바울은 다음 말씀에서 충분히 서술해 놓았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고후 4 : 8, 9)

참을성있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를 강하게 한다면 또 또는 어떠한 슬픔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의 말이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오래된 개념에 의하면 고결한 사람이란 자기의 인간성을 벗어던진 사람이요, 역경과 변영, 심지어는 기쁨과 슬픔에도 영향받지 않고 차거운 바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처럼 교만에 빠진 지혜에 무슨 이로움이 있는가?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고 또 존재할 수도 없는 인내의 개념을 묘사해 놓았는데 색다른 유형의 인내를 발견하려다 보니 그것을 인간 생활에서 없애버렸던 것이다.

2. 현재도 그리스도인들 간에 보면 괴로와하고 우는 것, 심지어는 고독에 흐느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스토아파 극기주의자들이 있다.

그러한 광적인 견해는 대체로 실제적인 사람이기 보다는 공상가, 따라서 공상적인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3.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과 실례를 들어서 정죄해 버린 그따위 거칠고 엄격한 철학과 아무 관계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재난을 위해서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재난을 위해서도 슬퍼하였고 울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제자들을 가르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아무도 슬픔을 악덕이라 하지 않게 하려고 그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4. 그러니 조금도 놀랄 것이 없다. 만일 그가 모든 눈물을 죄로 정하신다면 자기 몸에서 피를 눈물 같이 쏟으신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해야 할단 말인가?

만일 모든 염려를 불신앙이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약하게 하고 놀라게 한다고 앞에서 읽은 그 염

려에게는 무슨 이쁨을 붙여줄까요?

만일 모든 슬픔이 기쁨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자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주님의 고백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요 16 : 20; 마 5 : 5; 눅 22 : 44)

X. 십자가는 복종에 도움이 된다

1. 아래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는 목적은 독실한 신자들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요, 또 슬픔에 대한 선천적인 성향을 벗어나릴 수 없다고 해서 인내에의 소망을 황급히 저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

왜냐하면 절망은 자기들의 인내를 무관심에 빠지게 하고, 사람이 강하고 용기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감각 없는 나무토막으로 만들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성도들이 재난으로 심한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꺾이거나 압도 당하지 않을 때, 또 쓰라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영적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걱정 근심에 눌려 기진할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기뻐 될 때 그들의 인내를 높이 칭찬하고 있다.

2. 동시에 그들 마음 속에는 갈등이 생긴다. 우리의 타고난 감정은 우리의 경험에 적대하는 것을 피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신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가면 신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이 내적 투쟁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잘 나타난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떠 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떠 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 가리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지 못해서 또는 싫어하는 태도로 받아들였을 것 같지는 않다. 이 경우 그의 순교는 별로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못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열정적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다 할지라도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을 떨쳐버리지는 못하였기에 내적 갈등으로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그에게 탁월 잔악한 죽음을 생각할 적에 두려움에 휩싸였으며 기꺼이 도망치려고 했으면 도망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하도록 부르신 출로 생각하였기에 그는 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싫어하는 기색없이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였던 것이다.

3.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모순적 성향을 극복하고 그의 계획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거리낌 없는 순종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해도, 또 우리 마음이 가장 괴로움을 겪을 경우에도 변함없이 인내의 자세를 견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난은 항상 그 가시로 우리를 상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번민하고 불평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할 일이다.

가난에 시달릴 때는 쓸쓸함과 서러움을 느낄 것이다.

모욕과 경멸을 당하고 기분을 상할 때에는 안절부절하게 될 것이다.

친구들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할 때에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4.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할 위로는 다 음과 같은 사실이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계획하셨으니 그의 뜻에 따르자 하는 위로이다.

비애와 번민과 눈물의 고통을 당할 때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힘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폭풍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동안 기분 좋게 건디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요21:18)

XI.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

1.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는 주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혔으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철학적인 인내와 기독교적 인내와의 차이를 간략하게 지적해야 하겠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의 역사로 환난을 당한다는 높은 이해에 도달한, 혹은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철학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인종(忍從)이 필요악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헛것이 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오로지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그에게서 도피할 수 있을 때는 곧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명하신다. 첫째는 정의와 공평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한 것으로서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에 대한 기독교적인 교훈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가난이나 추방이나 투옥이나 비난이나

질병이나 친척의 죽음, 기타 다른 어떤 유사한 재난의 환난을 당하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가 하시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공의의 역사이다.

우리가 매일 범하는 무수한 죄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중에 우리에게 가하시는 징계보다 더 가혹하고 중한 많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 않는가?

우리의 육욕적 충동이 우리를 압도해서 무절제로 물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 육이 억제되고 명에 억속해지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 마땅한 것은 아닌가?

불평을 하거나 반항을 하면 불법행위가 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숙명에 따라야 한다는 철학자들의 맞지도 않는 상투어를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활기에 넘치고 유효한 호소는 귀담아 듣는다. 즉 거역하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견디어 내야 한다.

3.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짐을 지움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증진하신다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만일 역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말이 분명하다면 어찌서 그것을 감사에 넘치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견디어 내려고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 참고 견딘다면 숙명에 굴복하는 셈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고찰의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영적 기쁨은 더욱 충만하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기쁨에는 감사가 따르게 된다.

만일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즐겁고 기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 그러한 감정을 억제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십자가의 쓰린 고통을 조절하실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김 영 휘 전도사

(해외복음선교회, 주교선교부지도)

해외선교 전략과 선교사 양성방안

1. 서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선교의 과제이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까지도 각 교회마다 선교사업을 부르짖고 있으며 또한 실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많이 파송해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 강조되리라고 본다. 이와같은 현상은 한편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또한 한국교회로서 이제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지상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또 한편 한국교회 선교의 실재를 직접 살펴볼 때 그 장래가 매우 염려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단순히 사명감 및 열심과 물질만 가지고는 이를 수 없으며,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선교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어서 속히 이론과 실제면에서 선교의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선교의 전문가는 아니나 이제까지 선교업무의 실재를 담당해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 두가지를 지적하면서 이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을 어서 속히 수립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선교사를 정식으로 모집하여 훈련 및 양성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선교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은?

하나님의 열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선교전략도 우리는 사람의 어떤 계획과 지혜보다는 성경에서 그 일반적 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비유를 태고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여 그것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농경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적인 용어로 교훈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농부의 안목에서 그것을 고찰해 볼 때 선교전략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는 열매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요 4 : 35-36) 씨를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이 두가지 일은 다만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은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이다. 선교사역에 있어서 볼 때 어떤 선교사나 혹은 선교관계 실무자들은 열매에 대해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때선 그들은 그저 막연한 때에, 어떤 사람들이, 또 거대한 것을 수확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다만 씨를 어떻게 뿌려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선교사역에 있어서 실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씨 뿌리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농부는 씨 뿌리는 일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열매에 대한 기대를 이미 전제로 하신 것이며, 그의 제자들도 이미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농사의 법칙을 다음 세가지 면에서 살펴 보자.

1) 전략의 성경적 법칙

가) 씨뿌리는 법칙(The Law of Sowing : 마 13 : 1-23)

이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르기 보다는 오히려 “밭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네개의 밭이 나오는데, 그 중 세 개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한 개의 밭만이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씨뿌리는 자는 동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도 다를 바 없고, 기후와 환경도 같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농부에게 있어서의 분명한 교훈은 아무리 좋은 씨앗일지라도 그것이 기름진 옥토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충실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선교전략을 위한 분명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전에 그 밭을 테스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또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종족이나 도시가 다 동등하게 열매를 거두는 비옥한 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다른 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의 올바른 전략은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씨를 흩어 뿌리는 식의 복음전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마구 뿌려진 씨앗의 대부분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눅 8:5, 12) 이런 면에서 오늘날 복음을 가장 갈급하게 기다리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며, 또 한국교회가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될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를 다각적으로 조사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본 교회가 집중적으로 파송해야 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토양검사(Soil Test)와 그 항구적인 선교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가꾸는 법칙(The Law of Pruning : 눅 13 : 6-9)

위의 성경에서 무화과나무의 주인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일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열매는 없고 무성한 잎만 달린 것처럼, 많은 선교사역에 있어서도 이같은 현상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선교현장에서는 많은 일들을 함으로 오랜 동안의 힘든 수고가 따르지만은 그 열매는 없는 것이 선교실제의 문제인 것이다. 성경에서 주인은 3년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있어서 적당한 시간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러나 나중에 그는 과원지기가 1년만 더 여유를 달라는 호소에 다시 참

고 기다려야 했다. 그러므로 어느 선교지에 대해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적당한 시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단계적인 선교사역의 계획과 방안이 따라야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언제나 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시간은 동일할 수 없으며, 토양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나, 그 기간이 짧은지 혹은 길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가꾸는 법칙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다) 수확의 법칙(The Law of the Harvest : 마 9 : 37, 38)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할 때처럼 가장 결정적인 때는 없다. 만약 추수할 일꾼들이 세 때에 충분히 고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자란 수많은 열매들이 손실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밭의 열매가 한꺼번에 다 수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종류에 따라 수확의 때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농사 경영은 다른 밭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우선 익은 밭의 열매부터 많은 일꾼들을 배치하여 거두어 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보통 선교사역에 있어서 그릇된 점은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않는 곳에 너무도 많은 일꾼들을 배치하여 놓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정작 추수할 곳에는 일꾼이 없어서 열매가 그대로 방치되거나 손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추수할 때를 대비하여 부족하지 않는 일꾼들을 언제나 양성하고 준비해두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칙의 적용

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

마태 9장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요청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마태 10장에서 원리의 적용에 대하여 그 예를 보여 주신다. 마태 10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천국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도록 하신 데 대해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무분별하게 마구 씨를 흩어 뿌리라고 보내지는 않으셨다. 당시에 복음전파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세 부류로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이방인에게, 셋째는 그중에서 사마리아인에게였다. 이와같은 세 부류 중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마 10 : 5, 6)

또한 유대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마 10 : 14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에서 나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불모지에다 그들의 수고를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적절한 선교전략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같은 것은 좋은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도 바울의 예

행 17장과 18장에서 사도 바울은 위에 기술한 농사 원리를 마케도니아와 아가아에서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17장과 18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에베소로 가는 사이에 다음 6곳의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곳은 ① 암비불리와 아볼로니아 (17:1) ② 아넌 (17:16) ③ 데살로니가 (17:1) ④ 베뢰아 (17:10) ⑤ 고린도 (18:8) 등이다.

이 중에서 암비불리와 아볼로니아 두 곳은 그대로 지나친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그곳에 사람이 약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곳을 지나쳤는데 그 이유는 그의 선교의 발판인 회당이 없고, 이 지역은 다만 벌판이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아넌에서 얼마간 머물렀으나 그 수확은 적었다. 그 열매는 17:34에서와 같이 “아래오바고”와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는 여자와 기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금방 떠나 버렸다. 그러나 나머지 세 지역에서는 오래 머물렀는데 왜냐하면 그곳들은 진실로 회어져 추수할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즉 데살로니아에서는 17:4에서와 같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 들였고, 베뢰아에서는 17:12에서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하므로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 하였다”고 기록되었다. 고린도에서도 18:8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회어져 추수할 지역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기울인 사실을 볼 수가 있다.

3. 선교사 양성 방안

수확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추수할 일꾼 곧 선교사를 양성하여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성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교사의 자격이 먼저 설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양성의 기준 - 선교사의 자격

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가) 신체적인 자격

군에 입대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음으로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가 될 선교사도 신체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선교지에서의 생활은 본국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의사와 병원을 찾기 위하여 3일 이상을 여행하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는 선교 지원자로서는 적합치 못하며, 만약 만성으로 앓아 왔던 질병이 있다면 선교지에서는 더욱 악화될 경향이 있으므로 최소한 본국에서부터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비록 그가 어떤 병이 없는 자라도 평상시 건강을 유지하도록 늘 힘써야 할 것이다.

나) 학력의 자격

19세기 선교사의 대부분을 보더라도 그들은 대학이나 신학교 졸업자들이었다. 뿐만아니라 충분한 성경 훈련 시간이 마련되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의 선교사들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되어 파송되기 전에 가능한 한 보다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학생들이나 지식층 사이에서 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수준은 그가 비록 정식교육이 끝나서 겉을 때도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 전문적인 자격

오늘날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전문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정규 교육 이외에도 기술적인 혹은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선교사들은 선교학, 역사학, 신학, 철학, 선교방법론, 이방종교연구, 타문화권에 대한 복음전달, 인류학, 지역연구, 교회설립 등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욱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에게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익히 알아야 하며, 많은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 이외에도 의술, 전기, T.V, 문서, 언론, 행정 및 재정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이 필요한 곳도 많다.

라) 심리적(정신적) 자격

① 정서적 안정감

선교지의 생활은 본국보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생활일 경우가 많다. 오랜 동안의 고독한 생활은 인간의 정서적 평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가능성이 있다. 내성적인 사람과 내적, 정신적 건플레스를 가진 선교사는 여러 종류의 욕구불만으로 고통을 당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성숙의 결핍은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데 있어서 1할 이

상의 요인이 된다고 한다.

② 적응력

서양적인 “로마에서는 로마인처럼 행하라”는 말이 있다. 선교지는 여러모로 본국과는 다르다. 기후, 음식, 의복, 언어, 풍습 그리고 종교 등 그가 만약 선교지에서 선교활동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의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물론 진리 자체에서는 조금도 타협이 있을 수 없으나 그 나라 생활양식에 있어서 적응하지 못하면 선교지에서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③ 유모어의식

선교사역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심각한 사역이다. 그러나 선교사 자신은 심각하거나 초조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많은 긴장과 폭발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유모어 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

④ 협동심

협력선교 사업을 할 경우 선교사는 그 팀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지역에 여러 선교 단체나 여러 외국선교사들이 나와 있어 때로는 그들과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 2:4에 말씀하기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였다.

앞으로 어느 한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협력선교(Team Missions)의 방안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그들간에 그리스도안에서의 협동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⑤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

계통과 조직을 가진 선교기관에서는 언제나 명령제통이 있기 마련인데, 상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일선 선교사들은 그것을 순종하여야 한다. 잘 운영되는 선교기관에서는 사전에 각 선교사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모든 노력이 진행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매년마다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지 회의가 열리며, 그 곳에서 현지 선교사들이 그들의 문제점과 그들의 의견을 제출한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선교지회의 이외에도 본부에서의 선교회의 및 국제회의 등 여러가지의 회의 등에서 선교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모임이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같은 곳에서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기꺼이 수행하는 즉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⑥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

본국에서의 생활이 비록 안락하고 평안하고 풍요한 생활양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선교 현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현재보다도 “가치



〈주일에 설교하시는 김태현 전도사〉

지 못한 나라”에서의 선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불편한 일들이 한 두번이 아닐 것이다. 이같은 고통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겸손한 생활을 통해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야 할 것이다.

⑦ 인내

본국의 생활에 익숙해 온 선교사가 갑자기 다른 이방지역에서의 변화된 생활 속에서 그 템포를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때가 많다. 그 템포가 빠른 지역이 서구사회이고, 느린 지역이 동양사회이다. 동양사회 중에서 회교권은 더욱 느리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이것을 견디는 인내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⑧ 우월감을 갖지 말 것

역사학 교수인 라토렛(K. S. Latourette)은, “19세기 선교는 서구문화의 우월성을 강력하게 심어 준 시기”라고 말했다.

그 시대의 선교문헌을 보면 “기독교화”(Christianity)와 서구식의 “문명화”(Civilization)는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선교사들은 복음전파의 역할과 동시에 서구문명의 주입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지나갔으며, 양자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

⑨ 민족적 편견을 갖지 말 것

과거 중국인들은 주변국가들을 향하여 야만인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백인들은 흑인에 대해 차별을 갖는 수가 많다.

솔직히 말해 한국인은 일본인에 대해 또 일본인은 한국인에 대해 민족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인도네시아의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서만수선교사〉

이다. 민족적인 편견을 갖는 것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이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위배되는 일이며, 현지인에 대한 선교활동은 고사하고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 것이다.

마) 영적인 자격

선교사역은 영적인 사역이며, 영적인 방법에 의해서만이 얻어지는 영적인 결과이므로 선교사에게 영적인 자격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① 온전한 회심의 경험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복음적인 열정이 자라나야 한다. 그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선교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풍부한 성경지식

선교사의 주요임무는 이방 불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며,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 얻고 배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성경지식을 증거하는 일이 그의 임무이다. (딤후 3:15)

선교사는 성경의 내용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죄와 구원 등에 관한 중요한 교리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성경은 선교사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의 모든 일의 기준이 되며, 그의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으로부터 그는 지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정결함을 받는다. 한마디로 성경은 선교사의 생활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다.

③ 소명 의식

선교사역은 육체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심리적, 이념적, 그리고 기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만

약 어떤 선교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의 선교지에 와서 일하고 있다는 깊은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처음과 계속되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의 사역을 포기해 버리고 귀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선교사로 와 있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④ 계속적인 헌신의 생활

선교사는 그의 영적인 생활이 현지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하여 매일같이 성경연구 기도 예배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

본국에서의 영적인 생활은 계속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선교지에서는 이같은 것들을 놓칠 우려가 많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장을 위해 그 자신이 계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그는 영적으로 시들어 마르고 곧 죽게 될 것이다.

⑤ 절제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내부로부터의 욕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본국에서는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감시하는 자(?)도 많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으므로 많은 유혹으로부터의 절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지모른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전 9:25-27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말했다.

⑥ 사랑의 마음

사랑은 성도의 생활의 표징이며(요13:34, 35) 기독교 사역의 필수조건이다.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위에 오셨다.(요3:16)

그러므로 선교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나타내야 한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매였으므로(고후 5:14) 주를 위해 그들의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다.(행 15:26)

⑦ 기독교봉사에 있어서 성공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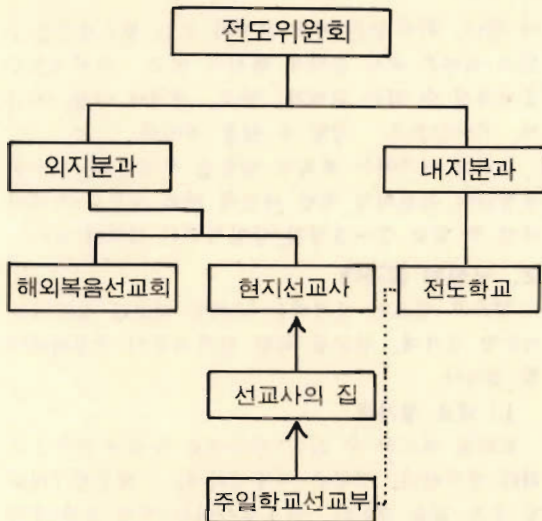
이상의 몇가지 영적 자격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그것은 본국에서의 기독교의 모든 봉사에 있어서 그는 열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그 자신 본국에서 교회 혹은 선교사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가 본국의 문화 속에서 그 증거가 없다면 이방문화 속에서 그 보다 더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을 수 있

겠는가? 그는 본국에서부터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며, 사역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양성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

현재 본교회 내에서는 국·내외 전도사업을 총괄하는 전도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나는 전도위원회의 외지분과와 내지분과 사업으로 국내·외 전도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 위하여 몇가지 조직과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우선 다음과 같은 일부 조직표를 그려 설명하고자 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씩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가) 해외복음선교회: 이는 현행제도와 같이 현지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에 대해 행정적 혹은 재정적인 후원기관으로 교회와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두 부서 즉 "주일학교선교부"(현행존재함)와 "선교사의 집"을 외지분과내에 설립한다.

현재 존재하는 "주일학교 선교부"를 교육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보다는 그 기능과 성격면에서 볼 때 전도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이 여러모로 능률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교부"를 "선교학교"로 개칭하고, "선교학교"의 역할은 실제 선교사로 파송되는 후보자들의 전문적인 훈련에 앞서 선교사 지망자나 혹은 선교에 관심있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선교교육을 계몽 혹은 고취시키는 일을 한다. 이와같은 "선교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가운데서 우수한 사

람들을 교회의 장학금으로 신학교에 입학시켜 소정의 신학훈련을 다 마치게 한 후 그 가운데서 "해외복음선교회"와 "당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된 선교사 후보자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전문적인 선교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선교사의 집"에서 하는데 그 훈련 내용은 ① 어학훈련 ② 선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생활훈련 등을 1년 2회씩 3년간 합숙훈련을 통해 하게 된다. 이와같이 두 부서의 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기간동안 훈련을 마친 사람을 정식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우리는 그간에 많은 과오를 어느정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 국내전도활동을 할 수 있는 전도요원 양성기관으로 "전도학교"를 상설할 것을 또한 제안한다.

전도는 어느 일정한 기간에만 하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하며 궁극적인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학교"를 상설하여 1년에 2, 3회씩 입소하여 모든 성도가 전도를 생활화하고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본교회 성도라면 남녀노소, 직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전도학교"의 일정기간 동안 입소하여 기본적인 전도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초대교회와 같이 전도로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 가운데서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는 자는 다시 "선교학교"에 들어와서 별도의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상호 연계나 연관을 갖는다.



다음 글은 금년 1980년도 성가부 하기 수양회에서 현재 성가부를 지도하고 계시는 김하진목사님께서 특강으로 하신 말씀을 제 1 성가대 대장으로 수고하시는 차신평집사님께서 정리하여 보내 주신 것이다. (편집자 주)

충현교회성가대 미래상

차 신평 집사

(제 1 성가대 대장)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명제를 안고 있는 충현교회는 새성전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교회의 전반적인 조직과 활동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와 관계있는 성가부, 즉 교회음악 분야에 대한 미래상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노력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 음악 전반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하여 추진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기구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마다 처리해 지나가고 마는 운영 방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같은 조직을 통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는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훌륭한 조직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반면 필요 이상의 조직은 오히려 일을 하는데 방해의 요인이 되기도 쉽다. 그러므로 우리 성가대는 이점에 주의하여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말하는 조직과 내용이 장차 우리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훌륭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러한 테두리속에서 발전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바란다. 그러면 각 분야별 조직과 조직의 규모 및 활동내용, 그리고 기타 꼭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것등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

1. 음악 위원회(가칭)

음악위원회에서는 교회 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검토 개선하여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산하 각 부서와 그들이 하는 활동을 관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음악위원회에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위원장이 있어야 하며 약관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야 한다. 위원장은 지도 교역자 또는 장로가 맡을 수 있고 위원은 교회 음악에 관심이 있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교역자, 장로, 성가대 대장, 지휘자, 기타등으로 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획된 일들을 추진하고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실행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2~3명의 상임직원이 있어야 한다.

2. 구성된 성가대

앞으로 필요한 성가대는 교회를 대표한 성가대와 기능별 성가대, 선교를 위한 성가대등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1) 대표 성가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성가대로 두개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명칭은 제 1 성가대, 제 2 성가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1 성가대는 명실 공히 충현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성가대로 구성하되 300~400명 정도의 인원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대성전의 규모로 보아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다. 제 1 성가대는 양적으로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수한 성가대로 키워야 할 것이다. 제 1 성가대는 제 1부 예배(성도가 가장 많이 회집되는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고 대외 행사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성가곡을 연주하는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 2 성가대는 역시 교회를 대표하는 성가대로 그 규모는 200~250명으로 구성하여 제 2부 예배(성도가 제 1부보다 적게 모이는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고 찬양예배 및 음반과 카세트 제작을 위한 녹음을 전담해야 할 것이다.

이상 교회를 대표하는 두 성가대에는 전문적인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각 파트에 5명정도씩 두어 풀리스트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 기능별 성가대

기능별 성가대에는 ① 남성 성가대, ② 여성 성가대 ③ 각부 주일학교 성가대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성가대, 여성 성가대의 인원은 50명내외가 적합할 것이며 이 두 성가대는 찬양예배, 수요 예배를 담당하며 군전도, 유치장전도, 결혼식, 장례식, 특수활동 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일학교 각부 성가대는 각부 주일학교 예배를 도우며 체계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장차 교회음악 분야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선교를 위한 성가대

성인으로 구성된 성가대외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성가대를 두어 이들은 전문적인 성가대 수준을 갖추어 학교, 병원, 군인, 지방교회, 각 단체 및 대중전도 집회를 통해서 선교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가대들이 앞으로 해외 선교지나 기타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에 치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기악부

기악부에는 ① 관현악단(Ochestra) ② 합주단 ③ 어린이로 구성된 악단들을 두어 예배를 도우며 성가대 반주와 대외활동을 통해 전도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찬송가나 성가곡을 기악으로 녹음하여 보급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4. 관리부

장차 우리 교회 음악위원회 산하에 꼭 필요한 부서가 관리부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음악위원회 산하에는 많은 비품과 악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울건(전자울건 혹은 파이프 울건)만 하더라도 적어도 3~4개가 있을 것이고 피아노는 수십대가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부가 있어야 한다. 이밖에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많은 악기와 수백벌의 가운과 피스, 기타 비품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야 될 것이다.

5. 출판부

그밖에 출판부를 두어 각부 성가대내의 사용할 악보를 출판하여 사용할 뿐 아니라 범교회적으로 보급하는 일에도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찬송이나 성가곡을 작곡이나 편곡하여 한국교회 성가대가 부를 수 있도록 제작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출판부에서는 찬송가 음반과 카세트 제작해서 성도들에게 널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찬송가나 성곡을 제작할 뿐 아니라 기악으로 된 찬송도 제작하여 보급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음악이 성도들의 생활속에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활속에도 교회음악이 지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녹음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6. 교육기관

마지막으로 성가대나 혹은 기악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인물을 양성하여 이미 봉사하고 있는 대원들의 계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음악교육 기관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목소리로 봉사할 성악인을 양성할 뿐 아니라 기악으로 봉사할 사람들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자나 반주자(범교회적인 측면에서)를 양성하고 성곡을 작곡 혹은 편곡할 수 있는 전문음악인들도 양성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교육기관에서는 기성 음악인(성가대)을 계속 교육하는데 세미나 형식으로 재 교육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내 전체 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이며 세계 교회를 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아무쯔음 80년대를 향한 우리 총현교회가 새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며 새성전이 건축된 이후 우리 교회 성가대는 도약하는 성가대(음악위원회)로서 하나님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란다.

세 곳에 한인교회 설립



육 호 기 목사

(주 서독 선교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하심이 충현교회 위에 항상 충만 하옵기를 기원합니다. 연약한 중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충현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와 기적의 산출이었습니다. 충현교회의 뜨거운 성원을 안고 유럽 선교의 길에 오른 저는 너무도 벅차고 무거운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미약함에 비하여 파충하는 충현교회의 성원과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유럽이라는 물질문명의 풍요와 윤리 도덕의 타락,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에 선교라는 막중한 중압감에 눌리게 되었고 그 중에 뚜렷한 선교지가 없이 유럽 서독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교회라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복음전선 서독에 무사히 낙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선교의 전쟁은 시작되었으나 참으로 막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 집도 없었고 저를 환영하는 교우나 교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무기는 기도과 찬송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유럽의 중앙부가 독일이요, 독일의 중심부가 프랑크푸르트 (Frankfurt)라는 데 착안을 하고 이곳에서 선교의 발판을 붙이기로 작정을 하고 우선 호텔을 정하고 집을 팔고 집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을 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을 사서 새벽부터 뛰어 다녀 보았지만 어쩌나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차레가 오지 않았고 어쩌다 빈 집이 나서 구하려고 하면 외국사람이라 거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큰 한달

을 집을 얻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곳 생활에 익숙하신 김영한박사(충전대 교목실장)께서 수고해 주셨으나 집 구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래 저는 저녁마다 호텔에 돌아와 거처할 처소를 달라고 주님앞에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거의 절규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집을 찾고 초조하게 시간을 보낼 때 어버하드 트레거 (Eberhard Troeger)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 목사님은 애굽에 10여년간 선교사로 일하다가 이제는 귀국하여 애굽선교회(Evangelische Mission in Oberägypten) 회장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트레거 목사님께서 나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자기의 선교관에 머물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라고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선교관에서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이 애굽 선교회 선교관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45킬로 떨어진 비스바덴 (Wiesbaden)에 있습니다. 비스바덴은 대단히 아름답고 공기가 맑고 아늑한 도시로 헷센 (Hessen)의 도청 소재지 같은 주수도입니다.

1. 비스바덴 한인교회 창립

저는 이 비스바덴에 거주하면서 기도하며 선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스바덴에 한인교회를 설립하여 유럽선교의 전초지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 선교를 시작한 것처럼 한인교회 설립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 77년5월 첫째 주일에 창립 하기로 하고 이 일을 위하여 금식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의 지리도 아직 익숙하지 못했고 교인도 하나도 없었으며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선교관의 위치

를 그리고 한인교회를 창립한다는 인사말을 써서 프린트 하였습니다.

인쇄한 안내서를 가지고 각 병원에 돌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때는 집사람이 아직 독일에 오기 전이었으므로 남자로서 자유스럽게 간호원 기숙사를 방문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어 병원과 기숙사 게시판에 안내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한국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길에 서서 한국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한인교회 창립예배에 참석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하여 77년 5월 8일 첫주일 애굽선교회 선교관에서 창립예배를 드릴 때 20여명이 참석하여 감격스럽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국에서는 교회 창립예배 때에는 축하와 성원하는 인사도 많지만 이런 축하나 성원없이 저는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담배 한갑씩은 들어 있어도 성경 찬송가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제 목소리 뿐 찬송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설교하였고 뜨거운 감격에 벅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하고 나서 뜨거운 악수로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창립예배를 마치면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만한 재정도 솜씨도 능력도 없기에 뜨거운 악수와 인사로 이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 이들이 하는 말이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왔다는 말을 저에게 하면서 웬일인지 안내서를 읽을 때 나오고 싶었고 저를 만난 사람도 다 마음에 끌려 처음 교회에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아 주셔서 성스럽게 교회창립을 하게 된 것에 너무나 감격하여 저의 눈에 감사의 눈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비스바덴 한인교회는 올해 창립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주의 종이 되고자 독일 성경학교에 입학하여 지금 공부와 훈련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올해 비스바덴 한인교회의 기도제목은 "우리 손으로 우리교회를 건축하자"란 목표아래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2. 뤼츠부르크(Würzburg) 한인교회 창립

기독교 국가요 또 기독교의 문화속에 형성된 이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죽어있는 영혼을 구하려면 우리 한인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절실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독에서 한인교회가 부흥되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기에는 여러 조건

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이민국이 아니라 취업으로 온 광부, 간호원, 유학생, 상사들이 무역관계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유동성이 심한 것이 특징이며 또한 이제는 광부나 간호원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임기가 끝나 대부분 귀국 또는 제3국으로 나가므로 이제 한인들은 서독에 총 만여명에 불과합니다. 이 소수가 넓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에 한 교회가 자체적으로 자립하며 또 외부까지 영향력을 미칠 힘을 갖기에는 어렵지만 지교회로 많이 세워 이 지교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힘을 발휘할 때는 유럽 선교의 가능성이 있기에 지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제게 회생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것에 죽음의 각오가 되지 않고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 일하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던 차 뜻밖에 뤼츠부르크(Würzburg)에서 몇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대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으로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길을 인도하시듯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시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제가 살고 있는 비스바덴에서 뤼츠부르크까지 거리는 약 200킬로미터의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2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리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나 벅찬 일이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불가능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못하나 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78년 5월 14일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은 미국 군인들이 주둔한 도시로서 미국 가족들 중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머물고 있는 한인들은 통털어 10가정(독일인과 결혼한 가정)이며 유학생 몇 명 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창립되어 예배를 드리는 데 교회 출석 교인은 대여섯명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저를 회생시키는 목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너무나 회생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도 개척자의 길인 힘들고 피곤하며 참으로 험난한 길인 것을 전에는 미처 생각도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비스바덴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뤼츠부르크에 내려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비스바덴 집으로 돌아오면 밤 12시가 넘게 되며 간혹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어 길이 막히는 날이면 차안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나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며 기쁜 마음으로 견디지만 가족들에게 더할나위 없이 못할 일이며 학교 다니는 딸아이에게는 너무나 심한 희생이었습니다. 잠을 못자고 장거리 여행에 피곤해서 아침에는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깨워 아침밥도 못먹고 학교에 갈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철도 없는 것이 부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성역에 회생을 함께 당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인 가족들 중에는 대부분 이 땅에서 소외된 분들이며 학력도 없는 분들이라 모든 면에 더디 깨닫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어찌할 수 없이 이 뮌헨부룩 한인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진정 사랑하게 되니 돌같은 굳은 마음도 녹아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죄인의 생활에서 돌아서며 교회에 봉사자로 변하게 되니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공부를 실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 금요일에 비스바덴에서 내려가 저녁에 성경공부를 실시하였고 토요일에는 심방을 하고 주일에는 예배시간을 변경하여 오전에 예배를 인도하고 그대로 비스바덴으로 달려와 주일예배를 오후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군인부대 교회를 빌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들이 오전에 주일예배를 드린 후 우리가 12시 15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 나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뮌헨부룩에서 비스바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는 곧 과속 운전을 하여야 겨우 오후 4시 비스바덴 한인교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보니 위험이 자연 따르게 되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당했으나 마늘마늘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으로 생명에는 위험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은 계속되어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뜨거운 기도와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뮌헨부룩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되었고 부인들은 은혜를 받고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니 자기 남편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아내들을 사랑하는 미국 남편들은 곧잘 아내말에 순종하여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인과 미국인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자리는 협소할 정도로 부

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전에 미군목에 의하여 미군인 만이 드리는 예배는 텅텅비니 그만 그들은 예배를 폐지하게 되어 우리들 마음대로 교회를 사용하라는 군당국으로 부터 허락을 받고 우리들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 뿐입니다.

현재 뮌헨부룩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교회 버스를 구입하는 등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더불어 건축헌금을 하고 있는 중이며 한인교회가 독일땅에 우뚝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모두들 충성하고 있습니다.

3. 하나우(Hanau) 한인교회 창립

하나우는 비스바덴에서 7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프랑크푸르트 근교라고 할 수 있는 뮌헨부룩과 비스바덴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비스바덴과 뮌헨부룩을 왕래하면서 이 중간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모로 선교에 유익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이 하나우를 지나갈 적마다 내 입에서 입버릇처럼 하나님 이 중진 지역 하나우에도 교회를 세우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뮌헨부룩에서 심방중 나의 심정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니 하나우에 자기의 친구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 연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즉시 전화를 하였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5,6명의 성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교회를 세울 교역자를 찾으며 기도중에 있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교회 창립 예배를 79년 8월 12일에 드렸습니다. 막상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 너무 무리한 일을 시작해 지나 앞섰는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세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은 거려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실제적으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급한 주일에 세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돌아오면 육신인 까닭에 녹초가 됩니다. 주간에는 심방과 신앙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에 한 주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옵게는 하나님은 날마다 저에게 새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 까닭에 지금까지 전경한 몸으로 이 선교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우 교회도 점차 자리가 잡혀가며 성도들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뜨거운 신앙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분명코 이 하나우 한인교회도 유럽 선교의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충대한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4. 현재 선교의 진행

1) 지금 세교회가 완전 자립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완전 자립하지 않으면 물질이 풍요한 유럽 문화권속에서 선교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항상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들에게 줄 수는 있어도 도움 받을 것이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선교를 하려면 그 기초가 튼튼하고 그들보다 모든 면에 뒤떨어져서는 안됩니다.

문화권에서 한 선교사가 생활을 하며 활동하려면 적어도 매달 3,000불이 소요되는 데 이 많은 선교비를 매달 현 한국교회가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인교회가 자립하여 우리 손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비를 부담하여 장기적 안목을 보고 서서히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유럽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적은 평신도 개개인이 유럽 선교의 사명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진리의 확신과 생동성 있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충만을 위하여 기도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충만한 성도가 많이 있을 때 교회는 절적, 양적으로 부흥되고 또한 생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형식적인 유럽교회를 깨우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 세교회가 연합행사로 유럽 선교의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를 맞이하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일년에 한두차례 연합야외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힘을 서로 합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합 평신도 수양회를 개최하여 철저한 신앙 교육과 생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수양관이나 기도원을 빌려 그 곳에서 숙식하면서 새벽기도, 성경공부, 저녁예배, 철야기도, 금식기도, 간증의 밤 등 이런 순서를 통하여 영적훈련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훈련을 통해서 각 개인들이 은혜를 받고 유럽 선교의 사명감을 재인식 하면 저교회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매년 수양회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독일인들이 휴양하러



〈서독에서의 선교활동〉

왔다가 우리의 힘찬 찬송과 열렬한 기도와 은혜받은 기쁜 얼굴을 보고 그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시간에 들어와서 은혜 받기 위해 통역해 달라고 하며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냐고 질문들을 합니다.

소수민족인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을 참으로 수양회를 통하여 독일인에게 재인식 시키며 잠자는 신앙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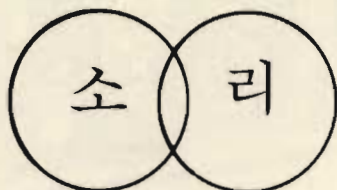
독일인들의 신앙이 빈사상태에 있는 이유중 하나는 기도가 없으며 또한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같이 철저하게 평신도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성경지식이 부족하고 형식적으로는 신자라고 자처하지만 우리가 볼 때 신자라고 부르는 너무도 어렵고 스스로 속고 사는 가련한 인생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웅장하나 내용은 텅텅 비었고 노인들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기현상이며 젊은이들은 찾아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저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비판 의식에 사로 잡히고 있으며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이 아니라 맛없는 소금이 되어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지나 무관심 속에 있으므로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의 사명은 너무나 크고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막중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위에 충만 하옵기를 기원하오며 이만 줄입니다.



조 현 명 장로

(월간중현 편집위원장)

소리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① 어떤 힘을 받는 물체가 떨어 공기에 결을 이루어 사람의 귀에 감각을 일으키는 힘을 통틀어 일컫는 음(音, Sound) ② 사람이나 동물의 발성기에서 나는 소리(Voice) ③ 어학에 있어 사람의 발음 기관에서 생기는 음향인 음성(音聲, Voice) ④ 사람의 사상 감정을 나타내는 소리인 말, 말씀(Words) ⑤ 가락을 붙여 부르는 목소리나 또는 노래 곡조에 아우르는 말(노래, Song) ⑥ 향간의 여론이나 호소 또는 소식(News)

우주에 가득찬 소리들 가운데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악음(樂音)도 있는 반면 듣기 싫은 소음(騒音)도 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음의 세기와 주파수(周波數)에 의하여 정해진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은 진동수가 1초동안에 16~20,000정도의 것이다. 악음 중 주파수 범위의 한 예를 들면 남자의 목소리는 120~7,000 Hz, 여자의 목소리는 200~9,000 Hz, 발소리는 100~10,000 Hz, 박수소리는 150~15,000 Hz이다. (Hz: Hertz, 秒當 사이클).

영의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

고 양심의 귀가 있는 자도 들을 수 있다. 들으면 그 소리로 인하여 살게 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 곧 순종하는 자는 그의 심령이 살아 나며, 영이 살아나므로 그의 육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두가지 음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을 통하여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이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사랑하는 네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격려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유혹의 소리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유혹을 이겨야 할 것이다. 신앙에서 선택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고, 물욕(物慾)으로 선택한 롯은 소돔에 불과 유황의 멸망을 가져오게 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 오고 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이 시조 아담을 탓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시면 축복의 천교를 밟고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늘의 소리는 우리 개인을 부르신다.

그리스도 교도들에 대한 핍박을 더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시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겸손한 바울이 되어 일생을 충성된 전도 사업으로 마치고, 세리장으로 뽕나무에 올라 예수를 보고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그 가정에도 복음의 기쁨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또 하늘의 소리는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다. 가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기적의 능력을 경쟁하여 이기었으나 이세벨의 반격을 받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피하여 은은한 음성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계심을 배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 나라를 위하여 불렀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자 시민들은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넓은 긍휼을 배우고 '여호와와 중'에게 나타난 고난의 속죄적 가치와 세계 구제에 대한 새로운 이상에 입각하게 된 요나를 선지자로서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형성 시대였던 선지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나, 계시완성 후 시대인 지금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록하심으로 형성된 계시인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그의 소리를 들어 강건한 새사람이 되어 굳센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 죄를 피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합하여 부르는 성경전서의 명칭은 성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조서, 하나님의 율법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어떤 국민이나 그 창조기부터 노래를 가지고 있다. 구약에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때 라반의 말 중에 나온다. 옛 노래가 성경에 인용된 것은 미리암의 노래(출15: 1~18)와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삼상18: 7), 드보라의 노래(삿5: 2~31),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조상(吊喪)하는 활노래(삼하1: 19~27) 등이 있고 시편은 그 (집대성(集大成)이다. 저들이 하나님께 바친 노래는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늘 '새로운 노래'를 불러 바쳤다. 이는 즐거운 일이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이었다.

사람은 그의 가장 어린 시절부터 말의 힘의 울타리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 울타리의 보호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처음 해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배움을 계속한다. 말은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글의 이해를 이끌어가며 삶의 세계를 이룩하는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 있기 전의 우리의 생각은 어둠의 혼돈이다. 말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에는 빛이 나타나고 질서가 이룩된다. 말은 한 번 입에서 떨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을 가졌다. 말은 때로는 원자탄처럼 터뜨리고 칼처럼 찌르고 주먹처럼 때리지만 또한 때로는 남시밥처럼 사람을 낚는다. 그리고 말은 긴장하고 싸늘한 분위기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수도 있고 궁지에 빠져있는 삶에 갑자기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아름다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들어맞는 알찬 말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 말한 것은 그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정적으로 확정시키는 것이 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을 통해서 그를 붙들고 그를 상대로 하게 된다. 그가 말한 것은 오늘도 내일도 초시공간적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그는 불가피하게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구속된다.

우리 성도는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화목케 하는 말, 길을 인도하는 말, 양육시키는 말, 칭찬받는 말을 하도록 함해야 하겠다.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와 말씀' 족속의 어른이나 선지자, 영감을 받는 자에게 계시로써 주신 것과 하나님의 명령, 율법, 하나님의 약속 또는 희망의 거점, 창조·계속·보존 유지하는 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도, 로고스)등을 가리킨다.

서로 말을 주고 받는 이야기 없이는 적어도 인간의 삶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야기는 삶이라고 하는 전체 관련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지난 일, 현실의 사실 또는마음 속에 품은 것을 남에게 일러주는 말을 이르기에도 한다.

대화는 삶을 위한 참신한 힘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낮의 피로움과 밤의 외로움에서 구출해서 늘 새롭게 하고 위로하는 삶의 원천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정부와 국민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면 싸움을 하게 되고 앞길은 암담해 지게 마련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1: 18)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인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기도는 믿는 자만이 가지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독백(獨白)이나 말을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섭이며 대화이다. 기도는 기원(祈願), 감사, 찬미를 포함한다.

성경에는 기도가 넘치게 많은 까닭에 그리스도교는 기도의 종교라고까지 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고 또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리는 데도 기도가 그 예배의 주요 부분이였다.

예수께서는 그 생애에 중대한 전환이 올 때는 반드시 기도하셨는데 특히 겔세마네에 있어서의 기도와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는 속죄에 관한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구약 성경은 기도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 다니엘, 한나를 들고 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 10)

우리들도 박해를 극복하고 최후까지 신앙을 충실히 지키고 승리를 빼앗은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다'나를 보내소서'라고 곧 대답한 이사야 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부르름에 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 농어촌 파송 전도를 다녀와서 □

「우리가 파송된 곳은 청년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을 신월리의 신현교회였다. 이승근목사와 김양래전도사님을 지도 교역자로 모시고 중등부 교사인 김정화집사님, 이교숙선생님, 그리고 청년부회원인 오형국씨와 필자가 대원이 되어 지난 8월18일~22일까지 매우 뜻깊은 전도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하나님의 손길과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기쁨으로



김 수 진

(제1대 대원, 중등부 교사)

I.

오래전부터 이번 농어촌 전도에는 꼭 참석하라고 기도해 오고서도 계획에 없었던 다른 외부적인 일들로 많은 시간을 소모했기에 잘 생각을 포기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달라서 파송되기 전날 서둘러 배정을 받게 하셔서 귀한 일에 동참케 하셨다.

18일 아침부터 조금씩 내린 비로 청량리역은 축축히 젖어 있었고 그 때문인지 대원들의 얼굴들은 자못 심각하고 비장하게 까지 보였다. 강원도 산골을 향해 달리는 기차의 창문을 통해 세차게 불어치는 바람과 함께 계속 계속 내 마음속으로 불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람답게 보아 주시는 십자가의 정병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거り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우리 대원들의 마음엔 천국이 있었기에 기차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얼굴과 음성에서 천국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으리라!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대사들의 행진의 대열에 내가 앉아 있음이 아무리 생각해도 꿈만 같았다. 오후 6시경에야 기차는 정선역에 도착했다. 신현교회의 지도 교역자이신 강성철 전도사님께서 마중나와 계셨다. 상상대로 자갈있고 저녁 햇빛 받아 금빛 햇살 흐르는 냇가를 지나자 곧 맑고 높

은 하늘 아래에 단지 이름만 들었던 생명의 빛깔 지닌 꽃들과 풀들로 둘러싸인 작고 깨끗한 교회가 나타났다. … 첫날 저녁 부흥회 후, 앞으로의 일정표를 작성하고 강전도사님으로부터 주변 마을의 상황에 대해 들었다. 산신령을 섬기는 집이 많고 제사가 문제되는 집들이 많다고. 제사에 대해 대화하면서 제사드리는 풍습을 조상신으로서가 아닌 한국 고유의 전통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받아들이실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실상 조상신으로 섬기는 무지한(?) 사람들도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마음문을 열어 그 마음이 이미 깨어져 있으면서도 조상때 부터 내려오던 그 형식을 깨지못해 (그 형식을 기독교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전통과 기독교 복음과의 접촉점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었으나 그날 밤은 복음의 전파는 방법론의 문제보다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내일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II.

새벽 4시에 시작된 새벽예배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탁한 도시의 공기가 아닌 신선한 공기 속에서의 새벽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맑게 씻어주어 복음의 역군으로서의 새 각오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첫날이므로 대원들과 그 교회 집사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전도 훈련을 받은 후 네 팀으로 나뉘어 신월리 마을 전체를 방문하며 전

도했다. 강전도사님과 여집사님, 그리고 서너명의 학생들과 함께 배정받은 나는 내심 대화의 시작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는데 강전도사님께서 가는 곳마다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대화로 문을 열고는 서울 손님이라고 나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셨다.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으나 차츰 학생들과 지식층에는 사영리로, 어린이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글 없는 책」과 성경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까지의 나의 체험도 전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종일 강전도사님과 함께 전도하면서 놀란 점은 믿는 가정은 물론 산신령이나 혹은 성덕교를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간에 모든 마을의 주민들이 강전도사님을 환영하고 존경하고 있었으며 또한 강전도사님께서는 각 가정의 사정을 거의 모두 파악하고 계셨고 어린이의 이름까지 모두 알고 계셨던 점이다. 전도사님의 방위에 액자로 걸려있는 「전 부락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는 듯했다. 이 신월리 마을이 하나님께 축복받았음을 깨달았고, 오늘 하루 전도사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III.

다른 대원들은 점심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돌길에 많은 신월리 마을로 모두 떠났고 나는 중·고등부 학생 몇과 함께 나오다가 만나오는 학생들, 믿지 않는 학생들의 가정을 심방하면서 주로 사영리로 전도했다. 간간히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먼거리를 한마디의 불평없이 전도지와 책자를 꼭 안고서 집집마다 안내해주던 경숙이, 은희, 옥란, 향숙, 경원, 선옥이 들이 눈에 선하다.

개학하여서 집에 없어 못만난 학생들도 많았고, 있었어도 시간이 없어 일일이 찾아가 충분한 개인적인 대화도 못나누고, 더구나 저녁때엔 교회까지 찾아와 대화를 원했던 몇몇 학생들까지도 시간이 없어 그냥 돌려 보내야 했던 일들이 아쉽기만 하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꿈을 키워줄 교사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충분히 많은 훌륭한 교사들의 지도하에 자라나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오후엔 사모님이 담당하시던 유·초등부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갑자기 내가 인도해야 했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설교해본 경험이 없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강단에 오르니 3~4세에서 국민학교 6학년 학생까지 한데 섞여 천태 만상이었다. 성령님의 인도로 준비했던 공과가 아닌 까만색, 빨강색, 흰색, 황금색의 「글 없는 책자」로 복음의 기본진리들을 설명해 주



(어느 주막에서 개인전도하는 대원)

게 되었다. 어느새 50여명의 어린이들의 반짝이는 눈들이 내게 향해 있었고 진지한 이해를 하는듯 보였다. 경험도 없고 두렵고 떨리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내게도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음에 큰 감사를 드렸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돌아온 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신월리 마을은 수해로 인한 피해(인명피해도 상당수)도 크고 지역도 돌작밭으로 험한 만큼 주민들의 마음 음발도 험하고 딱딱했다고 한다. 특히 김집사님으로부터 50세의 총각이 오직 하루하루의 밥만을 위해 일하며 혼자 살고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영적이고, 정신적인 생활에 대하여는 전혀 무감각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어떻게 그같이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나올것 같았다. 밤엔 눈이 많이 충혈되어 대원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하나님의 딸답게 밝은 얼굴, 맑은 눈으로 천국을 알려야 할텐데 눈이 빨개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일은 환한 눈, 환한 얼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IV.

예상과는 달리 날이 훨씬 개어서 대원들의 마음은 더욱 밝았다. 눈이 약해서 한번 충혈되면 3~4일 계속되는 나의 눈도 아침식사 후 거의 회복되어 교숙이 언니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몸이 매우 약해서 온 가족의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김집사님도 날이 갈수록 피곤하기는 커녕 새 힘이 자꾸 솟는다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극구 주장하심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른다. 오전에는 2



〈새로운 결신자를 위한 기도〉

시간정도 걸어서 원통마을의 30여 가구를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하였고, 개울가에서 이승근목사님께서서 오신 밥과 강전도사님께서 끓이신 맛있는 찌개로 점심을 배우고 계속 행군하여 오후에는 어찌와 덕우리 마을의 40여가구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 때와 장소에 맞추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교회에만 나가면 머리가 아프다는 아주머니의 진지한 물음에 잠깐 당황하였으나 선뜻 어둠 속에 오래있다가 빛으로 나온 순간의 아찔한 상태가 예로써 생각나게 되어 말함으로써 담대하게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한 일, 개울가에서 만난 6명의 꼬마들에게는 교회가 멀어서 다니도록 할 수는 없어도 요 3:16을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확실히 가르쳐 주어서 그 말씀으로써 그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며 가르쳐 주었던 일, 부모님을 따라 산을 섬겨오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 주었을 때의 경이에 찬 그들의 눈 빛이 그렇게도 감격스럽게 보였던 일, 그리고 산 중턱에 외딴 집이 있어 애써 올라가 보면 모두 일하러 나가 아무도 없는데, 그 빈 집에 놀라운 소식을 알리는 전도지를 두고 오면서까지도 감격스러웠던 일, 복음을 처음 듣는 할아버지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2시간의 거리일지라도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변치 않게 하시니 머지 않아 이곳에서도 교회를 하나 세워주시던가 아니면 강전도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미니버스를 속히 주셔서 이곳 주민을 싣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던 일, 그 어느 것에도 감사드리지 않을 것이 없었다. 서울에서의 긴 시간에 걸쳐 인격을 통해 전도해야했던 그런 여유있는 자세를 가진 대원들은 한사람도 없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의 절박한 선포였다.

간혹 피곤해질 때면 “주님 우리들의 피곤함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말이 타성적이 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하게 하셔서 햇빛받고 비 받으며 공기 마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이들이 무지함을 깨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 드렸다.

산위에 오르니 오손도손 모여있는 마을이 도시의 소란함을 모르는 채 그림과 같은 평화스러운 정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평화스러운 정경 이면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존재하는 슬한 슬픔과 고통, 절망, 죄악들이 담겨있으리라고 인식되자 마음이 조금도 평안하지 못했다.

피곤한 몸으로 이제 2~3 시간을 걸어 교회까지 걸어 돌아와야 하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과의 “하나님께서 차 한대만 보내주셨으면”하는 대화가 끝나고 얼마되지 않아 소형 트럭한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순간 모든 대원들의 말없는 기쁨의 싸인이 전달되고 여자 집사님들까지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데도 거뜬히 트럭 위에 올라 앉았다. 곧 이어 기쁜 찬송이 시원한 저녁바람을 타고 저쪽 산아래까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간간히 얼굴을 스치는 잎사귀들을 날리며 하나님의 대사들을 실은 트럭은 단숨에 신월리 마을로 들어섰다.

V.

어느때처럼 아침식사후 암으로 앓고 계시는 전경열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합심기도를 한 후 오늘은 작별인사를 드려야 했다. 첫날보다는 한 걸 밝아지신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아프시기 이전에 믿는 사람들을 많이 뵈었다하기에 그때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지금은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겸손한 모습 밖에는 볼 수 없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큰 믿음 가지셔서 속히 병도 완쾌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는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문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첫날부터 줄곧 우리 대원들을 따라 다니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9살난 소년과도 오늘은 작별인사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았다. 친구들이 안 놀아 주니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와서 종일 놀고, 자고 하는 그 어린이가 너무 측은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누구나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 듣지 못해도 마음으로 알도록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었다. 낮엔 물고기를 잡아 주겠다고 신월리 마을에서 한마디 했다가 계속되는 전도일정으로 시간이 없어 잡지 못했던 지난 이틀동안 대원들의 밧발치는 박해를 받아오던 김양래전도사님께서 “드디어 고가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돌아오더

라"고 하시며 고기를 잔뜩 잡아와서 매운탕을 맛있게 먹고 제 4 대에 까지 보내드렸다. 밤엔 교회당의 반 정도를 매웠던 첫날과는 대조적으로 교회당 안을 가득 채운 성령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날 부흥집회를 마치고 새벽 2 시까지 다과와 찬양 및 간증순서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폐회에배 후 새벽 2 시 30분에 사모님께서 밤새 준비하신 식사와 옥수수 등을 들으신 강진도사님과 대원들의 집을 지신 신현교회의 여집사님들과 함께 신현교회를 출발하여 까만 길을 후레위로 비취면서 정선역까지 걸어 나왔다.

까만 어둠속에서 철로길을 한칸 한칸 밟으며 걸으니 지난 5 박 6 일 동안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신현교회 교인들과 대원들간의 사랑의 교제들이 하나 하나 회상되어졌다. 교회 집사님들께서 매일같이 밭에서 방금 딴 옥수수와 토마토를 끊이지 않고 갖다 주시던 일, 돌아가며 식사대접을 하시던 일,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시며 대원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던 일, 그리고 사모님의 정성어린 대접과 신선한 채소들로 만드신 그 요리 솜씨와 식사 후에 모여 앉아 설겜이 하던 일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낮엔 유난히 열심으로 전도하시다가 저녁 설교시간 때면 안경너머로 지혜롭게 조시는 김양래 전도사님을 또 지혜롭게 잠을 깨우시던 이승근 목사님의 유-머와 그 유-머로 인해 잠이 쫓아지는 매일 밤 평가회 때마다 간간히 한바탕 웃음으로 인해 모든 피곤을 잊곤 하던 일, 사모님께서 여성들의 부지

런함과 사랑의 넘침을 칭찬하셨을 때에 큰 기쁨하시며 우쭐해 하시던 김정화집사님의 그 야릇한 표정에 한동안 그칠 줄 모르고 웃어대던 일, 특순 준비를 위한 율동연습 때 유난히 방력이 없어 고심하던 오형국 형제님의 율동과 그에 반해 싹싹하고 폭이 크다고 목사님께 꾸중들었던(?) 교숙이 언니의 설겜이 체질이나, 그리고 유난히 개를 무서워하던 내가 개만 보면 남모르게 식은 땀 흘리며 기도하던 일이나, 너무 먹어 미스, 토마토라고 놀림 받던 일... 그 모든 일들, 모든 분들이 화사한 기쁨 속에서 되살아 났다.

IV.

새벽기운 속으로 찬양 가득한 서울 패거리들을 실은 기차가 달리고 있다.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북을 전하고, 사랑을 심고, 찬양하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 먹으며, 오염되지 않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숨기워진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무진 애쓰심을 측량해 보며 우리의 할 일들을 다짐해 보고, 그리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아픈 마음 느끼고 사명을 굳히게 되곤 하던... 그 모든 것들의 여운을 그대로 잔잔한 채 기차는 어느새 강원도를 벗어 나서는 분주한 도시 속에서 더 많은 선교의 일을 위해 신앙, 인격, 사명을 준비하는 일을 다시 계속하라는 재촉과 함께 서울을 향해 계속 계속 달리고 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충현의 모든 성도는

어린이로 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으며 똑같이 힘써야 합니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가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교회 전체나 각 지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25년전 오늘의 중현교회당을 지을때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마음과 힘을 합쳐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교 숙 (중등부교사)

● 주님, 부르심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거 선교 훈련으로 불러 주시어 일생에서 가장 귀중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 안에서 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저희로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배풀어 주신 그 놀라운 자연 속에서 말씀과 거도의 생활 속에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한사람 한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도 짧게 느껴졌던 1주일간의 선교훈련, 꺾어진 시간 속에서 하루 한 두시간의 수면 가운데도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생활을 온통 뜨거울 사랑 속에, 너무도 강렬한 심령의 불길 속에, 거도의 불길로, 말씀으로, 모든 의심을 깨쳐 버리고 확신과 믿음과 소망으로 이전의 나약하고 소극적 인자가 아닌, 담대함과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온 목소리를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음성,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리라.

● 주의 인도하심 따라 - 어둠속에서의 행군

8월 4일 오전 10시 20분 청량리역 출발. 모두들 등에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입주의 여지없는 좁은 공간 속에서 긴 시간을 서 있으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득찼다. 차창 밖에 보이는 자연을 통하여 딱딱한 도시의 풍경에 굳어버린 눈과 마음은 경이와 찬송만이 울려 퍼진다.

열심있는 전도인의 모습 - 안권사님, 허집사님, 유집사님, 김집사님의 능력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적인 신앙간증을 통해,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청년과, 사고로 다리를 다쳐 먼 강원도에서 1주일마다 서울 한양대 병원으로 치료 받으시는 아저씨를 전도하였다. 갈급한 심령과 애타는 그들의 눈빛과 열심히 말씀 들으시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왜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치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게해 주셨다.

증산에서 내려 여량행 기차로 갈아 탔다. 서로 마주보게 좌석이 배열된 기차 속에서 찬송과 울동이 힘차게 울려 퍼진다. 승객들의 휘둥그레진 모습, 부러움과 호기심과 놀라움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본다. “주님,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열게 하소서, 주께로 인도하소서.”

오후 6시 15분 여량 도착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모세, 이삭야, 다니엘, 베드로, 요한, 바울의 코로 나뉘어 2열 종대로 줄서서 북한선교 훈련원으로 향하였다.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산, 들, 강, 구름, 하늘, 맑은 공기, 옥수수밭, 다리, 땀을 뻘뻘 흘리며 전전, 서울에서 집을 싣고 오던 트럭과 만났다. 대관령을 넘다가 폭 고랑에 빠졌으나 주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험한 등산길, 트럭에 싣고 온 쌀, 부식, 천막, 그릇...등 모든 것을 져 날라야 한다. 1전 2전 3전으로 나뉘어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체중보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나아간다. 먼저 출발했던 1전이 보이지 않는다. 산등성이에 올라서니 두 갈래 길이다. 길을 알 수 없다. 이미 망겨미가 지기 시작하여 앞을 분간하기 힘들다. 비는 계속 내린다. “할렐루야!” 온 산을 향하여 불렀지만 빈 메아리 뿐. 과연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남은 우리는 함께 모여 나아가야 했다. 겁주는 말씀 “여가 호랑이도 나온다” “야! 거기 전기가 들어 간 태지, 전봇대를 찾으면

되겠구나” 어스름을 해치고 진땀대를 향하여 나아갔다. 킁킁하여진 산길, 울퉁불퉁 자갈길, 발이 아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 오른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 그 아픈 심정 어찌 헤아리요. 힘껏 자란 풀이 길을 덮어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길을 나아간다. 완전한 어둠 속, 이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한다. 비는 더욱 세게 내린다.

이제부터 양쪽에 수십길 낭떠러지를 걷 가장 위험한 코스란다. 다시 정령은 가다듬어 3진과 합쳐 나가기로 했다. 한참을 기다렸다. 북한선교 훈련원에 계시는 최전도사님께서 나오셨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길 기도하며 나간다. 희미한 후레쉬를 등대 삼고, 예민한 지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나간다. 모두 바짝 붙어 좁은 길을 100kg의 대형 텐트와 베낭을 짊어지고 “왼쪽 낭떠러지, 오른쪽 바짝 붙어.” “어제부터 언덕길” “미끄러운 진흙길” “오른쪽 조심” 계속 주의가 전달 된다. 등에 짊어진 베낭의 무게가 하나도 느껴지지 아니한다.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릴 뿐이다. 1시간 반의 숨막히는 행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평온하고 담대하였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밤 9시30분 무사히 훈련원 도착. 먼저 오신 분들이 반갑게 맞아 주셨다. 마지막으로 떠나신 유전도사님과 두분이 아직 소식이 없으시다. 어둠 속을 헤매어갈 새 분을 위해 합심 기도, 꼭 우리에게로 나아오시리라. 가지고 온 천막을 쳐서 남자 숙소로 정하였다.

● 말씀 · 기도 · 성령 · 사랑 · 은혜 충만의 날들

꼭 짜여진 일정 5시 기상, 5시~6시20분 새벽기도회, 6시30분~7시30분 행군, 채조·세면, 7시30분~8시30분 아침식사, 8시30분~9시 휴식, 9시~10시30분 제1 성경공부, 10시30분~10시50 코이노니아(티타임), 10시50분~12시20분 제1특강, 12시30~13시30분 점심식사, 13시30분~14시30분 채육대회, 14시30분~15시 휴식, 15시~16시30분 제2특강, 16시30분~16시40분 휴식, 16시40분~18시 제2 성경공부, 18시~19시 저녁식사, 19시~19시40분 찬양시간, 19시40분~21시 저녁 부흥회 및 간증, 21시~22시 조별 기도회 및 반성회.

● 너무도 풍성했던 말씀들

특별히 보내주신 세 분 전도사님의 각기 다른 개성과 조화 속에 너무도 풍성한 말씀을 먹었다. 차밀하게 구성된 에베소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통일, 성경적 교회관, 이상적인 한국교회의 미래상에 대하여 배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엡 2:20~22)

성경해석학 시간에서의 예수님의 성경해석 방법과 성막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짜임새있는 조직신학-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축복받는 길, 신자의 윤리지침, 영혼의 진단서 등과 영해를 통해 깨달아 지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선교와 수도원제도에서 장점과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배웠다. 지금까지의 희미하게 와 부딪히는 말씀이 살아 의미를 말해 준다. 자신의 좁은 머리, 작은 지식, 얕은 경험에 의지하며 살았던 자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셨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12) 사랑과 인내로 너무도 보잘 것 없는, 허물과 죄로 덮힌 나를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태어남에서 죽 지금까지의 나의 생이 주께서 항상 보살피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나의 교만, 욕심, 이기, 고집 욕심에 속한 모든 것 사도 바울과 같이 “쳐서 저를 복종시키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정제 하소서.” 텅 비인 저를 드립시다. 주께서 들어 오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포도나무의 한 가지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가장 미완한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설리가 있으심을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일생동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기뻐 보아주시는 사람되기 원합니다. 중심을 보아 주시고, 일생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 어둠 밤-기도로 하나된 우리

갑작한 어둠 속, 모래 사장 위에서의 조별 기도회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합심 기도, 하나님을 통한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 형제보다 더욱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자유함의 기쁨,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거 원하면서 내놓은 기도 제목, 선교사로서의 준비과정과 훈련, 선교사 자녀를 도우기 위한 기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의 기도, 중공 선교에 대한 기도, 반려자를 위한 기도, 우리의 낱알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 안에서 기도하여 우린 연합되어 갔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밤 2시 조금도 피곤치 않다. 그 크신 주의 뜻을 헤아리길 부족하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더욱 기도해야 한다. 서로를 기도로 연결시켜야 한다.

● 멋지고 즐거운 식사시간

조별로 성경 말씀 암송 후 조별 식사시간. 모래 사장 바위 위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강이 흐르고, 동굴이 있고, 금강산 같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의 식사. 때에 따라 너무 맛있는 음식을 차려 주신 최전도사님 사모님, 임선생님, 집사님, 김전도사님 그동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 주의 성전을 튼튼히-멋진 안타 날리다

어린이 같은 해맑은 미소와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모세-베드로의 발야구. 활기찬 베드로를 모세 할아버지께서 도저히 당해 낼 수 없었다. 박진감 넘치는 피구, 구약팀이 패기에 찬 신약팀을 이길 수 없었다. 아마 구약시대엔 그런 게임이 없었으리라. 모래 사장 위에서의 달리기, 베드민턴, 주먹야구, 상쾌한 아침 체조, 밝은 합성, 우렁찬 응원소리 울려 퍼진다. 아마 천국에서의 체육대회 날인가 보다. 주님의 전인 성전을 더욱 튼튼히 깨끗이 청소하리라.

바닥에서, 한기가 스며드는 그 곳에서 영적 부유함을 느낀다. 그동안 막혔던 담을 허물고, 각 지체로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리라. 시간이 넘치도록 말씀 증거하여 주시는 열정적인 전도사님의 강의 모습. 마음 속에서 통회하며 아뢰는 우리의 기도. 장막인은 뻑뻑히 들어선 90여명의 "아멘"의 열기로 뜨겁다. (주님의 은혜 속 유전도사님과 두 분 어둠 속에서 지척을 분간치 못하여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 새벽에 출발 무사히 만남)

● 주여! 이제 이곳을 떠나갑니다.

너무나 은혜로왔던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짧은 순간들,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던 자연의 모습을 머리 속에 영구히 간직하러 둘러 보았다. 살아있어 주님의 음성을 대담해주던 병풍 같은 절벽, 우리의 식수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었던 강물. 너무나 추위 초가을을 느끼게 했던 이곳의 날씨. 그 모든 것들.

이 날따라 비가 뿌렸다 맑아졌다 한다. 떠남의 아쉬움, 그러나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듯이.

주위 정리정돈 우리의 처음 도착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은 감히 "자연 보호"란 교만으로 은폐하려 한다. 빠른 저름길로 가거위해 남자분들이 오랜 작업 끝에 나무를 잘라 서로 얹어 다리를 만든다.

물살이 새어 살개. 꿈에 그리던 동굴 탐사 아쉬움은 내년을 위해 남겨 두어야 했다. 주먹밥 도시락 준비

8월 8일 오후 2시 출발.



〈하기선교 훈련시 한장면〉

최전도사님 내외분, 수고하시던 집사님 두분, 그 동안의 정에 눈시울만 붉히며 감사하다는 말 밖에 하지 못했다.

● 여랑 교회를 향하여

어둠 속에 숨기어졌던 처음 오던 길의 낭떠러지가 환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날 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빛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와 산에 오른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 24: 1~4)

4시30분 여랑교회 도착. 김목사님 내외분의 보살핌 속에서 하루밤 보냄, 계속 특강, 공부, 설교, 장소를 옮기니 목선이 약하여 모두 앞드려 잘다. 새벽 3시 거상. 새벽 기도회.

8월 9일 아침 7시 서울로 출발.

● 서울을 향하여-세상을 향해 나아 갑니다.

말씀·기도·성령·사랑 충만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삼킬 만한 거개로 십자가 군병 나아갑니다. 기차 속에서 만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찌 그리 가련하게 보이는지, 입을 벌려 전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한 불들림 속에 끊임없는 찬송이 울리구나. 주 안에서와 참 평온과 기쁨, 누구도 부럽지 않다. 기차 속에서와 멋진 식사, 플랫폼에서의 힘찬 찬송과 울동에서 기뻐 춤추던 다윗의 심정을 헤아릴 것 같다.

이제 처음 출발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

제는 완전히 변화한 우리의 모습이었다. 소극적 그리스도인에서 적극적 그리스도인으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일체가 된 우리. 잠시의 헤어짐도 용납할 수 없으니 만큼 가슴 아팠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혼 구원, 가정의 행복, 평범한 삶에의 만족에서 벗어나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작게 가졌던 꿈을 크게 주 안에서 세우립니다. 젊은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 보라. 각 처소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능력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방패 삼아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은 세상 위하여 일 시작하오니 만 백성 나와서 주 음성 기다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리까.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리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찬 406)

찬송을 크게 불러 본다.

□ 찬송가 감상 □

우리 주여 목자되어서

〈새 594〉

우리 주여 목자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각부 주일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시되었다. 수 많은 어린 영혼들이 방초 동산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땀흘리며 수고한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살진 꼴로 배불리 먹으며 천국 일꾼으로 한층 더 힘있게 자랐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주와 연합한 어린 양들을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어디 그 뿐이랴. 아직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무리들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마 이같은 심정으로 이 찬송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3절)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받으셨다. 아니 죄많은 우리를 받으시고 구원하시지 않으

셨는가. 할렐루야! 이 은혜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이 크신 권능 또 다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직 주께…… 주께만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은총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조용히 이 찬송을 불러 보자.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라고

이 찬송은 내림마(E^b Major) 장조로 되어 있는 찬송으로 조금 빠르게 불러야 한다. 그리고 이 찬송은 영국 찬송으로 작시자가 확실치 않으나 트윈(Dorothy A. Thrupp)양의 찬송으로 알려졌고, 윌리엄·브래드베리(William B. Bradbury)가 작곡하여 1859년부터 주일학교용 찬송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김 하 진 목사

주의 의와 구원을 내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조 준 상 전도사

(국내 전도 담당, 선교부 부지도)

1. 전도대 운영 개요

“민족 복음화”라는 총현의 5대 목표중 하나를 실천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종일 전하리라”라는 주제를 내걸고 강원도 일원에 전도대 일꾼대를 파송하여 많은 결실을 가지고 돌아왔다.

강남 논현동에 지어지는 새성전에 나가 펼쳐질 내일에 우리의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때보다 파송되는 전도대를 강화하여 보냈다. 전임 구역진으로 구성된 지도자에게는 말씀 선포에 주력을 기울이게 하였고 부지도를 중심한 교역자에게는 전도 전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해당 교회 형편 따라 전도대를 운영케 하였다. 그 결과 다른 때에 파송된 전도 대보다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었지만 두드러진 것은 꼭 안정되게 내실을 기하면서 착실히 운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제 내일에 주어지는 일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 과정, 실천, 평가 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준비계획

1) 파송지역 사전 장소 답사

유능한 의사라면 정확한 진단에 정확한 처방을 내린다. 이처럼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파송되는 대상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파송하면 반드시 파송될 지도 교역자와 장소 답사를 가서 교회 현황과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정확한 전도대 운영을 계획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잘 실천 되지 않아 참으로 아쉽다.

내년에는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전도 대원 사전 교육

먼저 지도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전도교육이 있었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많은 교역자들이 참석치 못하였고 정작 파송임원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훌륭한 강사에 훌륭한 강의였지만 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도 대원의 교육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의 답습 과정으로 운영이 된 것 같다. 차라리 전도 실시에 필요한 4명이나 글 없는 책을 많이 연습하는 시간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과 대원 침묵을 위한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생각 된다.

3) 전도대 조직

지도 교역자는 전임 교역자로 하여 매시저 전담하게 하고 부지도 교역자는 전도에 전념케 하며 대장과 대원에게는 각과 임무를 부여하게 하여 문제는 그 일 맡은 사람이 적체적소에 배정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3. 전도 실시 결과

	파송지역	지도 교역자	집회 출석수	결신자	특 기 사 항
1대	강원정선 신원교회	이승근 목사	평균 90명	36명	이교도가 회심하고 돌아왔다
2대	강원인제 서원교회	김석원 장도사	평균 70명	19명	환자집과 주로 심방 전도 결신함
3대	강원인제 부원교회	남성호 장도사	평균 50명	16명	불교신자가 많고 관 광지역으로 앞으로 발전지역임
4대	강원정선 결신제일교회	조준상 전도사	평균 300명	44명	막 16: 15~18원 기사, 기적 일어남
5대	강원영주 학산교회	최봉호 전도사	평균 60명	18명	자립교인 육성교육에 중점을 둠
6대	강원정선 교양교회	안석렬 전도사	평균 70명	87명	자립교육에 중점
7대	강원정선 봉정교회	김중석 목사님	평균 50명	38명	제직 훈련에 중점

4. 평가회 건의 사항

1) 전도대 자체 건의 사항

① 대장은 집사 이상이나 경험이 풍부한 남대원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② 지도교역자는 팀원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요청한다.

③ 사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별 기도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2) 전도 실시에 관한 건의 사항

① “인사의 말씀의 글”은 일주전에 해당 교회 교역자가 소개하는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② 전도지를 해당 교회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③ 문맹이 많으므로 글을 가르치는 교육도 필요하다.

④ 전도대 편성시 하기학교 제적훈련 기타 전체적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사 배정이 요구된다.

⑤ 4영리 전도보다 글 없는 책이 오히려 글 모르는 사람에게 이상적인 것 같다.

⑥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개인 전도에 더 효과적인 것 같다.

⑦ 토속 신앙을 좀더 연구하여 구체적인 전도전략이 아쉽다.

3) 기타 건의 사항

① 철따라 일시적인 전도 붐이 조성하는 데만 그친 전도전략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자립적인 전도대략 수립이 시급하다.

② 대원들이 자신있게 전도에 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도 훈련 실습이 철저히 요구된다.

5. 효과적인 농어촌 전도에 대한 나의 제안

이상의 사실을 미루어 보아 효과적인 농어촌 전도 전략에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첫째로 어떻게 파송하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단하느냐 하는 것이며,

둘째로 파악한 형태따라 알맞는 전도 대원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는 점과,



〈금년도 7대로 땀을 흘리며 수고했다〉

세째로 전도 파송대에 결실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결실하도록 육성 자립하는 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첫째로 통일된 농어촌 전도 전략을 집행할 수 있는 획일적인 행정의 뒷받침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북한 선교회 차량선교회를 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교역자와 평신도 훈련을 하고 있고 개척전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 전도대를 파송하여 민족 복음화와 북한 선교회를 하고 있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1차 북한선교회 차량 선교지 자세한 파송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개척 가능 지역을 타진하며 2차로 그 교회 교역자와 평신도를 초청하여 훈련시키고 난 다음 3차로 농어촌 전도대를 파송하여 전도하여 결실한 성도를 자립 육성하도록 하면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농어촌 교역자 평신도 훈련은 교회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전도 훈련 학교를 전도 위원회 산하에 두어서 전도대원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새 성전에 가면 많은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전도대원 육성이 긴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큰 교회답게 전도 전략과 알맞는 전도교제와 육성안과 그리고 훈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비단 농어촌 전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그리고 하루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위의 제안이 반드시 실현되었고 좋은 결실이올 것을 확신하며 제안한다.

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교훈한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도가 믿음을 충실히 지키려면 위협과 킁박이 반드시 따르리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갓세 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가롯 유다와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다. 이때 그의 제자중 한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 뜨렸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 26:52)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가 얼마나 폭력을 억제하고 평화를 원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

2. 전쟁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그렇다면 기독교는 전쟁과 평화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제 이 문제에 관하여 간단히 요약해 보려고 한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세계의 통치자이심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신비하고 악의 문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선을 위한 것이지 악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은 확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쟁으로 인한 대량 학살과 재산의 파괴, 그리고 전쟁 후에 지속되는 육체적, 사회적 죄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을 유발시키는 악한 감정과 전쟁중에 일어나는 비극들이 날이 갈수록 그 양이 늘어가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시대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전쟁의 모든 결과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임을 깨닫고 전쟁을 이 땅위에서 물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공의를 나타내시는 무서운 분이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슬릴 경우에는 정죄하시는 분이시다. 만약 어떤 사회나 국가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나라나 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고, 경제적 탐욕과 집권욕, 인종적인 편견, 복수심, 자만등을 계속한다면 결과는 전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에 전쟁을 저지시키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치 않다. 전쟁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만으로도 납득이 잘 안된다. 왜냐하면 전쟁중에는 악한 사람과 함께 선한 사람들도 같이 참변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육체적 질서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사회적 질서, 그리고 이웃을 돕는 선한 사람을 요구하는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신다. 그러나 그 안에는 환난과 재난이 계속되며 고난과 죄악이 그칠 줄을 모른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여 부패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를 받은 인간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인간에게 이 자유가 없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은 주신 자유를 남용할 수도 없다. 다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망각하는데서 전쟁은 일어난다.

세째,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자기 국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최고 통치자이시며, 그의 뜻만이 인간이 따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양심의 결단에 따라 가끔 정치적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사람에게 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행 5:29)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 위에 인류가 있고”(Above all nations humanity) 모든 인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Above all humanity is God)는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사상에서만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을 떠나 평화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속죄자이시며 아버지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천밀감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되며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 그가 속한 인종이나 국가, 그의 정치적, 경제적 견해의 차이, 그리고 그의 계급과 문화등의 차이 여하를 막론하고 다 같이 하나님앞에 고귀한 인격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땅에 전쟁없는 평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선교월보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 서 만수선교사외 가족3명

1. 내방인사

- 1) 빠르미딘목사 내외(동부자바 마디운) 7월 5일 교회당 건축 보조 청원차
- 2) 빠르미딘목사(동부자바 뎀뿌르사리사역자) 7월 11일 현지사역 협의차
- 3) 스프라도목사 내외(중부자바, 쏘로) 7월 12일 부흥회 집회 인도 청원차

2. 창립 8주년 기념예배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창립 8주년 예배를 7월 6일 임마누엘교회당에서 드린다.

3. 여름어린이 성경학교

80년도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88명 참석하여 한승인선교사를 특별강사로 모시고 열렸다.

4. 건축비 송금(7월 16일)

- 1) 뿌차왕이 교회(파송번호 7번) 건축비중 \$170을 송금
- 2) 두구팔릴교회(파송번호 11번) 건축비중 \$360을 송금

5. 새 사역자 파송

파송번호	지 역	사역자	지 위
3	틀로고모조	스와르소	전도사
19	우넵	얄민	"
20	세다유	까르노	전도사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사역자는 모두 20명이나 된다.

6. 오지사역 현황

파송번호	지 역	사역자	결 신 자
1	빠데안	수꼬요	아동 1명
4	수꼬레조	얄민	아동 2명
5	뎀뿌르사리	빠르대잔	장년, 아동 각 1명

6	룸봉마스	요욕	2명	새배
7	뿌차왕이	스와디	장년	1명
9	무대한	엘리오	장년	3명
13	뿌충	요나탄	장년	2명
18	숨버레조	뿌리바디	장년	2명

* 기도제목 *

1. 부교역자 파송을 위하여
2. 오지사역자 30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홍콩 - 홍 종만선교사외 가족 6명

1. 홍콩한인교회의 교포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운영 방침 수립
2. 7월 7일 중국에 한글성경 1,000권 전달(상해 200권, 심양 400권, 할빈 400권)
3. 인도네시아 선교현금 송금
4. 아시아선교회에 선교현금 전달
5. 마카오교회 보조비 전달
6. 한국학원 여름학교 개교(2주간)
7. 홍콩한인교회 여름성경학교 개교(7월 28일부터 8월 1일 교사 20명, 학생 130명 참석)
8. 중국방송선교비 영업택목사에게 전달
9. 홍종만 목사 사모님 8월 19일 임제로 출국

* 기도제목 *

1. 부교역자 선정을 위하여
2. 중국선교를 위하여

애굽 - 이 준교, 김신숙선교사외 가족 모두 6명

공한미착

* 기도제목 *

1. 두 선교사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2. 애굽선교의 장래를 위하여

서독 - 육 호기선교사의 가족 3명

1. 제 4 회 평신도주양회 개최 (7월 14일 - 18일) 세 교회가 연합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라는 주제하에 58명이 참석.

여름어린이 성경학교도 함께 개최하여 한국어반, 영어반, 독일어반으로 나누어 성경과 찬송들을 배웠다.

2. 비스바덴교회는 7월 둘째주간에 대집방을 함
3. 8월 4일 ~ 9일까지 유럽복음화대회 예정

* 기도제목 *

1. 자체교회건물을 갖도록
2. 선교사님의 온 가족의 영육의 강진을 위하여

호주 - 김태현선교사의 가족 4명

1. 창립 7주년 기념예배를 7월 6일 드림
2. 선원선교활동을 전개하여 한국선원들에게 신문, 신앙잡지 등을 수집하여 선원 클럽에 비치하였음
3. 7월 19일 한호회 모임에서 주교어린이들의 악기 자량이 있었음
4. 8월중 이사 예정

* 기도제목 *

1. 멜본한인교회의 부흥과 김선교사의 가족을 위하여
2. 태평양선교의 기지가 되도록

아르헨티나 - 백 성룡선교사의 가족 4명

1. 재아중앙교회는 현재 부흥일로에 있음. 주일 평균 250여명 회집함
2. 교회대표 정식 등록하여 증서받음
3. 현지인 접촉 가능한 대학생들을 위해 전도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 기도제목 *

1. 계속적인 부흥을 위하여
2. 남미선교를 위한 계획을 위하여

일본 - 유병세평신도선교사의 가족 4명

1. 하기 휴가자 유선교사는 일시귀국하였다가 8월 23일 임지로 출발

* 기도제목 *

유선교사 내외분의 건강을 위하여

서독 - 박용삼평신도선교사의 가족 2명



〈스리나가르에 있는 겐간선교사의 집〉

1. 지금 가장 어려운 단계의 논문을 쓰고 있다 한다.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려고 함

* 기도제목 *

1. 박선교사에게 지혜와 건강을 달라고
2. 앞으로의 선교활동을 위하여

인도 - 엘리아 겐간선교사

1. K. E. F 재정 결산을 위해 뉴델리에 다녀옴.
2. 라다크의 중심도시인 레호에 가서 평신도대회에 1주간 참석함
3. 7월 2일 오랜만에 개최된 랍나가르교회에 참석 예배를 드림
4. 남인도의 방갈로에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신학회의에 참석
5. 한국에서 부친 타이프라이터와 우송물들이 모두 수사히 도착된 데 감사를 올림

* 기도제목 *

1. 겐간선교사의 영육의 강진을 위하여
2. K. E. F의 선교 활동을 위하여

본부 - 해외복음선교회

* 기도제목 *

1. 파라과이 교역자 파송을 위하여
2. 칠레 교역자 파송을 위하여
3. 당회장목사님의 선교여행을 위하여
4. 선교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7 월 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 지구

동대문구역	김명숙	종로구충신동 1 - 46, 3/4
청량리①구역	신복순	동대문구 청량리 2 동 214, 26/4
도봉 ③ 구역	이강자	도봉구 도봉 2 동 149 - 36, 27/2
우이 ① 구역	김혜원	도봉구 쌍문동 423 - 9, 1/2
송인 ② 구역	서효석	종로구 송인동 15 - 7
창신 ② 구역	김덕현	종로구 창신동 616 - 2, 21/1
창신 ② 구역	이숙자	종로구 창신동 582 - 18, 3/2
도봉 ② 구역	최영희	도봉구 도봉동 146 - 5, 17/3
미아 ① 구역	김형철	도봉구 미아 4 동 4 - 64, 26/1
장위 ① 구역	이순임	도봉구 월계동 289 - 5, 32/5
종암 ② 구역	신인숙	성북구 종암 2 동 3 - 311, 17/4
미아 ① 구역	김 준	도봉구 미아 4 동 미아아파트 7 동 202호
청량리①구역	정경임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APT. 6 동 1210호
상 계 구 역	백오범	도봉구 공릉동 634 - 5, 33/4

● 2 지구

왕십리구역	유혜원	중구 신당 7 동 28번지, 1/5
망 우 구 역	피윤숙	동대문구 망우동 202 - 9, 22/3
망 우 구 역	이학자	동대문구 상봉동 84 - 57
도 선 구 역	김이석	성동구 홍익동 302 - 7, 9/2
군 자 구 역	김현기	성동구 능동 166 - 2, 13/3
구 의 구 역	안진희	성동구 구의동 산 99 - 27
석 관 구 역	신입교	성북구 석관동 320 - 31, 18/10
광희문②구역	박복래	중구 호장동 181 - 1, 27/5
면목 ② 구역	강옥련	동대문구 면목 6 동 299 - 2
자양 ② 구역	이복형	성동구 구의동 451 - 152
전 농 구 역	양옥숙	동대문구 전농 1 동 651 - 30, 23/1
쌍림 ④ 구역	박경희	중구 쌍림동 3가 34 - 5
쌍림 ④ 구역	일일순	중구 쌍림동 3가 34 - 5
이 문 구 역	김덕희	동대문구 이문동 256 - 262, 13/4
답십리구역	최희경	동대문구 답십리 3 동 465 - 30
쌍림 ① 구역	서석진	중구 장충동 2가 159 - 1
길 동 구 역	이금진	
행 당 구 역	최 옥	성동구 행당동 115 - 10

● 3 지구

약수 ① 구역	이재식	중구 신당 3 동 372 - 469, 8/5
약수 ① 구역	김남일	도봉구 쌍문 1 동 315 - 235, 32/5
금 호 구 역	김연홍	성동구 금호 3가 547, 7/4
장충 ③ 구역	이소록	중구 목정동 22 - 15, 14/5
성수 ① 구역	조혜진	성동구 성수 2가 269 - 6
강남 ① 구역	서인순	강남구 서초동 342 - 4, 2/4
장충 ④ 구역	김종률	중구 목정동 32 - 22, 14/2
약수 ① 구역	임보선	중구 신당 3 동 373 - 126, 6/4
강남 ② 구역	민조식	강남구 서초동 삼호APT. 6 동 404호
금 호 구 역	동권일	중구 신당 2가 349 - 2, 5/3
강남 ② 구역	김창근	강남구 서초동무지개APT. 1 동 408호
행 당 구 역	이양옥	중구 광희동 182 - 13
시영 ① 구역	윤관선	강동구 잠실 4 동 진중APT. 6 - 706
잠실 ① 구역	김종원	강동구 신천동 204 - 3
장충 ② 구역	한애현	중구 장충동 2가 193 - 170
논현 ① 구역	오정화	강남구 논현동 30 - 15, 17/7
시영 ① 구역	심태숙	강동구 잠실 4 동 시영APT. 140 동 303호
도곡 ③ 구역	김춘권	강남구 도곡동영동APT. 36 동 501호
도곡 ③ 구역	한정수	강남구 도곡동영동APT. 10 동 506호
이태원 구역	정경국	용산구 이태원동 537

● 4 지구

염 리 구 역	정순금	마포구 노고산동 197, 11/3
염 리 구 역	김숙경	마포구 공덕동 188 - 11, 8/2
상도 ① 구역	오세순	강서구 상도 4 동 279 - 358, 1/1
상도 ① 구역	함상근	관악구 상도동 784 - 1, 16/1
상도 ② 구역	김하숙	동작구 상도 1가 398 - 1, 14/5
용 산 구 역	심능도	용산구 용산 5가 19 - 297, 18/3
인현 ① 구역	신계순	중구 인현동 1가 125
필동 ⑤ 구역	박기식	중구 필동 3가 27 - 28, 7/2
필동 ⑤ 구역	김옥순	중구 필동 3가 27 - 28, 7/2
필동 ① 구역	이호준	중구 필동 2가 84 - 57, 1/4
쌍림 ③ 구역	임무남	중구 행당 3 동 322 - 62, 3/5
청 파 구 역	정영태	용산구 청파동 2가 55 - 1, 5/1
필동 ④ 구역	이광석	중구 필동 2가 106 - 8, 3/2
방 배 구 역	이호일	강남구 방배동
반포 ② 구역	이수영	강남구 반포동주공APT. 214 - 204
회 현 구 역	고영숙	중구 남창동 62 - 16, 희미용실
신림 ② 구역	김광길	관악구 신림 8 동 산 202 - 2, 미도APT. 15 동 205호
진 양 구 역	김유진	중구 충무로 4가 125 - 1, 진양APT. 2 동 1021호
사당 ① 구역	김성욱	관악구 사당동 산 31 - 3 종신기숙사 406호
필동 ⑥ 구역	김영혜	중구 필동 3가 79 - 4

● 5 지구

역촌 ① 구역 이정하 은평구 역촌동 42-21
 구로 구역 김병규 영등포구 문래동4가, 6/7
 종로 구역 박태숙 종로구 익선동 1/8
 을지 ② 구역 박태진
 중무 ② 구역 김용남 중구 충무로5가 20-5
 을지 ② 구역 강명진 중구 을지로4가 석화당
 화원 구역 김효심 중구 충무로4가 51-4
 화원 구역 김진화 중구 인현동2가181-14, 2/7
 홍은 ② 구역 김용대 서대문구 홍은2동 292, 13/21
 을지 ② 구역 권영숙 중구 을지로5가 92-1
 종로 구역 김소옥 종로구 예지동 106

을지 ② 구역 이은배 중구 주교동 25번지
 종로 구역 전정화 종로구 예지동4가 203-503
 망원 구역 송명익 마포구 합정동 382-12, 13/1
 중무 ② 구역 김원남 중구 충무로5가 36-3, 12/1
 호자 구역 송정립 종로구 누상동 134
 공랑 구역 김은경 강서구 마곡동 405-45, 8/2
 오장 구역 박세후 중구 을지로4가 187-3
 청운 구역 김창선 종로구 평창동 445-4
 오장 구역 이채옥 중구 예관동 29-4
 응암 ① 구역 손정자 은평구 신사동 237-184
 불광 구역 김옥화 서대문구 녹번동 104-7

□ 권찰수첩 □

심방에 대한 재인식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위원장)

“심방”하면 심방을 하는 자만이 그 자세가 확립되어 있으면 될 것과 같이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심방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마는 심방을 받는 자의 자세 역시 중요한 것이다. 도리어 심방을 받는 자의 자세 여하에 따라 심방의 효과를 얻는 확률이 많은 것이다. 가령 심방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다면 그 심방의 효과는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심방하는 자나 심방을 받는 자나 모두 그 자세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1. 심방하는 자의 자세 확립

심방에 대한 성경의 용어에서 심방하는 자의 관심을 보여 주고 관계를 맺는다는 뜻도 있지만 “돌보아 준다.”는 뜻이 더욱 크다. 마25:36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와서 보았느니라” “방문했나니” 하는 말이니 심방하는 자는 반드시 “돌보아 준다”는 이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기서 참으로 심방을 받는 자의 형편을 돌보아 줄 때 심방하는 자는 「주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가셔야」한다는 이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위로의 말을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야 한다. 그러므로 심방을 하기 위해서는 심방하는 자가 항상 자기를 부정하고 주 안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2. 심방을 받는 자의 자세 확립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병든 자나 불구자, 기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 갔었을 때 그들은 모두 중심에서 그 어떤 장애나 어떤 자의 만류도 무릅쓰고 주님을 영접하여 들어서 큰 축복을 받았다. 이와같이 주의 사자들이 심방을 왔을 때 주님을 영접하듯이 맞아 들어야 한다.

그럴 때 거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간상이 이룩될 것이다.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3. 성도들은 모두가 심방하는 자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마25:36- 주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은 주의 성도들은 그 누구나 다 “병든 자를 돌보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니라” 이런 자가 되어서 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 성도들은 이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교회의 질서를 지켜 온 교인들이 심방꾼이 되어야 한다. 물론 사명을 지닌 권사님들이나 권찰님들은 더욱 열심히 심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온 성도들이 그 누구나 다 심방하는 자가 되려면 ①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만들어 배우고 ②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 있는대로 배우고 ③ 많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져야 하고 ④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부하여지고 은혜 충만해지고 그 생활이 경건해짐으로 이런 성도들이 심방하는 곳마다 큰 은혜가 임하여 심방을 받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손대대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큰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김재창목사 선교사 파송예배

9월 3일, 파라과이 선교사로

우리 교회 부목사로 10여 년이 상 수고해 오신 김재창목사가 지난 9월 3일 파라과이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림으로 곧 임지로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 해 말에 파라과이 선교사로 내정되어 출국 준비를 해 왔었다. 이제 파송예배를 마치고 수속이 완료되는대로 임지로 떠나게 될 김재창목사는 지난 1970년 8월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셔서 그동안 교육위원회위원장, 구역권찰회회장등 교육 및 심방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수고해 오셨다. 김목사는 고려신학교를 졸업하고 상주의 서문교회, 김천 제일교회, 의정부 중앙교회 등에서 목회를 해 오셨다.

사모 박상희여사 1남 3녀를 두고 있는데 장녀 성실씨는 출



《파라과이 선교사 김재창목사 가족》

가, 차녀 성숙양도 지난 9월 3일 결혼, 3녀 성미양과 장남 성수군과 함께 9월 말경 임지로 떠날 계획이다.

인사이드

80년대 교회표어

당회는 1980년도(1981-90년)의 우리교회의 표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며 전하며 일하자」로 정하였다. 또한 내년부터는 현재 구역권찰의 5 지구를 2개 지구 늘어 7개 지구로 하기로 했고 또한 평신도 성경공부를 강화하여 요일별, 직분별로 저녁마다 성경공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심방위원장에

김원남목사 임명

교회는 파라과이 선교사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 김재창목사의 후임으로 김원남 목사와 장정일목사를 각각 임명했다.

심방위원장에 김원남목사를, 노년부 지도에 장정일목사가 수고 하시기 되었다.

가운 대여 얹기로

성가부는 그동안 타부서에서 헌신예배나 특별예배시 가운을 대여해 주던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가운착용의 근본 의미를 오인하기가 쉬우며 또한 비성가대원으로서 가운착용을 함으로 일반 성도와 성가대원의 구분이 혼동되기 쉽고 또한 관리의 애로가 있어 성가부의 가운 대여를 금하기로 했다.

성경학원 개강

성경학원은 1980년도 제 2 학기 개강을 오는 9월 8일부터 하게 된다. 각반 정원은 70명으로 야간A반(재학생), 야간B반(신입생), 주간반으로 나뉘고 또한 베델 성경연구반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1. 주일학교

가. 임 명

영아부 윤창준(남) 임시교사
초등부 김은수(남) 임시교사
초등부 최기성(남) 임시교사
초등부 서원아(여) 임시교사
초등부 이정현(여) 임시교사
초등부 최경란(여) 정교사
중등부 김정태(남) 임시교사
장년부 최복순(여) 정교사

나. 퇴 임

어새부 이미자(여) 정교사
초등부 류요안나(여)
초등부 노인덕(남)
초등부 인정옥(여)
중등부 정홍관(남)
중등부 이종연(남)
대학부 정영수(남)
장년부 김정임(여)
선교부 박두현(남)

2. 구역권찰회

가. 이 동

조명녀집사(권찰) 인천에서 오류 구역으로

공순자집사(권찰)충무로에서 오류구역으로

박용녀집사(권찰)오류에서 인천 구역으로

나. 임 명

김정숙집사(화곡 1 구역장으로)

다. 퇴 임

박두현집사(화곡 1 구역장)

토막소식

*...성가부의 제일성가대는 교회 설립27주년 기념으로 모쉴트의 작은 미사곡(Missa Brevis in C)를 오는(9월 7일) 저녁 7시30분 본당에서 연주한다. 지휘에 김연술, 반주 이승준이 담당한다.

*...남전도회는 전도후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전도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다.

*...제 1 여전도회는 6월22일 노방전도를 실시했고 6월22일에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전도를 나갔다.

*...제 2 여전도회는 농어촌 평신도지도자훈련식 식사대접을 했고 부원교회를 개척교회로 선정, 지원키로 했다.

*...산업전도회는 직장예배를 9 개소에서 4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했고 7월 1 일에는 월례조찬 기도회를 가졌다.

*...영아부는 7월20일 교사친교회를 경포대에서 가졌고 2 학기 성적시상을 했다.

*...유치부는 6월29일 성경퀴즈대회를, 7월13일에는 전반기 출석시상을 또한 2 학기 성경공부복습을 했다.

*...유년부는 7월 6 일2 학기 성경시험을, 7월13일에는 2 학기

시상(출석, 성적)을 실시했다.

*...초등부는 7월 6 일 어린이 헌신예배 및 월례회, 2 학기 성경시험을 치렀고 7월25일에는 새가정부실에서 교사철야기도회로 모였다.

*...중등부는 7월13일 2 학기시상을, 26일에는 교사친교 탁구대회를 가졌다.

*...고등부는 6 일 2 학기 성경시험을, 7월16, 17일에는 기도원에서 교사수련회를 가졌다.

*...대학부는 7월18일 실로암실에서 교사기도회 및 학습평가를 가졌다.

*...장년부는 7월 6 일 2 학기시상으로 출석 및 성경 다독자에게 시상했다.

*...노년부는 7월 6 일 전반기시상을 했다.

*...산업전도교육부는 한달간 각 직장을 대상으로 전체 학생심방을 실시했고 7월19일에는 임원 및 반장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7월 6 일에는 개고기념행사를 했다.

*...선교부는 7월11~13일 종강예배를 드리고 7월18일에는 새성전건축현장에서 철야기도회로 모였다. 또한 면려회에서는 「제단 숯불」이라는 회지를 제 2 호로 발간했다.

*...새가정부는 7월 6 일 새가정부실에서 전반기 수료식을 가졌고 20일에는 홀트아동복지회를 방문, 위로했다.

각 종 통 계

1980. 8. 3.(매월 첫주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낮	I 부	267	439	706	총세대수 3,666			
		II 부	431	1,051	1,482				
		III 부	419	795	1,214				
		IV 부	199	454	656				
배	주 일 저 녀	201	368	569	신 급	교인 총수	남	3,230	
	삼 일 저 녀	132	317	449			여	4,908	
	어린이새신자부	32	50	82			계	8,138	
주 일	영 아 부	146	101	247		교 별	세례 입교	남	1,790
	유 치 부	122	174	296				여	3,317
	유 년 부	193	151	344				계	5,107
	초 등 부	164	163	327			유아 세례	남	500
	중 등 부	129	139	268				여	337
	고 등 부	131	134	265				계	837
	대 학 부	68	72	140				학습 교인	남
	청 년 부	83	86	169	여		404		
	장년새신자부	71	135	206	계		661		
	장 년 부	26	294	320	원입 교인		남		683
노 년 부	41	106	147	여		850			
산 업 교 육 부	18	85	103	계		1,533			
선 교 부	방	학	중						
학	새 가 정 부	20	28	48					
	계	2,893	5,145	8,038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7월중 들어 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외경

1) 외경 및 위경전서: 전 6 권, 성인사 외경위경편 집부, 1979, 23cm.

2. 양서

1) History of China; Spring Books. 1978, 125 P, 26cm.

2) The Case for Orthodox Theology; Carnell, Edward John. Marshall, Morgan & Scott, 1961, 161P.

3)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Archer, Gleason L. Moody Press, 1979, 528P.

4) Christian Mission; Stott, John R. W. Falcon, 1975, 127P.

5)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 Unger, Merrill F.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339P.

6) Joshua and The Flow of Biblical History; Schaeffer, Francis A. Hodder and Stoughton, 1975.

7) New Testament Times; Tenney, Merrill C. Inter-Varsity Press, 1974, 396P.

8) Handbook of Preaching; Cleave, N. M. Van. O. M. F. Publishers, 1943, 91P.

9) How to Prepare Sermons; Evans, William. Moody Press, 1978, 158cm.

II. 도서실 소식

1) 선교외환선 로고스호 방문하다.

지난 7월22일 본 도서실에서는 인천항에 정박 중인 로고스호를 방문하여 16종류의 양서를 구입하였다.

2) 도서 4000권 돌파!

지난 1978년 5월 소장 도서 3천권을 돌파하던 만 2년2개월 만에 1100여권이 증가하여 마침내 소장도서 4천권(현4108권)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본 도서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 양면으로 발전의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시들로우 백스터 지음. 배성호 옮김

목회의 본질

생명의 말씀사 · 1979 406페이지 2,900원

오늘날 크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부흥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소리를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다.

그 말은 거의 유행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흥”이란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종교의 부흥을 원하는가? 기독교계에는 이름만 기독교지 본질은 기독교가 아닌 종교가 많다. 우리는 그런 종교의 본질을 원하는가? 강단에서 나오는 음식은, 예배 좌석에서는 감정적인 입술만 예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교인들의 영적 수준은! 선인장과 같이 배타적인 성향이 얼마나 많은가! 회회는 얼마나 많은가! 신앙은 철저하게 비타협적이면서 행실에서는 얼마나 타협을 잘 하는가!

「본회의 본질」이 책은 3부로 되어 있으며 1부외 2부는 목회자,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3부는 교인들이 한번정도는 꼭 읽어야 될 진기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초대교회는 저도자외 교인 모두 성령이 충만했고 모두 다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현재 교인들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교인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오해하는 자 많은데 이 책에서는 아주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오순절에 대해서, 특별히 공예배에 대해서는 경건과 찬송과 주일 저녁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꼭 읽어 볼 만한 책이다.

사람들과 나라들이 성경에 귀를 기울일 때가 바로 지금이다. 성경을 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 하리라”(딤후 4:15, 16).

박 동 실 전도사 (산업전도교육부부지도)

틀리기 쉬운 용어 예

〈맞춤법에 있어서〉

우리 중현교회에서는 1981년도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전하고 일하자'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며 폭 넓은 봉사를 함에는 글을 올바르게 읽고 쓸 수 있는 기초를 든든케 함이 긴요하다고 느껴져 이 부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군과 일꾼을 같이 사용해 왔으나 성경에 따라 일군으로 통일함이 좋으리라 생각되며, 장로를 장노로, 장로회를 장노회로 틀리게 쓰고 있는 것들은 고쳐야 하겠습니다.

이 부록을 여러 성도님들의 옆에 놓고 참조하시어 글을 올바르게 읽고 쓰시는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실〉

틀린것	바른것	가진 (온갖)	갖은	갖이고 (持)	가지고
	[ㄱ]	가쳐 (監禁)	갇혀 (갇히어의 줄)	갈읍니다	갈읍니다
가까히 (近)	가까이	가추어 (具備)	갓추어 (줄면 갓취)	갈해요 (恰似)	갈아요
가깝으로	가까스로	가치 (共·如·同)	같이	개굴이 (蛙)	개구리
가꿈 (往往)	가끔	가푸랴고 (報)	갓으려고	개념 (概念)	개념
까끄니 (削)	깎으니	간계 (奸計)	간계	까꾸로 (逆)	거꾸로
가던지 (行)	가든지	간단이 (簡單)	간단히	까라 (數)	깎아
가든 (行·過去形)	가던	간신이 (根辛)	간신히	까맣다 (黑)	까맣다
가득이 (充滿하게)	가득히	간질업다	간지럽다	까만 (黑) 까만 (꺼먼의 작은말)	
가라 (更新)	갈아	간우고 (監禁)	가두고	깎어 (削)	깎아
가랴고 (行)	가려고	갈너지다 (相別)	갈라지다	깜작 (突然)	깜짝
가르쳐 (教) 가르쳐 (가르치어 의 줄)		갈님길 (岐路)	갈림길	깜깜하다 (暗黑)	깜깜하다
가르치다 (指示)	가리키다	갈비대 (肋骨)	갈빗대	깨다르니 (悟)	깨달으니
가르침 (指示)	가리킴	감니다 (行)	갑니다	깨달으게	깨달게
가르키다 (教)	가르치다	감이 (敢)	감히	깨끗히 (清潔)	깨끗이
가르킴 (教)	가르침	값 (價)	값	거닐	거닐
가리어 (遮)	가리어 (가려)	갑갑하다 (憂鬱)	갑갑하다	거던	거든
가만이 (靜·隱密)	가만히	갑작이 (急·食卒)	갑자기	(.....으면, ...거늘)	
가벼히 (輕)	가벼이	갑부다 (億)	가쁘다	깨뜨린다 (破)	깨뜨린다
가쁘다	가쁘다	갓꿈 (種種)	가끔	걸러도 (徒步)	걸어도
가염은	가염은	갓다 (行)	갓다	거룩한 (神聖)	거룩한
가이 (可)	가히	갓다준다 (持給)	갓다준다	거름 (步)	걸음
가져 (持) 가져 (가지어의 줄)		갓득 (充滿)	가득	거리김 (拘礙)	거리김
가졌은 (持·過去形)	가졌던 (가 지었던의 줄)	갓든 (行·過去形)	갓던	거슬려 (背反)	거슬러
가졌습습니다 (持)	가졌었습니 다	갓쌌다 (如·同)	갓쌌다	거이 (大略·殆半)	거의
		강기 (感氣)	감기	거저 (單只·尙今)	그저
		강림 (降臨)	강림	거죽 (虛偽)	거짓
		강역 (強力)	강력	거쳐서 (經)	거쳐서
가지런히	가지런히	갓난이	갓난이	건느랴고 (渡)	건느려고

건는다 (步)	건는다	고요이 (靜)	고요히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리하였더
건널때에는 (渡·橫斷) 건널때에는		고은 (竊다)	고운	니의 줍)
건져 (救濟) 건져 (건지어의 줍)		고저한다	고자한다	그래에도 (然而) 그럼에도
....건만은 (疑心形) 건만는		고지듣는다 (信)	꿈이 듣는다	그러치 그렇지 (그러하지의 줍)
건우어 (收合) 거두어		고만둔다 (中止)	그만둔다	그러케 그렇게 (그러하게의 줍)
걸음 (肥料)	거름	고푸다 (飢)	고프다	그러므로 (써) 그럼으로
걸쳐	걸쳐	골니다	골리다	그럼으로 (理由 原因, 그러므로
걸치드라도 (掛) 걸치더라도		골자기 (山谷)	골짜기	고로)
걸태앉아서	걸터앉아서	곰곰이	곰곰히 (곰곰하게)	그렇습니다 (肯定) 그렸읍니다
겉 (外面)	겉	곳 (即·即時)	곧	(그러하였읍니다의 줍)
겉봉 (表封)	겉봉	곳곳히 (處處마다)	곳곳이	그만큼 (程度) 그만큼
....것이어널	것이어늘	곳다 (直)	곧다	그적게 (再昨日) 그저께
....것이였다	것이였다	공교로히	공교로이	근기 (根氣) 끈기
것잡다 (握) 건잡다 (건어잡다		공난 (空欄)	공란	근노 (勤勞) 근로
	의 줍)	공연이 (空然)	공연히	근인 (近隣) 근린
것치다	건히다	과이 (過)	과히	글시 (書體) 글씨
깍대기 (穀)	깍대기	관계 (關係)	관계	글르다 (不可) 그르다
꺼꾸로 (逆)	거꾸로	관례 (慣例)	관례	글짜 (文字) 글자
검엄 (黑)	꺼먼 (까만의	관념 (觀念)	관념	금연 (今年) 금년
	센말)	괴로려 (苦) 괴롭혀 (괴롭히어의	줍)	긋치고 (止) 그치고
꼭는다 (折) 꺾는다		괜찬타 (無妨) 괜찮다		괴원 (起源) 기원
껍질 (皮) 껍질		꼬삿으며 (刺·插) 꽃았으며		끄리고 (沸騰) 끓이고
계급 (階級) 계급		꼭대기 (頂)	꼭대기	끈어 (絶) 끊어
계단 (階段) 계단		꼭찌	꼭지	끈임없이 (不斷) 끊임없이
계란 (鵝卵) 계란		꼴꼴하다 (直)	꼴꼴하다	끈치고저 (中止) 그치고자
계량 (計量) 계량		꽃마발	꽃다발	끔찍이 (太甚) 끔찍이
계몽 (啓蒙) 계몽		구감 (龜鑑)	귀감	꽃난다 (終了) 끝난다
계속 (繼續) 계속		구열 (龜裂)	균열	꽃드머리 (端) 꼬트머리
계승 (繼承) 계승		구비구비	굽이굽이	끝장 (終局) 끝장
게시다	게시다	구름 (雲)	구름	기둥 (柱) 기둥
게엄 (戒嚴) 게엄		구지 (구태어)	굳이	기리 (長) 길이
계쟁 (係爭) 계쟁		구치다 (固)	굳히다	기리기리 (永久) 길이길이
계통 (系統) 계통		구피다 (曲)	굽히다	기빨 (旗) 깃발
계획 (計劃) 계획		굴네 (勒)	굴레	기쁘다 (喜) 기쁘다
겨울 (冬) 겨울		굶출이다 (饑餓)	굶주리다	기어히 (期於) 기어이
겨울르고 (怠慢) 게으르고		굳세다 (強) 굳세다 (굳고 세다)		기와장
겪는다 (經) 겪는다		궁홀이 (矜恤)	궁홀히	기우려져 (傾) 기울어져
견뎌고 (忍) 견디고		귀찬게 (厭苦)	귀찮게	기우렸다 (傾注) 기울였다 (기우
겉들인다 (助力) 겉들인다		꾸불어진 (屈)	꾸부러진	리었다의 줍)
경계 (警戒) 경계		꾸준이 (如一·不斷) 꾸준히 (꾸	준하게)	길까 (路邊) 길가
경력 (經歷) 경력		꾸짖다 (叱)	꾸짖다	길너 (養育) 길러
게시판 (揭示板) 게시판		꿀어업드려	끓어업드려	기른다 (養育) 기른다
게재 (掲載) 게재		꿈인다 (飾·編成)	꾸민다	깃거히 (喜) 기꺼이
고기잡이	고기잡이	규율 (規律)	규율	깃것 (極力) 기껏
고달은	고달픈	규칙 (規則)	규칙	깃버 (喜) 기뻐
고루다 (均一·選擇) 고르다		그득이 (充滿) 그득히 (그득하게)		깃쁨 (喜) 기쁨
고만 (뜻밖에) 그만				끼어 (夾) 끼워
고스란히	고스란히			깊히 (深) 깊이

[L]

나가던 (發生)	나거든
나날히 (每日)	나날이
나눔니다 (分)	나눔니다
나달 (穀粒)	날알
나라단닌다 (飛)	날아다닌다
나란이 (平行)	나란히 (나란하게)
나루다 (運搬)	나르다
나리므로 (降下)	내리므로
나마지 (餘分)	나머지
나무가지	나뭇가지
나무잎	나뭇잎
나부긴다 (飄搖)	나뭇긴다
나쁘다 (惡)	나쁘다
나왔고 (出)	나왔고
나은 (産)	낳은
나을 (西日)	나흘
나인 (擦印)	날인
나중	나중
낙뢰 (落雷)	낙뢰
낙다, 낫다	낙다
난우고 (分)	나누고
날너춘다 (運搬)	날라준다
날노 (煖爐)	난로
날른다 (運搬)	나른다
날씨·날씨 (日氣)	날씨
날자 (日字)	날짜
날카로움다 (銳利)	날카롭다
남기고저 (殘餘)	남기고자
남어 (殘餘)	남아
남어지 (剩餘)	나머지
남여 (男女)	남녀
납작하다 (平廣)	납작하다
낫 (顔)	낫
낫 (畫)	낫
낫낫치 (每個)	날날이
낫다 (低)	낮다
낫다 (産)	낳다
낮추고 (低)	낮추고
낳다 (優勝·總)	낫다
내까 (江邊)	넷가
내물 (강물)	넷물
내연 (來年)	내년
내쫓는다 (逐出·追放)	내쫓는다
너머나 (지나치게)	너무나
너머지다 (倒)	넘어지다
너어 (入)	넣어

널르다 (廣)	너르다
널븐 (廣)	넓은
넘우 (지나치게)	너무
넘쳐 (溢)	넘쳐
넙적다리	넙적다리
네 (對答)	예
넷째 (第四)	네째
녀공 (女工)	여공
넉년 (年年)	연년
념여 (念慮)	염려
노랗고 (黃)	노랑고
노름 (遊戲)	놀음
노리 (遊興)	놀이
노였는데 (置)	놓였는데
놓왔든 (置·過去形)	놓왔던
노으니 (放·放火)	놓으니
노치다 (放失)	놓치다
노코 (置)	놓고
노뀐다 (高)	높인다
놀나 (驚)	놀라
놀던말던 (遊選擇形)	놀든말든
놀든 (遊·過去形)	놀던
놀음 (賭博)	노름
뇨도 (尿道)	요도
누구든지 (誰何)	누구든지
누덕이 (襠褌)	누더기
누른다 (壓)	누른다
누피고	눅히고
눌니다 (壓)	눌리다
누은 (黃)	누른
늘 (沼)	늘
느러노은 (配列)	늘어놓은
느러선다	늘어선다
느러저 늘어져 (늘어지어의 줌)	
느저도 (遲)	늦어도
늘인 (緩慢)	느린
느름이	느름히 (느름하게)
늦다 (遲)	늦다
늦춘다 (緩)	늦춘다
능력 (能力)	능력
능율 (能率)	능률
능이 (能)	능히
니토 (泥土)	이토
....닛가 (....므로....故로)	니까

[C]

....(하) 닥아 (轉換)	(하) 다가
다라난다 (疾走)	달아난다

다름박질 (疾走)	달음박질
다리고	데리고
다린다 (煎)	달인다
다왔다 (到着)	달았다
다으니 (到着)	달으니
다행이 (多幸)	다행히 (다행하게)
닥까노코 (磨)	닳아놓고
닥다 (磨)	닳다
단단이 (堅固)	단단히 (단단하게)
단순이 (單純)	단순히 (단순하게)
닥아오다 (接近)	다가오다
단인다 (步行)	다닌다
단여온다 (回還)	다녀온다
단뿔 (가득)	담뿔
단념 (斷念)	단념
달어 (閉)	달아
단정이 (端正)	단정히 (단정하게)
달낸다 (懷柔)	달랜다
달달이 (每月)	다달이
달려붙는다 (執着)	달라붙는다
달려진다 (變更)	달라진다
달마지 (迎月)	달맞이
달았다 (耗)	달았다
....달었고 (連)	달았고
달연 (鍛鍊)	단련
달오다 (異)	다르다
달은 (異)	다른
달콤한 (甘)	달콤한
닷친 (負傷)	다친
닭알 (雞卵)	달걀
닭아서	닭아서
닭아서 (入)	담아서
당당이 (堂堂)	당당히 (당당하게)
닷는다 (接觸·至)	닿는다
닷는다 (閉)	닫는다
닷자긱자 (無碍)	다짜고짜
닷친 (閉)	닫힌
대렬 (隊列)	대열
당긴다 (引)	당긴다
따라서 (注)	따라서
따라는 (採取)	따려는
따어가다	따라가다
따오다 (隨)	따르다
땀다 (採取)	땀다 (따앗다의 줌)
땀땀하다 (曖)	따뜻하다
때었다 (時)	때었다 (때이었던의 줌)
더덕이 (添垢)	더더기

더러이다(汚) 더럽히다
 더부러(與) 더불어
 더욱이(尤) 더우기
 더핀다(掩) 덮인다
 덕우나 더구나
 던저(投擲) 던져(던지어의 줄)
 ...던지(...라도選擇形) ...든지
 덮게(蓋類) 덮게
 떠났습시다(出發) 떠났읍시다
 떠러져(相距·落·遲) 떨어져(떨
 어지어의 줄)
 떠올은다 떠오른다
 떨니는(震) 떨리는
 땃땃이(堂堂) 땃땃이
 떼어(分離) 띄어
 도깨비 도깨비
 도둑(盜人·賊) 도둑
 도둑질(盜) 도둑질
 도두는(振作) 돌우는
 도라가는(歸) 돌아가는
 도루(다시·復) 도로
 도리키다(悔) 돌이키다
 도리혀(却) 도리어
 도모지(都是) 도무지
 도야지(豚) 돼지
 도저이(到底) 도저히
 독기(斧) 도끼
 독여(督勵) 독려
 독역(獨力) 독력
 독입(獨立) 독립
 돌(첫滿一年이 되는날) 돌
 돌맹이(石) 돌맹이
 돛배기(表眼鏡) 돋보기
 돛었다(登·出) 돋았다
 둥그람이(圓) 둥그라미
 동난(動亂) 동란
 동역(動力) 동력
 동유(同類) 동류
 되거널 되거늘
 되려거던 되려거든
 되여(成立) 되여
 되었다(成立) 되었다
 되푸리(反復) 되풀이
 똑똑이(確突) 똑똑히(똑똑하게)
 두두린다(打) 두드린다
 두루고 두르고
 두째(第二) 둘째
 둘레(周圍) 둘레

둥그려케(圓形) 둥그렇게
 둥근(圓形) 둥근
 두껍게(厚) 두껍게
 두께(厚) 두께
 뒤집(後家) 뒤집
 뒤떨미 뒤떨미
 뚜렷히(顯著) 뚜렷이
 뚜러지게 뚫어지게
 뚜껑(蓋) 뚜껑
 뚫러서(穿) 뚫어서
 ...드니(過去回想) ...더니
 ...드라면 ...더라면
 드뚱어(마침내) 드디어
 드러(入) 들어
 드렸다(聞) 들었다
 드러다본다 들여다본다
 드렸드니(올리는 것) 드렸더니
 ...든바 ...던바
 들너볼다(付着) 둘러볼다
 들석거린다(動舉) 들석거린다
 듯고저(聞) 들고자
 등록(登錄) 등록
 뜰근뜰근(甚熟) 뜨끈뜨끈
 뜰업다(熱) 뜨겁다
 뜻뜻이(溫) 뜻뜻이
 뜻밖게(意外) 뜻밖에
 띄어(分離·間隔을 두어) 띄어
 떠는(보이는) 띄는(뜨이는의 줄)

[ㄱ]

라체(裸體) 나체
 라침(羅針) 나침
 락관(樂觀) 낙관
 락담(落膽) 낙담
 락선(落選) 낙선
 락심(落心) 낙심
 락원(樂園) 낙원
 략발(濫發) 남발
 략독(朗讀) 낭독
 략비(浪費) 낭비
 래력(來歷) 내력
 ...라고 ...려고
 략식(糧食) 양식
 ...런지? ...는지?
 러객(旅客) 여객
 ...려든(欲) ...려던
 러행(旅行) 여행

련락(連絡) 연락
 력량(力量) 역량
 례(例) 예
 례복(禮服) 예복
 로고(勞苦) 노고
 로골(露骨) 노골
 로동(勞動) 노동
 로연(老年) 노년
 로파(老婆) 노파
 록음(錄音) 녹음
 론난(論難) 논난
 외동(雷同) 뇌동
 료정(料亭) 요정
 루각(樓閣) 누각
 루계(累計) 누계
 루락(漏落) 누락
 루명(陋名) 누명
 루차(屢次) 누차
 류동(流動) 유동
 유사(類似) 유사
 류수(流水) 유수
 류의(留意) 유의
 윤리(倫理) 윤리
 율동(律動) 율동
 림름(凜凜) 늠름
 림욕(凌辱) 능욕
 리기(利己) 이기
 리력(履歷) 이력
 리념(理念) 이념
 리상(理想) 이상
 리용(利用) 이용
 리유(理由) 이유

[ㄴ]

...니다(감니다) ...니다(감
 니다)
 마땅이(當然) 마땅히
 ...마는 ...만은(그것만은)
 마렸스니(了了) 말았으니
 마음씨(用心) 마음씨
 마자드린다(迎合) 맞아들인다
 마저죽다(死撰) 맞아죽다
 마짓서(的中) 맞았어
 마저하였다(迎接) 맞이하였다
 마조(對) 마주
 마중(迎接) 마중
 마른편(正面) 맞은편

....마지 (迎)	맞이	머리돌	머릿들	물난 (紊亂)	문란
마추어 (合·插入·符合)	맞추어	머릿말	머리말	물너가다 (退却)	물러가다
마춤 (適時)	마침	머므른다 (留)	머무른다	물논 (勿論)	물론
마춤내 (遂)	마침내	머졌다 (止)	머졌다	물리쳐 (擊退)	물리쳐
마타본다	말아본다	먹음죽하게	먹음직하게	물으다 (柔·軟)	무르다
막대이 (棒)	막대기	덜	월	물 (陸地)	물
막어 (遮斷)	막아	덜니 (遠)	멀리	물는다 (埋·染)	묻는다
만드러 (製作)	만들어	덜지기 (遠)	덜찌기	물질러 (進擊)	무찔러
만들라면 (製作)	만들려면	넋 (幾)	넋	물치고 (埋沒)	묻히고
만듬도 (作)	만듬도	며칠날 (第何日)	며칠날	뭐던지 (何物이 거나)	뭐든지
만었다 (多)	많았다	면은 (假定)	며는	미듬 (信仰)	믿음
만저본다	만져본다	면여 (勳勳)	면려	미루워	미루어
(더듬어본다)		멸류관 (晚流冠)	면류관	미쳐 (及)	미쳐
....만은	마는 (가지마는)	멧날 (幾日)	멧날	미천 (資本)	밀천
....만큼	만큼	명낭하다 (明朗)	명랑하다	밋 (底)	밑
만타 (多)	많다	명령 (命令)	명령	밋그럽다 (滑)	미끄럽다
말갯타 (淸)	말갯다	멧일 (幾日·何日)	며칠	밋근밋근 (滑)	미끈미끈
말나 (乾)	말라	모다 (皆·總)	모두	밋는다 (信)	믿는다
말노 (末路)	말로	모두덜 (여럿이)	모두들	밋쳐서 (狂)	미쳐서
말둑	말뚝	모듬 (會)	모임	밋이다 (狂·及)	미치다
말류 (挽留)	만류	모라 (追)	몰아		
말미아마 (原因)	말미암아	모름직이 (마땅히)	모름지기		
말성 (言端)	말썽	모주리 (全)	모조리	[日]	
말숙하다 (淸楚)	말썽하다	모통이 (隅)	모통이	버니가	버니까
말슴 (話)	말씀	모혀서 (集會)	모여서	바늘 (針)	바늘
맞기다 (任置)	맞기다	모힌다 (集合)	모인다	바다가 (海邊)	바닷가
맞나거던 (相逢)	만나거든	목록 (目錄)	목록	바다물 (海水)	바닷물
맞는다 (適合·迎)	맞는다	목숨 (生命)	목숨	바라거던 (希望)	바라거든
맞다운 (合친)	맞닿은	목예 (目禮)	목례	바랍니다	바랍니다
맞대어 (比較)	맞대어	몬저 (先)	먼저	바려보는 (望)	바라보는
맞당이 (當)	마땅히	몬지 (塵)	먼지	바빠도 (奔忙)	바빠도
맞붙잡고	맞붙잡고	몬우어 (合)	모두어	바야으로	바야흐로
맞춘다 (合·的中)	맞춘다	물낙 (沒落)	물락	바우 (岩石)	바위
맞치 (恰似)	마치	물으고 (不知)	모르고	바웃돌 (岩石)	바윗돌
맞타다 (阻當·嗅)	말았다	뭉씨 (大端)	뭉시	바친다 (支)	받친다
망나 (網羅)	망라	몽이 (蒙利)	몽리	바침 (終聲)	받침
망내	막내	뫼 (山·祭飯)	메	박그로 (室外)	밖으로
망연회 (忘年會)	망년회	무너져 (毀)	무너져	박어 (印刷)	박아
맞이다 (終了)	마치다	무니 (紋)	무늬	밖앗 (室外·外部)	바깥
매듭 (結目)	매듭	무러 (間)	물어	반가워합니다	반가와합니다
매마른 (乾燥)	메마른	무릎 (膝)	무릎	반가히 (嬉·喜)	반가이
매쳐 (結實)	맺혀	무심이 (無心)	무심히	반다시 (必)	반드시
매치었다 (結實)	맺히었다	목거 (束)	묶어	반드시 (正·平)	반듯이
매키어 (不通)	막히어	목금 (束)	묶음	반작 (照光形)	반짝
맵시 (美貌)	맵시	문득 (突然)	문득	반짝어리다	반짝거리다
맹열 (猛烈)	맹렬	문어치고	무너지고	받으라온다 (受)	받으러온다
머러지고 (遠)	멀어지고	물가 (水邊)	물가	받아 (受)	받아
머리맛 (頭邊)	머리말	물감 (顏料)	물감	받든다 (奉)	받든다
				받힌 (捧·獻)	바친

발난(反亂)	반란	벋쳐서(伸張)	뵈쳐서	불실(不實)	부실
발노(發露)	발로	뼈(骨)	뼈	분류(分類)	분류
발써(이미)	벌써	벽역(霹靂)	벽력	불은다(呼歌)	부른다
발영(發令)	발령	번번이(充分)	변변히	불이나게(急)	부리나게
발퍼(踏)	밟혀	별논(辯論)	변론	불정(不正)	부정
밝아졌다(明)	밝아졌다	별안간(突然)	벼란간	불진(不振・不進・不盡)	부진
밧머(奔忙)	바빠	병난(兵亂)	병란	붙든채(掌握)	붙든채
밧비(奔忙)	바빠	병역(兵力)	병력	붙잡고(把握)	붙잡고
밧삭(緊迫貌)	바짝	벗(日光)	벌	붙잡어	붙잡아
밧삭(더욱)	바짝	보냈든(途・過去形)	보냈던	붙적(大端)	부적
방낭(放浪)	방랑	보던지(見・觀)	보든지(보거나)	붙어(自)	부터
배(麻布)	베	보름(15日)	보름	붙이다(途付)	부치다
배길(航路)	배길	보세요(見・觀)	보세요	비둘기(鳩)	비둘기
배렬(配列)	배열	보와요(見・觀)	보아요	비려먹다(乞食)	빌어먹다
배아리(腹痛)	배앓이	볶는다(炒)	볶는다	비례(比例)	비례
배암(蛇)	뱀	복니(福利)	복리	비로서(始)	비로소
배꼈다(隱)	박혔다	본대(元)	본디	비율(比率)	비율
백여(길게든것)	배겨(배기어의줄)	불내(本來)	본래	비물(雨水)	빗물
백인다(印刷)	박인다	불서(既)	벌써	비저진(생긴)	빚어진
백인다(堪耐)	배긴다	봉토(封套)	봉투	비쳐(照)	비쳐
맏곰(臍)	배꼽	외(麻布)	베	비추다(照)	비치다(自)
맏장(臍大)	배짱	부능(不能)	불능	비치다(照)	비추다(他)
맏다(吐)	뱉다	부딪쳐서(衝突)	부딪쳐서	빌고저(祈願)	빌고자
빼앗김(奪取)	빼앗김	부딪칩니다(衝突)	부딪힘(칩)	빚(負債)	빚
빼앗음니다	빼앗음니다		니다	빛(光)	빛
빨내(洗濯)	빨래	부딪(모조룩・期於)	부딪	빛는다(釀)	빛는다
빨니(速)	빨리	부뜨러(捕捉)	붙들어	빛사다(高價)	비싸다
빨안(赤)	빨간	부량배(不良輩)	불량배	빛추어(鑑)	비추어
버러지기(開・裂)	벌어지기	부러(吹)	불어	뵈두로(不正)	비두로
벌레(虫)	벌레	부러지저(叫)	부르짖어		
버서저(離脫)	벗어져	부루루(振動形)	부르르		
버치어(支)	버티어	부수럭이(碎屑)	부스러기		
변갈어(交代)	변갈아	부신다(碎)	부순다		
변변히(每番)	변변히	부엌(厨房)	부엌		
…번씩…(次式)	…번씩	부지런이(勤勉)	부지런히		
번적(照光形)	번쩍	부지럽시(漫)	부질없이		
벌서(既)	벌써	부처(佛)	부처		
벌린다(開列)	벌인다	부치다(添附・點火)	붙이다		
범남(氾濫)	범람	부침성(社交性)	붙임성		
법령(法令)	법령	부터(附着・點火)	붙어		
법율(法律)	법률	북돋는다(培)	북돋는다		
법칙(法則)	법칙	북바쳐(치밀어)	북바쳐		
벗석(碎音)	버석	분명이(分明)	분명히		
벋개(電)	벋개	분주이(奔走)	분주히		
베(稻)	벼	분푸리(報怨)	분풀이		
베가리(稻積)	벋가리	불넛다(呼)	불렀다		
베풀다가(施・設)	베풀다가	불니(不利)	불리		
뵈이(갈)	뵈히	불동(不同・不動)	부동		

[人]

사뭇치다(徹)	사뭇치다
사뭇	사뭇
사흘(三日)	사흘
사웃날(第三日)	사흔날
삭	삭(품삭)
산골작(山谷)	산골짜
산떠미	산더미
산봉우리	산봉우리
산란(散亂)	산란
살랴고(生)	살려고
살무면(煮)	삶으면
살아지다(消滅)	사라지다
살어서(生)	살아서
살임사리(生活)	살림살이
삶아서(煮)	삶아서
삼었다	삼았다

삿삿치 (一一히)	살살이	세도 (勢道)	세도	시달난다	시달린다
상살 (相殺)	상쇄	세탁 (洗濯)	세탁	시명 (氏名)	씨명
상예 (常例)	상례	소금 (鹽)	소금	시꺼먹게 (黑色)	시꺼먹게
상항 (狀況)	상황	소낙이 (雷雨)	소나기	시킨다 (冷)	식힌다
새까매지고 (黑)	새까매지고	소사난다 (湧出)	솟아난다	식 (하나)	씩
새로워진다 (新)	새로워진다	속님 (內葉)	속잎	식요 (食料)	식료
새로히 (新)	새로이	속는다 (間拔)	속는다	식힌다 (使役)	시킨다
새빨간 (眞紅)	새빨간	손재비 (手把)	손잡이	신불을 (使)	신부름
새빨 (黎明星)	새별	쏘다저 (輻輳)	손아저	실고 (載)	실고 (실은)
새여	새어	쫓는다 (注)	쫓는다	실나 (新羅)	신라
새파랗타 (靑)	새파랗다	쇠루치 (金屬物)	쇠붙이	실녹 (新綠)	신록
색갈 (色)	색깔	수군거리고	수군거리고	실뇌 (信賴)	신뢰
색기 (子繼)	새끼	수키고 (얼드리고)	숙이고	실예 (失禮)	실례
색여 (刻)	새겨	수수깅기 (謎語)	수수께끼	실증 (獻症)	실증
색이고 (刻)	새기고	수자 (數字)	숫자	싫혀 (獻)	싫어
샌노란 (眞黃)	새노란	숙여 (淑女)	숙녀	심히 (甚)	심히
새싹 (新芽)	새싹	순시간에 (瞬間時間)	순식간에	십여년 (十餘年)	십여년
생계 (生計)	생계	술니 (順理)	순리	십월 (十月)	시월
싸래기 (米屑)	싸라기	술양 (順良)	순량	십컷다	싫었다
싸여 (積)	쌓여	숨이졌다 (絶命)	숨이졌다	씻는다 (洗)	씻는다
싸웠다 (戰)	싸웠다	숨으려 (隱)	숨으려	씨었다 (書・冠)	씩었다
싸움 (紛爭・戰爭)	싸움	숫가락 (匙)	숫가락	씨운다 (書・冠)	씩운다
쌓인 (包)	싸인	숫불 (炭火)	숫불		
서리바람 (霜風)	서릿바람	숫커 (雄)	수컷		
서름 (悲)	설움	숫닭 (雄雞)	수탉		
서롤니	서덜리	숫돼지 (雄豚)	수돼지		
서역 (西曆)	서력	쉽사리 (容易)	쉽사리		
서투루다 (不慣習)	서투르다	스물 (二十)	스물		
섞갈린다 (紛)	섞갈린다	스사로 (自身)	스스로		
섞거서 (混合)	섞어서	스플 (林)	수풀		
석냥	성냥	슬그먼이 (隱然)	슬그머니		
선뚝 (直)	선뚝	슬타 (厭)	싫다		
선선이 (쉽게)	선선히	슬푸게 (悲)	슬프게		
설빈다 (心搖動)	설렌다	슬이 (悲)	슬피		
설립 (設立)	설립	습니다	습니다		
설양 (善良)	선량	숨인다 (滲)	스민다		
설령 (設令)	설령	숫친다 (擦)	스친다		
설예 (先例)	선례	승겁다	싱겁다		
설흔 (三十)	서른	석귀 (猜忌)	시기		
섭니 (攝理)	섭리	쓰러 (掃)	쓸어		
섰다 (立)	섰다	쓰레받기 (掃板)	쓰레받기		
섯달 (12月)	섬달	쓸쓸이	쓸쓸히		
성략 (省略)	생략	쓸어져 (倒)	쓰러져		
세계 (世界)	세계	시계 (時計)	시계		
세팡 (貰房)	셋방	시끌업다	시끄럽다		
세여보니 (計算)	세어보니	시끼고 (洗)	씻기고		
....세요 (勸誘)	셔요	시내물 (江水)	시냇물		
셋째 (第三)	세째	시냇가 (江邊)	시냇가		

[O]

....아오니	사오니 (있사오니)
아니것만 (非)	아니건만
아니든가 (非)	아니던가 ?
아니없더라면	아니었더라면
아니애요	아니어요
아니요 (否認)	아니오
아려 (知)	알아
아름다웠다 (美麗)	아름다웠다
아모 (某・誰何)	아무
아모래도 (如何)	아무래도
아모리 (如何한)	아무리
아모쪼록 (某條)	아무쪼록
아무러케나	아무렇게나
아무런 (如何)	아무든
아울너 (具・伴)	아울러
아으레 (九日)	아흐레
아은 (九十)	아흔
아조 (全然・매우)	아주
아죽 (未)	아직
아춤	아침
아퍼서 (痛)	아파서
아푸다 (痛)	아프다
악가 (先刻)	아까

악한(惡寒)	오한	어떠케(如何)	어떻게	연꼬어(繼續)	연거푸
안기여(抱擁)	안기어	어둡다(暗)	어둡다	연달어(繼續)	연달아
안는다(不爲)	안는다 (아니한 다의 줌)	어디던지(何處)	어디든지	열남(閱賢)	열람
않어도(不爲)	않아도	어름(氷)	얼음	열뻐(十次)	열번
안영이(安寧)	안녕히	어여쁘다(美)	어여쁘다	열심이(熱心)	열심히
안치다(坐)	앉히다	어울린다(調和)	어울린다	열음(夏)	여름
안코(不爲)	않고	어저께(昨日)	어저께	영원이(永遠)	영원히
안타가운	안타까운	어퍼진다(顛覆)	엎어진다	여산(豫算)	예산
안팎(内外・表裏)	안팎	어폐(語弊)	어폐	예뻐다	예쁘다
안해(妻)	아내	어딴지(如何間)	어떻든지	예찍(昔)	옛적
안된다(不可・不成立)	안된다	억유(抑留)	억류	오거던(來)	오거든
안됐다	안됐다	억찌로	억지로	오날(今日)	오늘
안어(抱擁)	안아	언저(載)	없어	오날날	오늘날
안었다(不爲・不)	안았다(아 니하였다의 줌)	언제던지(何時)	언제든지	오누(男妹)	오누
않습니다	안습시다	언치다(載)	없히다	오루지	오로지
않이다(非)	아니다	얻으라온다(得)	얻으러온다	오유월(五六月)	오뉴월
않이하다	아니하다	얼곤하다(適醉感)	얼근하다	오이려(尚)	오히려
않도록	않도록	얼굴(顔面)	얼굴	오줌(尿)	오줌
않했다	안했다	얼는(速히)	얼른	오죽(여복)	오죽
알낙달낙	알락달락	얼럭덜럭	얼룩덜룩	오죽(單只)	오직
알는(病)	알는	얼마든지(幾何)	얼마든지	온갖(各種)	온갖
알니다(知)	알리다	얼키다	얼히다	온전이(完全)	온전히
알뜰이	알뜰히	엄연이(儼然)	엄연히	올갱이(紐)	올가미
알어(知)	알아	엎거던(無)	없거든	올게(正)	올게
암개(雌犬)	암개	엎다(無)	없다	올나가다(登)	올라가다
암아(推測)	아마	엎드려(伏)	엎드려	올나서(登・載)	올라서
암탉(雌鷄)	암탉	없센다(無)	없앤다	올니나이다	올리나이다
암력(壓力)	압력	없엇든(無)	없엇던	올마가고(移動)	올아가고
압재비	앞잡이	없이여긴다(無視)	업신여긴다	올아(肯定)	올아
앗가(先刻)	아까	엇고저(得)	얻고자	올오지(單只)	오로지
앗갑다(愛惜)	아깝다	...엇다(過去)	...엇다	올타(正)	올다
애겨(節約)	아껴	엇때? (如何)	어때?	올겨가고(移動)	올겨가고
애끼고(惜)	아끼고	엇던(何)	어떤	올니다(來)	옵니다
애처럽다	애처롭다	엇재서(何故)	어째서	올바	오빠
야드레(八日)	여드레	엇저니?	어찌니?	완전이(完全)	완전히
야튼(淺)	얕은	엇저녁(昨夕)	엇저녁	왔다(來)	왔다
약어서(伶俐)	약아서	엇저면(如何)	어쩌면	왕내하든(往來)	왕래하던
얕긔다	얕긔다	엇전지(何故)	어쩐지	왜로움(孤獨)	외로움
얕전이	얕전히	엇지(如何)	어찌	외로히(孤寂)	외로이
얕다(淺)	얕다	에긴다	여긴다	원통(모두)	온통
얕보다(蔑視)	알보다	예뻐(美)	예뻐	윗다른(孤獨)	윗말은
억게(肩)	어깨	에워싸히고(包圍)	에워싸이고	요사히(近間)	요사이
어끄저께(再昨日)	엇그저께	여게(比處)	여기	용감스레(勇敢)	용감스리
어느듯(於焉間)	어느덧	여덜(八)	여덜	우(上)	위
어더맛다	엄어맛다	여섯(六)	여섯	우두거니	우두커니
어메(何處)	어디	여전이(如前)	여전히	우뚱	으뚱
		역는다(編)	ړ는다	우털어본다(仰視)	우러러본다
		역유(逆流)	역류	우렀다(泣鳴)	울었다

우열(優劣)	우열	일흔(七十)	일흔	잔득(充滿)	잔뜩
웃었다(笑)	웃었다	일흔봄(早春)	이른봄	잘나(切斷)	잘라
우습다(劣)	우습다	일흔테면(所謂)	이른테면	잘죽	잘룩
우숨(劣)	웃음	일흔(名)	이름	잘아난다(成長)	자라난다
우연이(偶然)	우연히	일흔히	일일이	잘르고(切斷)	자르고
우층(上層)	웃층	일흔(一切)	일체	잠깐(暫間)	잠간
욱어전(茂盛)	우거진	일제이(一齊)	일제히	잠결(睡眠中)	잠결
움지기고(動)	움직이고	일쪽이(堂早)	일찌기	잠잠이(靜)	잠잠히
웃득	우뚱	일직	일찍	잡어(捕·殺·握)	잡아
웃물(井戸)	우물	일커러	일컬어	잡념(雜念)	잡념
월계(月計)	월계	일컫다	일컫다	잣다(頻繁)	잣다
월노(元老)	원로	일활(一括)	일괄	잣히하면	자칫하면
웨치는(叫)	외치는	입니다	입니다	장내(將來)	장래
위선(爲先)	우선(干先)	읽이(讀)	읽기	장노(長老)	장로
유독이(唯獨)	유독히	임이(既, 已)	이미	장사(商人)	장수
유리조각(琉璃破片)	유리조각	입사귀(葉)	입사귀	장수(商業)	장사
유유이(悠悠)	유유히	잇것만(在)	있건만	장여(獎勵)	장려
육노(陸路)	육로	잇다	잇다(續, 連)	장이(壯)	장히
육월(6월)	유월		잇다(有, 在)	재떠리, 재털이	재떨이
은혜(恩惠)	은혜		잇다(忘)	재빨르다(敏速)	재빠르다
을른(咏)	을은	잇다금	이따금	재조	재주
음역(陰曆)	음력	잇다라(繼續)	잇달아	재피다(被捉)	잡히다
음요(飲料)	음료	잇섯다(在)	있었다	짜다(織)	짚다
....읍니다	읍니다	잇슴으로(잇는故로)	있으므로	저도(敗하여도)	저도(지어도의죽)
웃듬(第一)	으뜸	잇쳐지다(忘)	잊혀지다	저러게	저렇게
의론(議論)	의논	잇틀(二日)	이틀	저물도록	저물도록
의연이(依然)	의연히	잇해(二年)	이태	저바린(背反)	저버린
....이오(斷定)	이요	잇습니다	있습니다	저이(生等)	저희
이끄러(引)	이끌어	잇오(在)	잇소	저질너	저질러
이따금(往往)	이따금	잇을런지?	잇을는지?	저치다(翻反)	젓히다
이러나다(起)	일어나다			저커어(記錄)	적히어
이러케(如斯)	이렇게			저히들(生等)	저희들
이러타(如此)	이렇다			적나나(赤裸裸)	적나라
이르드라도(到)	이르더라도	자미(滋味)	재미	적다(크다, 小)	작다
이르키다(起·喚起)	일으키다	자빠지다(倒)	자빠지다	전기줄(電線)	전깃줄
이반이(貲獸)	이바지	자세이(仔細)	자세히	전채(全體)	전체
이야기, 이악이	이야기	자연이(自然)	자연히	전라도(全羅道)	전라도
이어(繼續)	이어	자우(左右)	좌우	절득바리(輕跛者)	절득발이
이저음(近間)	이즈음	자욱이(煙霧貌)	자욱히	절멋을때(年少)	젊었을때
이치지안코(不忘)	잊히지않고	자코(頻繁)	자주	점잔케	점잖게
이킨다(熟)	익힌다	자지빛(紫色)	자줏빛	접씨	접시
이튼날(翌日)	이튿날	자피어(捕)	잡히어	젓(乳)	젓
일꾼	일꾼	작고, 작구(작주)	자구	젓다(日暮·變)	젓다
잃어버린(喪失)	잃어버린	작다(많다, 少)	적다	젓다(瀑)	젓다
일에(7日)	이레	작대기(支樁)	작대기	정역(精力)	정력
일으고(至)	이르고	작란(作亂)	장난	정열(貞烈·整列)	정열
일온(早)	이른	작알(礫)	자갈	정예(定例)	정례
일온(亡失)	잃은	작연(昨年)	작년	정유(停留)	정류

정이(正) 정히
 정차(停車) 정거
 ...적에(時) ...적에
 찌르다(短) 찌르다
 짧은(短) 짧은
 제절로(自然) 제절로
 제치고(排除) 젓히고
 조고마코(小) 조그맣고
 조금도(少) 조금도
 조금식(少量) 조금씩
 조름(睡) 졸음
 조린다 졸인다
 (水分을 減하는 것)
 조용이(靜) 조용히
 조으려니와(好) 좋으려니와
 조타(好·可) 좋다
 조핀다(狹) 좁힌다
 조화하는(好·喜) 좋아하느
 줄나매다 줄라매다
 줄열(拙劣) 줄렬
 종류(種類) 종류
 종이장(紙片) 증잇장
 종토록 종도록
 또차서(從隨) 꽃(奚)아서
 쫓겨(追放) 쫓겨
 주누라고(與) 주느라고
 주리다(減少) 줄이다
 주워모아(收合) 주어모아
 주춧돌(礎石) 주춧돌
 죽엄(屍體) 주검
 죽음(死亡) 죽음
 줄이다(飢餓) 주리다
 중계(中繼) 중계
 중이(重) 역어 중히여겨
 쪽(길게 列지은 模樣) 쪽
 즐거은(樂) 즐거운
 즐거히(樂) 즐거이
 짐승(獸) 짐승
 ...지음(頃) ...즈음
 증가률(增加率) 증가율
 지코(造) 짓고
 지뒀다(濃) 짙었다
 지팡이(杖) 지팡이
 지혜(知慧) 지혜
 지켜라(守) 지켜라
 진렬(陳列) 진열
 진절이(壓症) 진저리
 질겁고(嬌) 즐겁고

질머졌다(擔)
 질음길(捷徑)
 집웅(屋蓋)
 짓거린다(喧)
 짓는다(吠)
 짓다(빛깔이)
 짓발피다
 징계(懲戒)
 찢저지고(裂)
 찢키어(代)
 찢프린다
 찔넛다(刺)
 찢다(搗精)

[天]

차례(次例)
 차츰차츰(漸次)
 찰난(燦爛)
 참아(難忍)
 찾다(尋·採)
 채찍
 책략(策略)
 쳐다보았다
 처든다
 쳐부신다(擊破)
 처엄(始初)
 천둥(雷)
 천천이(徐徐)
 천님천님
 철노(鐵路)
 천리(千里)
 철싸(쇠줄)
 첫째(第一)
 초갓집(草家)
 초불
 추이(寒)
 침(唾液)
 충분이(充分)
 ...치드라도
 첫수(寸數)
 친절이(親切)
 칠랴고(打)
 침략(侵略)

[ㄱ]

감감하다
 케케묵다

짙어졌다
 지름길
 지붕
 지껄인다
 짓는다
 질다
 짓밟히다
 징계
 찢어지고
 찢히어
 찢푸린다
 찢렀다
 찢다

차례
 차츰차츰
 찬란
 차마
 찾다
 채찍
 책략
 쳐다보았다
 처든다
 쳐부순다
 처음
 천둥
 천천히
 철렁철렁
 철로
 천리
 철사
 첫째
 초가집
 촛불
 추위
 침
 충분히
 ...치더라도
 치수
 친절히
 치려고
 침략

감감하다
 케케묵다

코구멍(鼻孔)
 코저
 코끼리(象)
 콩가루(大豆粉)
 쾌이(快)
 크다란(大)

[E]

타합(打合)
 탁유(濁流)
 탈노(綻露)
 태어나서(誕生)
 태연이(泰然)
 터졌다(破裂)
 턱거리(掛頸)
 텃드리다
 통노(通路)
 통칙(通則)
 특별이(特別)
 튼튼이(堅固)
 튼튼하다(安心)
 틀린다(相違)

[교]

파라케(靑)
 파무쳐(埋沒)
 파손율(破損率)
 파수군(把守軍)
 퍼졌든(茂盛)
 폐병(肺病)
 폐한다(廢)
 퍼뜨리고
 병풍(屏風)
 포근이
 푸러지다
 푸르니(靑)
 품파리
 품기었다
 피어(咲)
 피줄(血脈)
 피폐(疲廢)
 핑계

[ㅎ]

하거늘
 하거던
 하겟습니다
 하고저하다

하거늘
 하거든
 하겠습니다
 하고자하다

하낫식(一)	하나씩	하지만은	하지마는	홀연이(忽然)	홀연히
하누님, 하느님	하나님	하품	하품	홀(單)	홀
하누라고(爲)	하느라고	한갓(單只)	한갓	화깁	화깁
하늘(天)	하늘	한랭(寒冷)	한냉	후끈거린다(熱氣感)	후끈거린다
하던지	하든지	한마디(一言)	한마디	후이(厚)	후히
하드니	하더니	할까(爲)	할가	홀용하다	홀용하다
하드라도	하더라도	함께(단번, 共)	함께	홀쳐	홀쳐(홀치어의 줄)
하랴고(爲)	하려고	합니다	합니다	힐신(越等)	힐씬
하랴거던(爲)	하려거든	함으로(原因理由)	함으로	휘바람(嘯)	휘파람
하로(一日)	하루	합유(合流)	합류	흐터진(散)	흩어진
하루밤(一夜)	하룻밤	항노(航路)	항로	흔이(多)	흔히
하마트면(幾平)	하머터면	해빛(日光)	햇볕	흘너내리다(流出)	흘러내리다
하므로(手段方法)	함으로	해불(烽火)	햇불	흐르는	흐르는
하므로써(手段方法)	함으로써	해졌다(爲)	해졌다	히다(白)	희다
하는것을 가지고의 뜻)		향낙(享樂)	향락	히롱(戲弄)	희롱
하물며(況且)	하물며	허례(虛禮)	허례	히망(希望)	희망
하세요(勸誘)	하셔요	험울(罪・過失)	허울	히미(稀微)	희미
하시얏	하시얏	헛되히(虛)	헛되이	히박(稀薄)	희박
하십시오	하십시요	헤어져(相別)	헤어져	히생(犧牲)	희생
하야(爲, 行)	하여	헤엄(泳)	헤엄	히소(稀少)	희소
하야금(使)	하여금	헤푸다(易滅)	헤프다	흰(白)	흰
하야케(白)	하얇게	현금(獻金)	헌금	힘드러서(困難)	힘들어서
하얏다(既爲)	하얏다	호흡(呼吸)	호흡	힘쭈	힘쭈
하엿음으로	하엿으므로	혼차(獨)	혼자		

〈正誤表〉틀리기 쉬운 용어 예

페이지	欄	原文	正
63	中↓ 8 左	根辛	艱辛
"	中↑ 12 左	食卒	倉卒
64	左↑ 5 左	고기잡이	고기잡이
"	右↓ 11 左	그만큼	그만큼
65	左↓ 16 左	西日	四日
"	右↑ 6 左	隨	隨
"	右↑ 4 左	暖	暖
66	左↑ 5 左	確突	確實
"	右↑ 13 右	……입니다	……입니다

페이지	欄	原文	正
67	中↓ 13 左	晚流冠	冕旒冠
68	右↓ 12 左	途付	送付
69	中↓ 9 右	손아저	손아저
"	中↓ 17 左	(瞬時間)	(瞬時間)
"	中↓ 17 右	순식간에	순식간에
71	右↑ 5 左	瀑	濕
72	左↓ 24 左	從隨	從隨
"	中↓ 10 左	代	伐
"	中↓ 22 右	쳐다보았다	쳐다보았다

9월의 행사

- 3일 파라과이선교사 김재창목사 파송예배
- 7일 교회설립 27주년 기념음악예배 · 근속 20년 감사패전달(송순일, 임광식, 이태규장로 · 이신일권사) · 정기제직회
- 10일 김창인목사님 선교여행차 출국
- 12일 구역예배 · 전체철야기도회
- 14일 남전도회, 권사회 월례회
- 16일 추계대심방 시작
- 17일 여전도회 임원 철야기도회
- 21일 여전도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 선교실행위원회
- 23일 추석 성묘 합동예배
- 24일 권사회 철야기도회
- 26일 구역예배
- 28일 권찰회 · 전도위원회 · 교육위원회
- 30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 매월 2달치를 첫주에 내게 되는 첫번 경우가 될 것 같다. 특히 금번호는 교회설립 27주년 기념호가 겹쳐짐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히 끝나게 되니 감사할 뿐이다.

이제 매월 첫주 발간하게 됨으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9월호 특별계획으로 칼빈의 「참된 그리스도생활을 위하여」를 번역 게재한다. 이 글은 칼빈선생이 쓴 글로써 성공적인 그리스도생활을 해 나가는데 매우 도움이 될 귀한 글이라고 생각되어 다루었다.

전체를 한 묶음에 다루고 싶었지만 지면 및 역자 사정상 3회로 나누어 실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

된다. 모두가 한번 읽어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용선생님의 50년간 중공에서의 생활기록은 생생하게 펴박받으며 신앙을 지키는 공산권의 성도들의 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교회의 목표로 정해 놓은 북한선교의 원만한 발전과 성과가 더욱 시급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나 권말부록으로 우리가 일상 생활속에서 늘 사용하는 용어중 특별히 틀리기 쉬운 용어를 정리하여 보았다. 교회내의 문서선교면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또한 기타 모든 교우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이 일에 수고를 해 준 편집위원장 조현명장로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1980년 월간총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 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월 간 총 현

9월호

제8권 제8호

통권 제80호

발행인 / 김 창 인

주 간 / 윤 형 철

편 집 인 / 조 현 명

편집부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장 로 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0년 9월 7일 발행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3407 · 3408



전도는 어떻게 ?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질문 /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의 뜻과 전도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1.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전체 구절의 의미를 살펴 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라고 했으니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 복음은 그 어떤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 만인, 그 누구나 다 믿어야 하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4)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으니 사람의 힘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 신앙의 힘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것이니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모두 다 주의 복음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해야 합니다. 전하되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의 힘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전하여야 합니다.

2. 전도하는 법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1) 6절~9절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이 사실은 여인으로 하여금 주목을 끌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전도자는 복음을 받는 자가 자기에게 주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급히 전진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서로의 대화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3) 여인에게 주 예수님은 메시야가 자기인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전하는 자는 언제나 주 예수님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여인은 이제 ①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게 됐고 ② 동리 사람에게 메시야를 전하여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는 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목하도록 하고 자기에게 주목하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전진적인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언제나 주 예수님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 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실로암
못가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 : 1 - 6〉